

2024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장애의재해석』



# 목 차

- [연구 1팀]  
MZ세대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1  
(최별, 우성은, 신세정)
  
- [연구 2팀]  
구전서사를 통해 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와 대책 ..... 19  
(유수빈, 임나린, 서주원)
  
- [연구 3팀]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국내 대중의 인식  
: 유튜브(Youtube) 댓글 양상을 중심으로 ..... 43  
(박채원, 김하린, 한지우)
  
- [연구 4팀]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동 연결망 응집구조 분석 연구 ..... 69  
(이원배, 백승은, 이에건)
  
- [연구 5팀]  
데이터 매칭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생각 및 시도에 관한 연구 ..... 91  
(임영재)

- [연구 6팀]
  - 여성장애인의 목소리 발화와 리터러시제안
  - : 2010년대 전후 한국문학작품 및 대중 콘텐츠 속 여성 장애인의 출현 양상과 장애 담론을 중심으로 ..... 111
  - (김나은, 김선진)
  
- [연구 7팀]
  - 대피시설에 대한 재해석
  - : 신체적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 137
  - (윤서연, 조영진, 권주현)
  
- [연구 8팀]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반한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재해석에 관한 연구 ..... 157
  - (장윤아, 소원희, 신채은)
  
- [연구 9팀]
  -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 : 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 179
  - (정희재, 조민지)
  
- [연구 10팀]
  -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 : 돌봄 토대의 장애 정의론 ..... 205
  - (이주영, 최수민)

\_\_\_\_\_

\_\_\_\_\_

\_\_\_\_\_

\_\_\_\_\_

---

# MZ세대 여성 장애인의 모성 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연구 1팀]

최 별(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학과 2학년)

우성은(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학과 1학년)

신세정(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학과 1학년)

---

# MZ세대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최별\* 우성은\*\* 신세정\*\*\*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다중 차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진행된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은 이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모성 경험의 개념을 살펴보고, 2021년도 「장애인삶 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모성 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여성장애인과 인터뷰를 통해 모성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재정의하고자 했다. 우선 「장애인삶 패널조사」 분석 결과, 조사에 응답한 MZ세대 여성장애인 196명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14.3%), X세대 여성장애인 725명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536명(73.9%)이었으며, 두 세대에서 유사하게 현재 자녀가 있을 경우, 출산 경험이 있을 경우, 미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 양육 부담이 적고, 양육에 만족할 경우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나 소비는 줄어들었으나, 자신감, 삶의 의지, 삶의 방향성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즉,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는 당사자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탐색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증진을 도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모성 경험, 자아존중감

\*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7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인 1.51명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통계청, 2023). 전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의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은 1,482명이며, 2021년 828명으로 갈수록 출산 산모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임신·출산·육아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편견이 있다.

여성장애인은 다중차별에 대한 존재로 개념화된 존재이며(최복천, 2009),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들의 활동 및 권리 주장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적 차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양정빈, 김소진, 2011). 특히 ‘임신·출산·자녀 양육기 단계’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이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주연 외, 2017). 여성장애인 대상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임신 중 우려했던 점은 장애 유전, 산전, 분만, 산후 과정에서 소요되는 진료 비용 부담 등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서해정, 2016).

세계보건기구(2020)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a right to good health)’를 지닌다. 사회적 비난과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자녀를 가지려고 계획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일부 사람들은 여성장애인이 성적 능력이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여성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국립재활원, 헤스페리안, 2019,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20). 하지만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모성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한다고 밝혀 오기도 했다(양정빈, 김소진, 2011; 마수빈, 2023).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시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해석이 더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

국제장애인권리 협약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모성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 6조(여성장애인)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착취,



폭력, 학대, 빈곤 등에 더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앞선 제6조와 제23조(가족), 제25조(건강), 제28조(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등을 통하여 차별 및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며, 여성장애인 인권의 발전과 진보, 권한 강화, 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장과 체계적인 보호, 여러 복지 프로그램의 접근성 등의 보장을 권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모성권을 보호하고 있다(이명화, 2021). 재생산 건강권의 측면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이 생명권,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에의 권리, 사생활의 권리, 교육의 권리, 차별의 금지 등 다양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피임, 임신, 출산, 낙태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공적인 결정권의 소유를 권고하여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이명화, 2021).

## 2) 세계보건기구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세계보건기구(2020)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a right to good health)’가 있지만 사회적 비난과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자녀를 가지려고 계획하는 많은 여성장애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나 신체적 한계로 인한 좌절감은 여성장애인의 자아상을 손상시킬 수도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여성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를 느끼기도 하며, 이러한 바람은 신체적 및 사회적 자아상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아기를 보살피는 능력, 양육의 감정적인 측면, 자녀의 발달, 엄마와 파트너와의 관계, 지역사회, 직업 등 양육의 여러 측면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혼자 육아를 해낼 수 없기에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의 신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육아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한다. 하지만 장애는 자녀를 가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며 장애인이나 임신부로 먼저 보아야 함을 명시한다(국립재활원, 헤스페리안, 2019;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020).

##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경험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은 장애 부모로서 사회적으로 겪어야 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본인의 장애 유형과 자녀의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생애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지속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임신 시 장애 자녀를 출생할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움, 가족의 부정적 태도로 인한 모성 능력 불신, 의사소통 및 구조적 장애 배려 부족에서 기인하는 상당한 부담감 등이 있었으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 부족, 태아보험 가입 배제가 두려움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다(서해정 등, 2016). 이러한 어려움은 적절한 산전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의 부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기초 상식이나 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중된다(최복천,

2009; 최복천, 2011). 이러한 상황임에도,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모성지원사업은 주로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그치고 있다. 외에도 장애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 근거가 미미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 부모에 대한 정책적 인지 및 고려가 부족한 점,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인해 지원받는 장애 가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점,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이해도 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허민숙, 2020).

마수빈 등(2023)은 가족건강성 및 사회적지지의 변화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영향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장애 발생 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장애 발생 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비하여 장애 보유 기간이 길고 주관적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지체장애인의 생애사적 고찰에 따르면 기혼 지체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에 스며들어 있으며, 관계맺음을 통하여 자아를 찾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으로써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빈, 김소진, 2011). 즉, 여성지체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보살펴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준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으로서의 평범한 일상 향유의 박탈에 대한 회한을 갖고 있었다(양정빈, 김소진, 2011).

### 3. 출산·양육 경험과 자아존중감 관련성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가족원을 길러내는 생산적인 과정인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양육자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정서·행동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지 및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김영미, 2015). 출산 후 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출산 후 산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로,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고 조절이 어려워져 그로 인한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석소원, 윤명숙, 2020). 이는 영유아기 가정 내 양육 환경이 개인의 인격 형성에서 매우 중요함을 경험적, 학문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 양육자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그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나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도록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국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효식 외, 2014).

### Ⅲ. 연구방법

####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경험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 분석

##### 1) 자료원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승인번호: 제438001호) 2015-2017년 장애인등록을 한 전국의 장애인 6,1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통계데이터포털(<https://koddi.or.kr/stat/html/user/main/main>)에서 구득 가능한 2021년도 자료를 활용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 2) 연구 대상

2차 자료 분석의 연구 대상은 만 20~59세의 여성이다. 하위 분석 시에는 2021년 응답 시점 기준 X세대(1979~1965년생, 만 42세~56세)와 M세대(1994~1980년생, 만 27세~41세) 및 Z세대(1995-2002년생, 만 19-26세) 임을 고려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연령을 10세 단위로 제공하므로, 만 20-39세는 MZ세대, 만 40-59세는 X세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비교·분석했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921명으로, 만 20~39세(이하 MZ세대) 357명, 만 40~59세(이하 X세대) 564명이었다.

##### 3) 변수 정의

자녀 여부, 장애 발생 이후 출산 여부, 미취학아동 양육 여부 및 양육에 대한 부담과 만족도 여부를 주된 독립변수로 활용했다.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40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 비교를 수행했다.

##### 4)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인 MZ세대와 X세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 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자녀여부, 장애발생 이후 출산여부, 양육경험 여부, 양육경험 정도에 따른 자아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고 t-test를 수행하여 통계적 차이를 검정했다. 또한 MZ세대와 X세대에 따른 하위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출산 및 양육 경험	문항	자아만족도 점수(10점~40점)
[주요 독립변수] ■ 자녀 여부 ■ 장애발생 후 출산 경험 여부 ■ 미취학아동 양육 여부 ■ 미취학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감 ■ 미취학아동 양육에 대한 만족도  [하위 분석] X세대, MZ세대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2차자료 분석 모형

## 2. 여성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 재해석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MZ세대의 여성장애인에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고, 실제 본인들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 모성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단순히 수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해석이 더해지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저출생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에 대하여 재해석했다.

# IV. 분석결과

##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경험과 자아존중감 분석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중에 MZ세대는 196명, X세대는 725명이었다. MZ세대 내에서는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36.2%로 가장 높았고, ‘청각/언어장애’가 8.2%로 가장 낮은 반면, X세대에서는 외부신체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고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비율이 15%로 가장 낮았다.

장애정도는 MZ세대가 중증 65.8%, 경증 34.2%로 경증에 비해 중증의 비율이 높았고, X세대 또한 중증이 54.3%, 경증이 45.7%로 경증에 비해 중증의 비율이 높았지만 MZ세대에 비해서는 중증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중복장애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MZ세대, X세대 모두 약 5%(MZ세대 5.1%, X세대 4.6%)로, 중복장애가 없다고 답한 이들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장애보유기간은 평균적으로 MZ세대가 15.1년, X세대가 16.6년으로 약 X세대가 MZ세대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답한 MZ세대가 55.6%, X세대가 49.7%로 MZ세대가 X세대에 비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은 MZ세대에서 2인 이하가 27.6%, 3인 이상이 72.5%로 2인 이하인 가구보다 3인 이상인 가구가 현저히 높은 반면, X세대는 2인 이하가 47.2%, 3인 이상이 52.8%로 두 가구특성의 비율이 비슷하다. 교육수준에서 MZ세대는 고졸 이하라고 답한 비율과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8.7%, 51.5%로 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씩에 가까운 반면, X세대는 고졸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79.6%로 MZ세대에 비해 훨씬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유지에서는 혼인했다고 답한 MZ세대는 17.4%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X세대는 56.4%가 혼인했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기혼자였다. 근로시간은 MZ세대 내에서는 '비경제활동'이 73.5%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가 9.2%로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X세대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84.3%로 가장 높고 시간제로 일한다는 비율이 5.2%로 가장 낮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에서 ' 좋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MZ세대에서 70.9%, X세대에서 55.3%로 두 세대 모두 ' 좋음'의 답변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X세대가 MZ세대에 비해서 훨씬 낮은 비율이었다. 만성질환 부분에서는 MZ세대와 X세대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MZ세대는 만성질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9.4%인 반면, X세대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는 두 세대 모두 '우울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 답한 비율이 MZ세대, X세대 각각 84.7%, 76.6%로 '우울 정도가 심함'에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있음'에 답한 비율 또한 MZ세대, X세대 모두 각각 73.5%, 73.7%로 근사한 값으로 '없음'에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사회적지지 점수에서는 MZ세대와 X세대 모두 평균 8.0으로 같은 수치였고 장애수용 정도에서 MZ세대의 평균값은 30.5, X세대는 29.9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회적지지 점수와 같이 유사한 값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재 삶의 만족도 부분에선 MZ세대에서 5.6, X세대에서 5.3점으로 MZ세대가 X세대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약간 더 높지만, 점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MZ세대 (N=196)		X세대 (N=725)		통계적 유의성
		N	%	N	%	p-value
장애유형	외부신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50	25.5	222	30.6	<.0001
	시각장애	29	14.8	92	12.7	
	청각/언어장애	16	8.2	112	15.5	
	내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30	15.3	190	26.2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	71	36.2	109	15.0	
장애정도	중증	129	65.8	394	54.3	0.004
	경증	67	34.2	331	45.7	
중복장애	중복장애 있음	10	5.1	33	4.6	0.746
	중복장애 없음	186	94.9	692	95.5	
장애보유기간 (년)	평균 ± 표준편차	15.1	10.0	16.6	16.2	0.231
거주 지역	수도권	109	55.6	360	49.7	0.139
	비수도권	87	44.4	365	50.3	
가구특성	2인 이하	54	27.6	342	47.2	<.0001
	3인 이상	142	72.5	383	52.8	
교육수준	고졸 이하	95	48.5	577	79.6	<.0001
	전문대학 이상	101	51.5	148	20.4	
혼인유지	혼인	34	17.4	409	56.4	<.0001
	미혼, 이혼, 별거, 사별	162	82.7	316	43.6	
근로시간	비경제활동	144	73.5	611	84.3	0.002
	전일제	34	17.4	73	10.1	
	시간제	18	9.2	41	5.7	
주관적 건강수준	좋지 않음	139	70.9	401	55.3	<.0001
	좋음	57	29.1	324	44.7	
만성질환	없음	136	69.4	275	37.9	<.0001
	있음	60	30.6	450	62.1	
우울 정도	우울 정도 심하지 않음	166	84.7	555	76.6	0.014
	우울 정도 심함 (CES-D 11 16점 이상)	30	15.3	170	23.5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없음	52	26.5	191	26.3	0.958
	있음	144	73.5	534	73.7	
사회적지지 점수	평균 ± 표준편차 (연속변수, 높을수록 좋음)	8.0	1.9	8.0	1.9	0.806
장애수용 정도	평균 ± 표준편차 (연속변수, 높을수록 좋음)	30.5	3.9	29.9	3.8	0.041
현재삶의 만족도	평균 ± 표준편차 (연속변수, 높을수록 좋음)	5.6	1.9	5.3	1.9	0.056
전체		196	100.0	725	100.0	

2) MZ세대와 X세대의 세대별 자녀, 출산, 양육 경험 비교

MZ세대 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14.3%이고, 장애발생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5.1%였다. 반면 X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73.9%이고, 장애발생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5.9%였다.

MZ세대 중 미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6.6%, 그중에서도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76.9%였으며, 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69.2%였다. 반면 X세대에서 미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1.2%에 그쳤으며, 그 중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66.7%, 양육에 만족도를 느끼는 비율도 66.7%로 전반적으로 MZ세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2] MZ세대와 X세대의 세대별 자녀, 출산, 양육 경험 비교**

구분	변수	MZ세대		X세대		p-value*
		N	%	N	%	
자녀 여부	없음	168	85.7	189	26.1	<.0001
	있음	28	14.3	536	73.9	
장애발생 후 자녀 출산 여부	없음	186	94.9	682	94.1	0.658
	있음	10	5.1	43	5.9	
미취학아동 양육 여부	하지 않음	183	93.4	716	98.8	<.0001
	양육 함	13	6.6	9	1.2	
양육 부담 (미취학아동 양육자 내에서)**	양육부담 없음	3	23.1	3	33.3	0.655
	양육부담 있음	10	76.9	6	66.7	
양육 만족도 (미취학아동 양육자 내에서)**	만족함	9	69.2	6	66.7	1.000
	만족하지 않음	4	30.8	3	33.3	
		196	100.0	725	100.0	

\*카이제곱검정

\*\*N=22, MZ세대 내에서 13명, X세대 내에서 9명, Fisher의 정확검정

3) 자녀여부, 출산경험, 양육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 비교

MZ세대 내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29.1점이고, 없는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27.1점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X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을 경우 25.7점, 없는 경우 26.8점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MZ세대 중 장애발생 후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8.4였으며 장애 발생 이전에 출산했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7.3점이었다. X세대 내에서도 장애발생 후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7.7점, 장애 발생 이전에 출산했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6.5점으로, MZ세대와 X세대에서 모두 장애발생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MZ세대 내에서 미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9.5점이었으며,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27.2점으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 내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26.9점,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26.5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MZ세대 중 미취학 아동 양육자들은 양육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29.2점, 느끼지 않는 경우에 30.7점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을 보였으며 양육에 만족하는 경우 29.8점, 만족하지 않는 경우 29.0점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을 보였다. X세대에서는 미취학아동 양육자 중 양육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26.2점, 느끼지 않는 경우에 28.3점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을 보였으며 양육에 만족하는 경우에 27.0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26.7점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을 보였다. MZ세대와 X세대 둘 모두 공통적으로 양육부담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양육에 만족하지 않을 때보다는 만족할 때 평균적으로 더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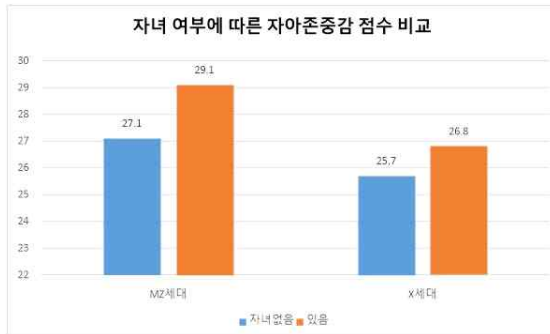
**[표 3] 자녀여부, 출산경험, 양육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 비교**

구분	변수	MZ세대 (N=196)			X세대 (N=725)		
		자아존중감 점수		p-value*	자아존중감 점수		p-value*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자녀 여부	없음	27.1	± 4.5	0.029	25.7	± 4.4	0.001
	있음	29.1	± 4.2		26.8	± 4.1	
장애발생 후 자녀 출산 여부	없음	27.3	± 4.5	0.468	26.5	± 4.2	0.076
	있음	28.4	± 5.3		27.7	± 4.4	
미취학아동 양육 여부	하지 않음	27.2	± 4.4	0.075	26.5	± 4.2	0.805
	양육 함	29.5	± 5.0		26.9	± 2.8	
양육 부담 (미취학아동 양육자 내에서)**	양육부담 없음	30.7	± 4.5	0.675	28.3	± 3.2	0.304
	양육부담 있음	29.2	± 5.3		26.2	± 2.6	
양육 만족도 (미취학아동 양육자 내에서)**	만족함	29.8	± 4.5	0.808	27.0	± 3.2	0.879
	만족하지 않음	29.0	± 6.7		26.7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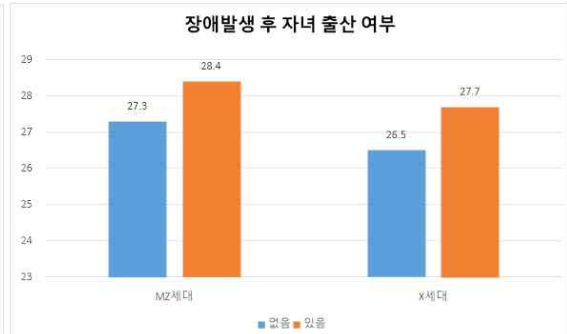
\*t-test 결과임

\*\*N=22, MZ세대 내에서 13명, X세대 내에서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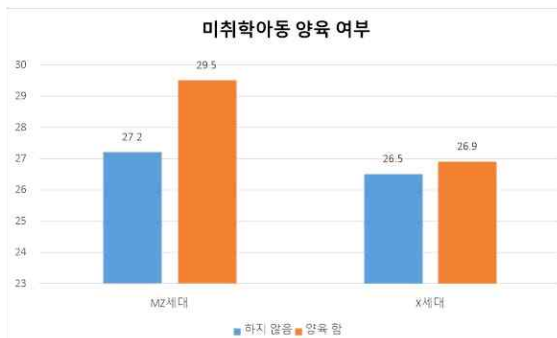




[그림 3] 자녀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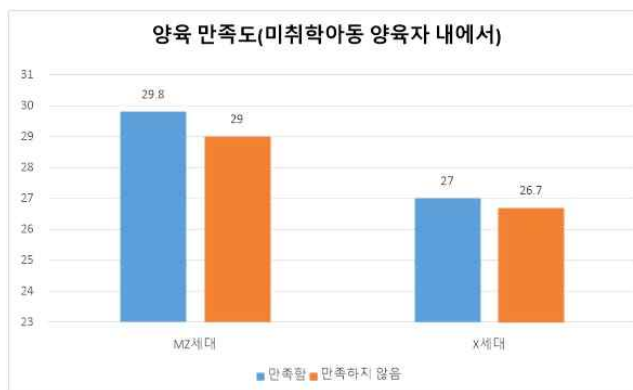
[그림 4] 장애 발생 후 자녀 출산 여부



[그림 5] 미취학 아동 양육 여부



[그림 6] 양육부담 (미취학아동 양육자 내에서)



[그림 7] 양육 만족도(미취학 아동 양육자 내에서)

## 2.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여성장애인의 모성 경험 재해석

앞서 제시했던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모성 경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뷰를 수행했다.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 결과, 장애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녀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의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몸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이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다.”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불면증도 오고 위궤양도 오고 그래서 6개월을 고생을 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꼈지만 이에 반해 자녀를 양육하기 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도 하였는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더 바빠야 하고 내가 그만큼 더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나는 그만큼 더 돈을 못 벌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를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나를 100% 헌신한다고 하면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가 왔을 때 내가 더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나는 우리 아이가 봤을 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아야 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이전에 여성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힘든 것보다는 행복한 일이라고 여겼다. 자녀가 웃는 모습, 혹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으며, 여자로서의 자신감, 자아존중감, 방향성이 확고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장애인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출산과 자녀 양육, 즉, 모성 경험은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힘든 일이기도 하면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도 모성애를 느끼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더욱 모성애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자라는 그 감각을 느껴보고 싶다면 일단 아이를 출산해 보라. 그러면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더 커지고 여자로서의 자아 존중감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이 더 확고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양적,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경험 현황파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했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장애인이 느낀 모성 경험에 대해 재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MZ세대 내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29.1점이고, 없는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27.1점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X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MZ세대 중 장애발생 후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8.4였으며 장애발생 이전 출산하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7.3점이었다. 또한 MZ세대 내에서 미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29.5점이었으며,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27.2점으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 내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26.9점,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26.5점으로 유사했다. MZ세대와 X세대 둘 모두 공통적으로 양육부담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양육에 만족하지 않을 때보다는 만족할 때 평균적으로 더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모성 경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터뷰 결과, 여성장애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자녀를 양육하기 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도 하였는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삶의 의지를 주고 장애인 이전에 여성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힘든 것보다는 행복한 일이라고 여겼다. 자녀 양육의 과정을 통해 여자로서의 자신감, 자아존중감, 방향성이 확고해졌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장애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과 자녀 양육, 즉, 모성 경험은 힘든 일이기도 하면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 일이라고 재해석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참여한 MZ세대 여성장애인 196명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14.3%), X세대 여성장애인 725명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536명(73.9%)으로, MZ세대 여성 내에서 모성 경험을 파악할 만한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웠다. 둘째, 인터뷰에 응한 여성이 중증 시각장애인 1명으로, 향후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장도를 고려한 응답을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사회적,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장벽에 부딪히게 됨에도 임신·출산·육아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의 긍정적 영향 확인을 통하여 비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도 보장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인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모성권과 모성 경험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다중차별 당사자인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모성 경험이 당사자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여성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편견의 타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20).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가이드. 원저: Rogers, Judith. (2006). *The Disabled Woman's Guide to Pregnancy and Birth*. New York: Springer Publishin Company. 중에서 [02.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정서적 우려/ 03. 임신 과 장애의 상호작용/04. 장애 부모의 육아/05. 보건의료서비스 제대로 활용하기]. [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6\\_00\\_03](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6_00_03).
- 국립재활원 헤스페리안 (2019). 세계 여성장애인의 건강 핸드북. 원저: Maxwell, Jane (2006).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6\\_00\\_02](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6_00_02)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http://wsbt.or.kr/world/cv.php>.
-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제 9권 제2호(2015. 12.) 71~88
- 김성미, 심인선 (2007).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Women's Studies* 2007. Vol. 72 No.1 pp 73~107.
- 마수빈, 최영민, 이민영, 전보영 (2023). 여성장애인의 출산 경험과 삶의 만족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7(1):32-44.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
- 서해정, 배선희, 이경민 (2016).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석소원, 윤명숙 (2022). 출산 후 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2), 343-358.
- 안옥, 심오, 원옥(2016). 산욕기 산모의 산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0권 제1호(2006년 1월).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6;10(1):58-68.
- 양정빈, 김소진. (2011). 결혼한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제 16권 3호,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1. 9. Vol . 16 No. 3 pp. 35-62.
- 이주연, 조원지, 최지훈. (2017). 전북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임신, 출산, 자녀양육기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전북연구원*.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_건강권\\_및\\_의료접근성\\_보장에\\_관한\\_법률](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_건강권_및_의료접근성_보장에_관한_법률).
- 정진아·이재문 (2022).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임신 출산영역을 중심으로. *장애의재해석연구* 제3권 제1호2022 Vol. 3, No. 1, 409 - 425.
- 최복천. (2009).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최복천. (201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연구.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54, No.4, 2011. 10.pp. 323~347.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4, 57-84.
-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0권 제1호(2006년 1월)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6, 10.1: 58-68.
- 통계청. (2023). 2022년 출생 통계. <https://kostat.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4. 4.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년 장애인삶패널조사. 2023. 12.
- 허민숙·박진우 (2020).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
- 2024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안내. <https://www.mohw.go.kr/>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Abstract

# A Study on the Maternal Experience and Self-esteem of Women with Disability in the MZ Generation

Choi Byeol\* Woo Sungeun\*\* Shin Sejeong\*\*\*

Women with disabilities are suffering from multiple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Nevertheless, recent studies on the Maternal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report that the maternal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motherhood rights and motherhood experienc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rough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at home and abroad,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hood experiences and self-esteem through analysis using the 「A Survey of the Life Panel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It also redefines maternal experiences and maternal rights through interviews with women with disabilities who have experienced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First of all, 28(14.3%) out of 196 women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MZ and 536 (73.9%) out of 725 women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X had children, and self-esteem scores were higher in both generations 'if you have children now', 'if you have childbirth experience', 'if you are raising preschool children', and 'if you are satisfied with parenting'. Based on this analysis, interviews with women with disabilities showed that raising children reduced the time and consumption invested in them, but confidence, will of life, and direction of life were strengthened. In other word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the person concerned and at the same time served as a springboard for growt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positive factor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experienc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on self-esteem and promoted the promotion of maternal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Key word:** Women with disabilities, pregnancy, childbirth, childcae, maternal experience, self-esteem

---

\* Myongji College,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 Myongji College,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 Myongji College,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_\_\_\_\_

\_\_\_\_\_

\_\_\_\_\_

\_\_\_\_\_

---

구전서사를 통해 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와 대책

[연구 2팀]

유수빈(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임나린(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3학년)

서주원(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



## 구전서사를 통해 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와 대책\*

유수빈\*\* 서주원\*\*\* 임나린\*\*\*\*

장애에 관한 연구가 확장됨에 따라, 장애인의 불편함과 필요에 주목했던 초기 동향과 달리 최근에는 그 대상이 장애인의 가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책임감에 주목한 연구가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서적·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8년 이후부터는 '비장애형제'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등 심리적 지원 방법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장애형제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다. 과도한 책임감은 '부모화'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본고는 비장애형제의 책임감에 따른 부모화 양상에 주목하여 장애형제와의 관계하에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때, 문학치료학의 방법론을 차용해 구전서사 <열두 오빠>와 <오누이>로 부모화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비장애형제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통해 문학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문학치료학 관점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장애형제와의 관계 속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양상을 구전서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문학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탈부모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비장애형제, 부모화, 구전서사, 문학치료학, 탈부모화, 공존

\* 연구계획서상에서는 '비장애 아동'으로 표현하였으나, 부모화 양상이 '성인기 돌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전서사 두 작품에서도 비장애형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화된 모습을 보이며 실제 사례 및 인터뷰 과정에서도 성인기 돌봄의 부모화 양상을 여럿 확인하였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 I. 서론

‘장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자 현재까지도 많은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 온 분야이다. 현재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의 기관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sup>1)</su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을 추천하거나 고용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형훈련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2)</sup>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재단에서 꾸준히 공모하고 있는 ‘장애의 재해석’ 논문 공모전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장애’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확장됨에 따라 장애인 가정에서의 비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나 ‘책임감’에 주목한 연구 (이민경, 2019; 김귀자, 2002)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sup>3)</sup> 다만 비장애형제에 관한 연구는 1990년 후반부터 이루어졌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경순, 윤채영, 2017). 비장애형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에는 특수교육분야나 사회복지분야에서 비장애형제의 지원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sup>4)</sup>(이경순, 윤채영, 2017), 2000년에 들어와서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등을 활용하여 비장애형제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유미향, 원희량, 2023; 양유리, 2015; 최하나, 이행숙, 한유진, 2023)<sup>5)</sup>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의 비장애 가족, 즉,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 등은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또래와는 달리 장애형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 아이’, ‘부모화’ 경향을 띠게 된다 (김다혜, 한재희, 2016; Byng-Hall, 2002<sup>6)</sup>). 또한, 문학치료학 분야에서도 ‘부모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동훈 (2010)은 <심청전>의 ‘심청’을 부모화된 인물로 정의하고, 부모화 양상과 강박적인 책무감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인문 분야에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확대·개편되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복지 제도이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관련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이민경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가족원의 우울이 높아지고 그러한 경우 자살생각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돌봄부담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돌봄지원 및 방문의료지원)의 만족스러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김귀자(2002) 연구는 자폐성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것으로, 전자의 집단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에서 비장애형제의 (자폐성 장애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4) 이경순, 윤채영 (2017)이 연구분야에 따른 연구동향을 정리한 <표 III-1>에 따르면, 특수교육분야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편수 또한 14편(35.9%)으로 가장 많았다.

5) 유미향, 원희량(2023)은 장애형제를 둔 초등 3학년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우울과 무력감, 나에게만 화내는 부모님과 동생을 향한 원망,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를 통해 심리적 성장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양유리(2015) 또한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미술치료가 비장애형제의 우울 및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나, 이행숙, 한유진 (2023) 연구에서는 신체접속중심 집단놀이치료가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6) 안다혜, 정주리 (2021)에서 재인용.

서의 장애 연구의 폭을 넓혔고,<sup>7)</sup> 김효현 (2021)은 부모화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탈부모화를 돕는 문학 치료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문학치료학과 탈부모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sup>8)</sup>

비장애형제에 대한 연구는 비장애형제가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장애 형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비장애형제 관련 연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윤미, 2015) 비장애형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반 넘게 차지하며, 장애형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다.<sup>9)</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제와의 관계 하에서 비장애형제의 '부모화'문제와 그 해결책을 다루기 위해 장애 서사로 해석 가능한 구전서사 <열두 오빠>와 <오누이>를 선정했다. 발달단계 및 심리적 성장이 자녀서사 영역에 위치해야 할 인물이 부모서사 영역에 위치해 발생한 문제와 건강한 탈부모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 등을 서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작품 분석 결과를 실제 사례와 연관지어 문학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 구체적인 문학치료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학치료 분야에서의 장애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II. 구전서사 속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문제

부모화란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역전 현상을 뜻한다. (Jurkovic et al., 2004)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유형을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나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파괴적 부모화 유형이다. 여기서 파괴적 부모화란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장기간 가족을 돕는 것”을 뜻한다. Jurkovic(1998)에 따르면 자녀가 적절한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적응적 부모화와 달리, 파괴적 부모화는 자녀가 발달 단계상 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게 돼 불공정한 관계 양상을 지속하고, 자녀의 △성격 △또래 관계 △사회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현주, 2021에서 재인용).

본고는 이러한 부모화 현상 중에서도 장애인 형제가 있는 '비장애 형제'의 '파괴적 부모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인 초기에 속한 비장애 형제는 부모가 더 이상 장애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결혼이나 취업 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장애 형제의 존재를 고려하며 과중한 부담감이나 우울함까지 경험할 수 있다. (손주희, 박주희, 2019; Turnbull&Turnbull,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와 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성인 초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비장애 학생은 필요한 경우 장애를 가진 형제들에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 형제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정서적 어

7) 심청의 '아버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일종의 강박적 책무감'이라고 정리한다. 심청은 강박적 책무감에 의해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겠다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며, 부모화된 인물이 가지는 이러한 강박적 책무감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8) 해당 연구는 김효현(2019)의 3년여간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문학치료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한 연구이다. 김효현(2019)은 <심청전>을 바탕으로 부모화된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를 진행해 문학치료적 접근이 부모화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서적 문제를 표출하는 데 유용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리데기> 설화 속 바리데기의 서사를 활용한 문학적 치료과정을 진행해 문학치료의 효용성을 실현한 연구이다.

9) 이윤미(2015)는 199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관련 논문 75편을 분석해 연구 동향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중 비장애형제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형제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41편(54.7%)로 절반을 넘어서고, 비장애형제와 장애형제를 함께 연구한 논문은 10편(13.3%)에 불과했다.

려움에 노출되는 비장애 학생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나 우울,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백영순, 박순길, 2023; 유신복, 손원숙,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 형제의 부모화 양상을 중심으로, '파괴적 부모화 유형'에 주목하여 구전서사 속에서 해당 양상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방향<sup>10)</sup>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선정 작품은 〈열두 오빠〉와 〈오누이〉이며<sup>11)</sup> 각 작품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 1. 작품 줄거리

### 1) 열두오빠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한글+영문). 바로이북.)

옛날에 어떤 왕과 왕비가 열두 왕자와 살고 있었다. 딸을 간절히 원했던 왕은 이번에 딸이 태어난다면 아들을 전부 죽이고 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미리 관을 짜둔다. 딸이 태어나면 성탑에 붉은 깃발을 꽂아둘 것이라고 미리 일러둔 왕비 덕에 열두 형제는 깊은 숲속으로 가 목숨을 구한다. 10년간 마법이 걸린 집에서 사는 동안 이마에 황금별이 박힌 채 태어난 공주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쑥쑥 커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빨랫감에서 열두 장의 남자 셔츠를 발견한 공주는 왕비에게 물어 오빠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숲으로 향한다. 마법에 걸린 집에 도착해 오빠들과 만난 공주는 그때부터 살림을 꾸리며 함께 지내게 된다. 어느 날 공주가 식탁을 장식하고자 정원에 피어있는 열두 송이 백합을 꺾자 그 순간 오빠들이 모두 까마귀가 되어 날아간다. 슬퍼하는 공주 곁에 한 노파가 다가와 네 잘못으로 오빠들이 까마귀가 된 것이라며 구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공주는 그 뒤로 키 큰 나무를 찾아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실을 자으며 절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어느 나라 왕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이마에 황금별이 박힌 공주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 청혼한다. 결혼한 후에도 공주는 오빠들을 위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왕의 어머니가 공주를 웃지도 않는 요망한 마녀라고 헐뜯는다. 왕은 아내를 마녀로 모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아내를 사형시키는 데 동의하고 만다. 공주의 웃에 불이 붙으려는 순간 7년의 마지막 순간이 끝나고 열두 마리의 까마귀들이 하늘에서 날아와 사람으로 변했다. 오빠들은 불을 끈 뒤 공주를 껴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공주는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내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왕은 기뻐했고, 그런 아내를 포함한 왕비는 끓는 기름과 독사로 가득 찬 통속에 갇혀 죽는다.

### 2) 오누이 (그림 형제 (2022). 오누이(한글+영문). 바로이북.)

10) 본 연구에서는 〈열두 오빠〉, 〈오누이〉와 같은 장애 서사 혹은 장애 서사로 분류할 수 있는 구전서사를 대상으로 '서사적 화두' 개념을 활용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설화의 의미 해석 방법론은 보통 설화의 의미상 다양성을 밝히는 화소 중심 분석법과 순차구조에 따라 분석하는 구조주의적 설화론으로 나뉜다. 하지만 신동훈(2017)은 '화소와 순차구조를 축으로 한 양방향적 지향이 함께 잘 드러날 때 설화의 문학적 가치와 의미가 오롯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며 '서사적 화두' 개념을 제시한다. 즉, 서사의 순차구조와 서사의 상징성을 분석 과정에서 모두 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본고는 해당 개념을 차용하여 구전서사 속 상징성을 지니는 화소와 서사의 순차구조를 중심으로 '부모화된 아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사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때, '서사적 화두'의 개념적 의미는 "서사적 의미 축을 이루는 쟁점적 문젯거리"이다. 설화 속에서 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화소들과 의미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맥락'을 구성한다.

11) 구전서사는 오랜 세월 구비 전승되어 온 이야기로,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다루며 다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도구이다. 하지만 문학에서의 장애연구는 주로 〈심청전〉과 〈반쪽이〉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인물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장애의 범주를 신체장애에 한정하지 않고 파괴적 부모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서사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계모 밑에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어린 오누이는 오빠의 설득으로 함께 집을 나오게 된다. 갈증에 시달린 오빠는 샘물을 찾아 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이는 ‘마녀인 계모가 샘에 저주를 걸었다’는 샘의 소리를 들었다. 그 물을 마시면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샘의 소리를 들은 누이는 오빠를 말했다. 두 번째 샘을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늑대가 될 거라는 샘의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는 이번에도 누이의 말을 듣고 참았다. 하지만 세 번째 샘에서는 사슴이 되고 말 거라는 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만다. 결국 사슴이 된 오빠를 누이는 평생 지켜주겠다고 깊은 숲속의 빈집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누이는 홀로 살림을 꾸리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사슴이 된 오빠는 누이가 주는 풀을 먹으며 즐겁게 놀고 밤이 되면 누이에게 기대 잠에 들었다. 어느 날 왕이 그 숲에서 큰 사냥을 벌였다. 사냥한다는 소식에 사슴은 누이를 졸라 사냥터로 향한다. 사냥꾼들에게 상처 입어도 사냥터로 향하던 사슴을 왕이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온다. 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왕은 청혼하고 누이는 사슴과 함께 지내는 조건으로 수락한다. 행복하게 지내는 세 사람의 소식을 들은 계모(마녀)는 질투에 휩싸여 왕비(누이)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때를 노려 욕실에 왕비를 가둬 질식사시키고, 몰래 데려온 외눈박이 친딸을 진짜 왕비인 것처럼 위장시켜 침대에 눕혔다. 왕이 아무것도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동안 왕자의 유모 앞으로 진짜 왕비가 나타났다. 요람 속 아이에게 젖을 주고 방구석의 사슴을 쓰다듬고 말없이 사라지는 진짜 왕비에 대해 유모가 왕에게 알린다. 직접 방을 지키고 있던 왕은 유모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발견한다. 첫날 밤엔 왕비를 그대로 보내지만 둘째 날엔 “그대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하며 사라지려던 왕비를 붙잡는다. 그 순간 왕비는 신의 은혜로 생명을 되찾았고, 마녀와 딸은 왕이 연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다. 마녀가 불에 타 재가 되자 오빠는 사슴에서 인간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열두 오빠〉, 〈오누이〉의 서사는 크게 △보호자의 역할의 부재 △부모화 진행 △부모화의 심화 △탈부모화와 주체성 회복의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당 목차에서는 4단계의 순차구조에 따르는 한편, 두 서사의 공통 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 2. 보호자 역할의 부재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서사 첫 부분에 제시된 가정환경의 공통점은 ‘부모 역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모가 자녀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된 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오누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남매의 성장 환경부터 살펴보자.

*오빠가 누이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라곤 없구나. 새엄마<sup>12)</sup>는 매일 때리기만 하고, 가까이 가면 발로 차서 쫓아버리지. 먹을 것도 고작 먹다 남은 딱딱한 빵부스러기뿐이니, 차라리 저 개가 우리보다 나아. 식탁 밑에 앉아서 수시로 맛있는 걸 얻어먹잖아.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

12) ‘계모’는 사전적 의미인 ‘의붓어머니’에 해당하지만 서사 속 ‘계모’를 ‘아버지가 재혼해서 얻은 아내’로 단정지을 수 없다. ‘계모’는 친엄마일 수도 있고, 부모나 아빠, 할머니, 이모, 고모, 선생, 선배 심지어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신동훈, 2017) 이러한 다의성을 기반으로, 〈오누이〉 이야기에서 단계를 거듭하면서 변화하는 계모의 상징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서사 분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실까! 이리 와, 같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오누이〉에서는 폭력과 방임을 일삼는 양육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인용문의 “매일 때리기만 하고, 가까이 가면 발로 차서 쫓아버리지”라는 부분에서는 부모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떡을 것도 고작 떡다 남은 딱딱한 빵부스러기뿐”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보호자의 방임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인용문 속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저 개가 더 나을” 정도이다. 더욱이 서사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존재의 부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존재 부재와 어머니의 역할 부재로 인해 남매는 ‘결핍’의 서사를 가지게 된다.

반면, 〈열두 오빠〉에서는 왕이 딸을 ‘편애’함으로써 사랑의 과잉(딸)과 결핍(아들들)을 동시에 제공한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13번째 아이가 만약에 딸이면 12왕자를 모두 죽일 거요. 그러면 우리 공주가 왕국을 혼자 차지하게 될 테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게 될 거요.”

그리고는 관을 12개 만들어 관마다 대팥밥을 가득 채우고, 죽은 사람이 베고 누을 베개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관들을 들여놓은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왕비에게 열쇠를 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어요.

위 인용문에서 왕은 딸에 대한 편애를 넘어 아들들에 대한 혐오를 보여준다. “태어날 아이가 딸이라면 열두 왕자를 모두 죽이겠다”거나 “관을 12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왕자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공주가 왕국을 혼자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편애하는 감정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때, 어머니인 왕비는 유약한 존재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왕비는 하루 종일 깊은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중략) 하지만 아들이 계속 올라대자 마침내 왕비는 그 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물쇠를 열고 대팥밥과 베개가 놓여 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벤자민, 이 관들은 아버지가 너와 너의 형 11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란다. 이번에 내가 딸을 낳으면 너희를 모두 죽여서 여기 넣겠다고 하시는구나.”

왕비가 이렇게 말하며 흐느끼자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날게요.”

왕비는 아들들의 예정된 죽음을 슬퍼하나, “하루종일 슬픔에 잠겨있을”뿐, 대책을 세우거나 죽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야 할 그 역할은 막내 아들 벤자민에게 맡겨진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위

치가 뒤바뀌어 있다. 아들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인 어머니조차 되레 아들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열두 오빠의 아들들 또한 부모의 역할 부재로 인해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결핍은 분노로 바뀌게 된다.

*“제집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다니! 맹세코 복수하고 말 테다. 제집아이를 보기만 하면 보는 족족 다 죽여 버릴 거야.”*

결핍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가 아닌 여동생에게로 향하는 오빠들의 분노는 이후 서사에서 여동생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한편, 그 책임이 다시 한번 자녀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두 작품은 ‘부모 역할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공통 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중심적인 양육 태도에서 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오누이>에서는 폭력과 방임이 두드러지는 반면, <열두 오빠>에서는 편애와 회피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두 서사의 양육 태도는 다르나 편애의 수혜자인 <열두 오빠>의 공주와 폭력과 방임의 대상 이었던 <오누이>의 누이가 이후 부모화되는 양상이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 ‘과잉과 결핍’ 모두 부모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부모화 진행

과잉 혹은 결핍을 경험한 존재들은 부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 는 과정을 거치며 형제들에 대한 돌봄의식을 드러낸다.

[열두 오빠]

*그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가장 뻗뻗하고 가장 어두운 숲 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마법에 걸린 작은 집이 있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누이]

*그렇게 해서 오누이는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하루 종일 들판을 지나고 초원을 지나고 울퉁불퉁한 돌밭을 지났어요.*

<열두 오빠>와 <오누이>에서 부모화의 시작은 낯선 공간과 보호자의 부재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열두 명의 오빠와 오누이는 주어진 환경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탈출하여 도착한 곳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곳이었다. 해당 단계에서는 ‘숲’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단계에서 경험한 보호자의 부재는 부모화의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그 낯선 공간에서 장애형제가 주체성을 잃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부모화 양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마법에 걸린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정원에는 백합꽃 12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공주는 밖으로 나가서 꽃을 꺾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들의 식탁에 한 송이씩 놓아주면 무척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소녀가 꽃을 꺾자마자 오빠들은 순식간에 모두 까마귀로 변해 숲 위로 멀리 날아가 버렸고, 집도 정원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열두 오빠>에서는 백합꽃 12송이를 여동생이 꺾음과 동시에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해 날아가 버리고 만다. 여기서 백합꽃 12송이는 열두 명의 오빠들을 상징한다. 여동생은 오빠들의 집 떠남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오빠들을 돌보고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빠들이 지닌 주체성을 꺾어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살자. 그리고 너 벤자민, 넌 가장 어리고 약하니까 집에 남아서 집안일을 하도록 해. 우린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그들은 숲에서 토끼며 사슴, 새와 비둘기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 왔고, 벤자민은 형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형들이 사냥해 온 짐승들을 요리했어요.

소녀는 요리할 때 쓸 장작을 모아 오고, 채소를 뜯어오고, 불 위에 올려 둔 냄비를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늘 오빠들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저녁상이 차려지곤 했답니다. 소녀는 집안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했고, 침대에도 늘 깨끗하고 새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첫 번째 인용문은 여동생과 재회하기 전 오빠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숲속 마법의 집에 갇혀 있었지만, 직접 사냥하고 요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집안일의 주도권이 여동생에게 넘어갔다. 여동생은 죄책감과 책임감에 오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빠들의 주체성을 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부모화가 비장애형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형제의 주체성 또한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약돌 위로 줄줄 흘러가는 조그만 시냇물을 발견하자 오빠는 곧장 물을 마시려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누이동생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략)

세 번째 시냇물에 이르렀어요. 누이동생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마시면 사슴이 돼!

나를 마시면 사슴이 돼!

누이동생이 말했어요.



“아, 오빠, 제발 마시지 마. 그 물을 마시면 오빠는 사슴으로 변할 거야. 그럼 나를 두고 멀리멀리 달아나버리겠지!”

하지만 오빠는 이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을 잔뜩 구부린 채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물방울이 입술을 넘어가기 무섭게 오빠는 새끼사슴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오누이>에서는 두 형제가 함께 길을 떠난다. 그러나 낮은 공간에서 형제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은 없었다. 물을 마시려는 오빠를 말리며 “나를 두고 멀리멀리 달아나버리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동생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보호자가 없는 낮은 공간에서 오빠마저 자신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여동생은 차라리 자신이 보호자가 되길 택한다. 샘물의 물을 마실지 말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오빠였지만 동생의 불안감이 그것을 막았다. 결국 길을 떠나자고 제안한 것은 오빠였지만, 세 개의 샘물을 지나며 주체성을 상실한 채 사슴이 된다. 오빠가 동물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주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곧, 여동생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여동생의 부모화 또한 점차 심화된다.

두 서사는 공통적으로 ‘장애형제의 주체성 상실’이 드러난다. <열두 오빠>에서는 오빠들이 까마귀<sup>13)</sup>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오누이>에서는 오빠가 사슴이 되는 것으로 그 양상이 나타난다. 수나우라 테일러는 이와 같은 장애의 전환 양상을 ‘동물로의 전환’으로 설명하였다.<sup>14)</sup> 동물로의 전환을 겪은 장애형제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sup>15)</sup> 이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억압된 존재의 보호자로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가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4. 부모화의 심화

두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공통적으로 ‘자기희생’이 전제된 부모화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파괴적 부모화 유형’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갑자기 웬 할머니가 옆에 나타나 말했어요.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네 열두 오빠들은 이제 영원히 까마귀로 변해버리고 말았구나.”

13) ‘까마귀’는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없어 까치의 집을 약탈한다. 이러한 까마귀의 속성을 근거로 오빠들의 ‘까마귀 되기’를 능동성과 주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4) 오빠들이 동물로 변하는 과정은 장애 운동가이자 동물운동가인 수나우라 테일러가 제시한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의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이란, 장애와 동물의 경계를 지우고 장애의 동물성을 긍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과 동물이 겪는 억압의 유사성을 찾는 연대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이예린, 2023에서 재인용) 철학자 스테파니 젠킨스는 에서 장애 차별과 종차별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인지장애인과 동물의 배제를 정당화해 온 기제에는 이성, 언어, 자율성을 인간성의 조건으로 놓고 의존적으로 간주되는 몸에 낙인과 멸시를 가하는 관점이 있었음을 언급했다(Jenkins et al, 2020), (이예린, 2023에서 재인용) 이는 아래 언급한 ‘동물로의 전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열두 오빠>에서 여동생이 백합을 꺾어버린 것 또한 ‘오빠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하는 일종의 낙인-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낙인-인 것이다.

15) <열두 오빠>에서 열두 명의 오빠는 여동생이 7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7년 동안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 <오누이>의 사슴은 여동생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동생의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는 동물로 겪는 억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소녀가 울면서 물었어요.

“오빠들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7년 동안 병어리로 살면서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되니까 말이야. 네가 단 한 마디라도 말을 하면, 7년에서 단 1시간이라도 모자라면, 네 오빠들은 모두 죽게 되거든.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지.”

소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난 해낼 수 있어. 오빠들을 꼭 구해낼 테야.”

소녀는 키 큰 나무를 찾아 그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그곳에서 실을 지으며 절대로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열두 오빠>에서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한 후에 등장하는 노파는 누이의 부모화된 자아를 상징한다. 노파의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말이 누이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누이가 지닌 책임감과 함께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드러난다. 이후, “7년 동안 병어리로 살면서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나친 자기희생적 태도와 함께 파괴적 부모화 양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오빠들을 꼭 구해”내겠다며 나무 위에 올라가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 모습은 누이가 자기서사의 주인공이 아닌 보호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심해. 사슴 오빠, 난 절대로 오빠를 떠나지 않을 거야.”

소녀는 급실로 짠 양말 댕뎀을 풀어 사슴의 목에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갈대를 모아 부드러운 밧줄을 엮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슴과 자신의 몸을 연결했어요. 소녀는 사슴을 이끌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중략)

소녀는 나뭇잎과 이끼들을 모아서 새끼사슴에게 부드러운 잠자리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을 나무뿌리며 딸기, 개암나무 열매, 그리고 사슴이 먹을 신선한 풀을 모아 왔어요. 새끼사슴은 소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즐겁게 뛰놀았어요. 밤이 되면 누이동생은 피곤한 몸으로 기도를 올리고 나서 새끼사슴의 등에 머리를 얹고 누웠어요. 그렇게 사슴의 등을 베개 삼아 포근히 잠들곤 했답니다. 오빠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멋진 삶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오누이는 외진 숲속에서 외로이 살았어요.

<오누이>의 누이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챙기듯 오빠의 의식주를 챙기며 부모의 위치를 내면화한 모습을 보인다. “오빠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누이의 책임감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부드러운 잠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매일 아침”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을 통해 <열두 오빠>의 공주와 같은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새끼사슴은 소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즐겁게 뛰놀았”다는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장애 형제의 주체성 상실도 함께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사 속 부모화의 극대화 양상은 두 인물의 결혼 이후에 더욱 잘 드러난다.

엄청나게 호화롭고 성대하고 즐거운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지만 신부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중략)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왕의 어머니가 젊은 왕비를 증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어머니는 무척 사악한 여자였거든요. (중략) 왕은 처음에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하도 끈질기게 몰아세우며, 왕비가 이런 저런 나쁜 짓을 했다고 계속 말하자 결국 넘어가, 왕비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말았어요.

<열두 오빠>의 공주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여전히 7년 동안의 약속을 위해 말을 하거나 웃지 않았다. 왕의 청혼과 결혼은 오빠들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서사를 만들어갈 기회였다. 그러나 부모화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올린 공주는 부부서사의 주체로 바로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했음에도 자신을 지키기보단 오빠들을 구하려는 마음을 다지며 자기희생적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은 <오누이>에서도 두드러진다.

왕은 다정하게 아가씨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왕이 물었어요.

“아, 네. 하지만 사슴도 같이 가야 해요. 전 사슴을 버릴 수 없어요.”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중략)

왕비는 아기를 요람에서 꺼내 가슴에 안고는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작은 베개를 툭툭 털어 아기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왕비는 사슴도 잊지 않았어요. 구석에 누워있는 사슴에게로 걸어가서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이는 “사슴도 같이 가야 한다”며 “사슴을 버릴 수 없다”고 표현한다. 결혼의 조건으로 사슴과의 동행을 내건 것이다. 이는 사슴(형제)과 분리되지 못한 채 자기서사의 중심에 스스로가 아닌 장애형제를 두려는 부모화 양상에 해당한다. 또한 마녀에 의해 목숨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아이와 동등하게 사슴을 챙기는 모습은 자기희생이 돋보이는 파괴적 부모화 양상이다.

결혼은 독립을 상징한다. 즉, 형제서사에서 나아가 부부서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주와 누이는 여전히 형제와 분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열두 오빠>의 공주는 7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에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누이>의 누이는 사슴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청혼을 승낙한다. 이후, 외부 세력(시어머

니, 마녀)에 의해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자신의 목숨보다 돌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누이>의 누이는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제를 자신의 아이와 동일하게 대하며 부모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보인다.

두 서사 모두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장애형제의 부모화가 해소되고 장애형제가 주체성을 회복하는 결말부를 보여준다. 이때, 장애형제의 ‘인간되기’ 양상은 장애의 해소가 아닌 주체성 회복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장애형제 또한 자기서사의 주체로 바로 서며, 인간이 된 장애형제와의 공존 및 소통을 시도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서사의 순차구조 내에서 유사한 상징성을 지닌 화소를 통해 두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두 서사의 결말부 분석을 통한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 Ⅲ. 구전서사 속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 1. 비장애형제의 탈부모화

앞에서는 상징성을 지닌 서사의 공통 화소를 중심으로 <열두 오빠>와 <오누이>를 분석하였다. 두 작품의 전개는 서사적 유사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지만, 결말부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두 작품의 결말부를 각각 살펴보고 결말부 전개의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해소 및 장애형제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커튼 속에 숨어있던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왕비에게로 튀어나가며 말했어요. “그대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어요. “네, 난 당신의 아내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와 왕비의 생명을 돌려주었어요. 왕비는 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어요.*

먼저 <오누이>의 결말부를 살펴보자. 죽어서도 아기와 사슴을 돌보기 위해 궁전으로 찾아오는 왕비를 보고, 왕은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라고 외친다. 이러한 왕의 외침에 왕비는 “난 당신의 아내”라며 사슴의 누이(보호자)가 아닌 왕의 아내로서의 자기서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혼한 이후에도 독립된 개체로 서지 못한 채 아이와 오빠를 돌보며 부모서사만을 지니고 있던 주인공이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비는 못된 마녀와 딸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왕에게 다 말했어요. 왕은 두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와 재판을 받게 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숲속으로 추방당한 딸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고, 마녀는 불 속에서 비참하게 타 죽었어요. 마녀의 몸이 재가 되는 순간 사슴에게 걸렸던 마법의 주문도 풀렸어요. 오빠는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고, 오누이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후 오누이는 행복을 되찾는다. 왕비를 죽인 마녀와 그 딸은 처벌받고, 오빠는 사슴에서 인간으로 돌아온다. 인간에서 동물이 되는 것을 주체성의 상실로 해석했다면,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주체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사슴이 된 오빠가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계모의 소멸'이다. 앞서, 계모의 상징성이 서사 진행에 따라 변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사의 가장 앞부분에서 계모는 '부모 역할의 부재'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이후 오빠가 사슴이 되는 과정에서 계모는 '주체성 상실을 야기하는 외부 환경의 위협'을 상징한다. 오빠는 계모가 저주를 건 샘물을 마신 뒤, 사슴이 된다. 이 때 오빠가 사슴이 된, '동물로의 전환'을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계모는 오빠가 주체성을 잃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존재이자 외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말부에 등장하는 계모의 소멸은 곧 '주체성 상실의 원인이 되는 존재의 소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장애형제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이때, 화소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장애형제(오빠)의 인간성 복귀 또한 장애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체성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계모의 상징성은 서사의 결말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누이의 내면과도 맞닿아 있다. 계모와 외눈박이 딸의 관계는 일방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외눈박이 딸의 욕망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서는 계모의 모습은 사슴이 된 오빠를 통제하려는 누이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만약 계모가 왕비의 내면을 상징한다면, 이는 곧 외면(왕비)과 내면(부모화된 누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계모에 의한 왕비의 질식 또한 부모화된 내면에 의한 자기서사의 부정이나 파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서히 죽어간다'는 질식의 속성에 집중하였을 때, 이는 극대화되어 가는 부모화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극대화되는 파괴적 부모화의 양상이 왕비로서의 자기서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결말부에서 누이의 부모화가 해소되고 왕비로서의 서사를 인정한 후에야 계모의 소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서사 형성을 방해하던 내면의 자아(계모)와 분리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누이>의 결말부에서는 '계모의 소멸'을 중심으로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해소와 장애형제의 주체성 회복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오누이> 결말부 분석

단계	내용
①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해소	해소의 전제 조건 : 부모화된 자아와의 분리
계모의 소멸	상징성 ① : 주체성 상실의 원인 상징성 ② : 부모화된 내면
② 장애형제의 주체성 회복	회복의 전제 조건 : 주체성 상실의 원인 제거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왕비를 혈뜰자 결국 왕도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왕비를 화형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중략) 왕비가 말뚝에 묶이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의 혀가 왕비의 옷자락을 핏고 있을 때 만 7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 때 갑자기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12마

리의 까마귀가 왕궁을 향해 날아와 쏜살같이 왕궁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왕비의 열두 오빠로 변했습니다. (중략) 그들은 불붙은 나무들을 헤쳐 불을 끄고 말뚝에 묶인 여동생을 풀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열두 오빠>의 결말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약속된 7년이 마무리되는 순간, 오빠들이 인간으로 돌아와 여동생을 구해주는 결말이다. <오누이>에서의 선후관계와 반대로 장애형제의 주체성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모습이다. 만약 <열두 오빠>를 <오누이>와 같은 비장애형제와 장애형제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본다면, <열두 오빠>의 결말은 <오누이>와 대비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오빠들의 7년에 대한 서사적 공백이다. 작품 속에서 오빠들의 7년은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여동생의 7년의 침묵만이 등장하고, 약속된 7년의 시간이 끝난 순간, 오빠들은 인간으로 변해 여동생을 구해준다. 앞서 '7년간의 침묵'은 여동생의 지나친 책임감을 상징하며 파괴적 부모화의 양상을 비추는 화소라고 분석한 바 있다. 작품에 등장한 내용만으로 해석을 시도한다면 오빠들의 주체성은 여동생의 책임감만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열두 오빠>의 결말부의 두 번째 한계는 여동생의 부모화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빠들의 주체성이 여동생의 책임감만으로 회복되었다면, 여동생의 부모화는 이 서사에서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여동생의 시점에서 결말부를 본다면 여동생은 7년 동안의 침묵으로 대표되는 책임감의 보상으로 형제의 귀환을 받아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작품의 결말부를 부모화 해소와 회복에 대한 낭만적 결말로 해석하고자 한다.

[표 2] <열두 오빠> 결말부 분석

단계	내용
①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해소	-
② 장애형제의 주체성 회복	회복의 전제 조건 : 부모화된 존재의 책임감

## 2. 장애-비장애형제의 공생과 공존

두 서사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주변인물로는 '왕'이 있다. <오누이>와 <열두 형제> 결말부의 유사성은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진 왕이 등장하고, 왕과 여동생이 결혼함으로써 궁전에서 새로운 갈등을 겪고 문제의 해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왕과의 혼인으로 왕비가 된 여동생이 겪는 시련(죽음 혹은 모함)에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두 작품의 결말은 그 모습에 차이를 보인다.

[표 3] 부모화 해소 및 주체성 회복 과정

단계	열두 오빠	오누이
	결과	결과

위기(위협하는 존재 등장)	부모화 극대화	부모화 극대화
왕의 역할 (부재/존재)	왕의 역할 부재 =사회/국가 차원의 노력 부재	왕의 노력 =사회/국가의 노력
해소	부모화 미해소	부모화 해소
	서사의 공백: 주체성 회복 과정 부재	주체성 회복

왕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배경 모두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누이>에서는 왕과의 결혼 후 달라진 생활을 통해, 사회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생활에 주는 안락함을 관찰할 수 있다. 사슴이 되면 오빠가 자신에게서 도망칠 것이라 두려워하던 여동생은 깊은 숲 속의 빈 집으로 들어가 나뭇잎과 이끼로 오빠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준다. 왕은 이런 여동생에게 칭찬하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사슴과 함께 있어도 좋고, 사슴은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왕과의 결혼 후, 여동생과 사슴이 된 오빠는 전에 없던 편안한 생활을 누린다. 왕은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방을 직접 지켜 아내에게 “그대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라고 외치며 왕비의 생명을 되찾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때 왕이 알아본 ‘진짜 아내’는 마녀와 같은 부모화된 내면 뒤에 숨어있던 왕비의 ‘진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화 해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왕이었던 것이다. 방을 지키면서 왕은 진짜 아내를 알아보았고 그것이 곧 왕비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면, <열두 오빠>에 나타난 왕은 <오누이>에 비해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열두 오빠>의 왕은 여동생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후 어머니가 부인을 포함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수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형에도 동의하는 등 문제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화형을 당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왕의 방어나 협조가 아닌 7년의 침묵을 통한 오빠들의 귀환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공주/누이를 위협하는 존재인 시어머니와 마녀가 등장하는 위기 상황에서 왕의 태도가 <오누이>와 <열두 오빠>의 결말을 뒤바꾼 것이다.

이처럼 사회/국가를 상징하는 왕의 역할은 두 서사의 결말부 차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오누이>의 누이가 왕비로서의 자기서사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과 <열두 오빠>의 공주가 끝내 침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믿고 지지해주는 왕과 의심하는 왕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 지지받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의 서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두 서사 속 왕의 역할(태도)과 결말부의 차이가 시사하는 것은 곧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해소와 장애형제와의 공존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처럼 (형제들) 돌봐야 해’라기 보다는 ‘네가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데 까지만 책임을 지라’고 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신경도 많이 써주셨다.”

“공교육에서는 수업은 도움반에 분리돼 빠지고, 어떤 수업은 참여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형태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서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부감

이 달한 편인 것 같다.”

“현재 하는 일이나 꿈에 형제의 영향은 없었다. (형제의) 엄마가 아닌 형제로서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분야의 진로 (미술)을 택했다. 만약 크게 하고 싶었던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면 사회복지사 쪽으로 갔을 것 같다.”

7월 7일, 연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2살 터울의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비장애형제 A 씨의 경우, 장애 형제를 고려한 진로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모로서의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의 기반에는 돌봄에 대해 부모님이 큰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던 점, 대안학교 재학 경험으로 통합교육을 경험했던 점 등 주변 사람들과 시스템이 함께 하는 구조가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장애형제의 돌봄 부담 및 부모화 해소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의 역할과 지지를 이야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김수정 등 (2024)은 비장애형제의 돌봄 부담과 자존감에 주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제시한다. 또한 성인기의 미래 돌봄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상담학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소정(2023)이 6명의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에서 한 참여자는 “이번 심층 인터뷰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경험을 했고 평상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나 말하고 싶어도 적절한 대상이 없었던 원가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본고는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해소와 장애·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상담학적 방안의 하나로 문학치료학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사와 접속하는 경험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자기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내 이야기를 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서사가 제안하는 결말을 통해 부모화 해소와 더불어 장애형제와의 건강한 공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는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부모화 해소 및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조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두 서사의 결말부 차이가 사회로 상징되는 ‘왕’이라는 인물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하며 부모화 해소 및 공존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해당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 IV. 결론

본고는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구전서사의 심층 분석을 통한 양상 발견 및 해결책 제시를 방법론으로 하여 탈부모화 및 장애·비장애형제의 공존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화 양상의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이중 파괴적 부모화에 주목하여 <열두 오빠>와 <오누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론 1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 화소를 통해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아동의 강박적 책임감을 발견하였고 2장에서는 결말부 차이점에 주목하여 가족을 둘러싼 공동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오누이>에서 장애·비장애형제의 공존이 가능했던 근거로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왕’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탈부모화 및 공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 긍정을 넘어 가족 단위의 사회적 복지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전 서사를 활용한 비장애형제의 탈부모화, 장애형제와의 공존을 위한 문학치료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록 참고) 문학치료 계획안은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7회차(회차당 3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계획한 프로그램은 비장애가족이 등장하는 <심청전>, 비장애형제가 등장하는 <열두 오빠>와 <오누이>를 통해 내담자의 삶을 돌아보고 탈부모화 혹은 가족과의 건강한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회차에는 직관적으로 작품 속 인물들을 접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심청전, 오누이, 열두 오빠를 읽은 뒤 자기서사진단을 인터뷰로 진행하는 과정을 구성했다. 2회차에는 자신의 가족화와 서사 속 가족화를 그리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자기 가족과 서사 속 가족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후 이해 가는 인물과 이해 가지 않는 인물을 고르고 서사 속 숨겨진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통해 서사 속 인물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마련했다. 3회차에서는 서사적 분기점과 결말을 평가하도록 구성했다. 3회차까지 서사를 깊이 있게 살펴본 후, 4회차에서는 중간 상담(수퍼비전)을 통해 내담자가 서사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심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간 상담 다음 진행되는 5회차에는 3회차에서 진행한 서사적 분기점 및 결말 평가를 기반으로 서사적 분기점과 결말을 다시 쓰기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후기 단계인 6회차에서는 서사와 삶을 통합하도록 한다. 다시 쓰기를 진행한 내용에 내담자 자신과 내담자 가족의 이름을 넣어봄으로써 타인의 서사로 느껴졌던 구전 서사를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보게 한다. 내담자와 가족의 이름을 넣은 이야기를 다시 읽은 뒤, 내담자는 얼마나 다시 쓰기 한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며 서사와 삶을 통합한다. 이후 마지막 회차인 7회차에서는 최종 상담(수퍼비전)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비장애형제의 탈부모화에서 나아가 장애·비장애형제의 관계 속에서 공존과 공생을 위한 사회제도 및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문학치료학에 근거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비장애형제에 대한 심리 지원의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장애·비장애형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학교와 복지 기관 등에 도입되어 비장애형제들이 장애가족과의 행복한 공존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귀자 (2002). 자폐성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 김수정, 김동일, 이재호 (2024). 성인 장애인 가족의 가족탄력성과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8(4), 81-101.
- 김효현 (2019). 부모화된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53, 79-132.
- 김효현 (2021). 부모화된 청소년의 탈부모화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설계 - 〈바리데기〉 설화를 바탕으로. 문학교육학 70, 9-38.
-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 손주희, 박주희 (2019).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Human Ecology Research(HER) 57.3, 445-457.
- 신동훈, 고전과출판연구모임 (2010).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웅진지식하우스.
- 신동훈 (2017).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6집, 한국구비문학회.
- 안다혜, 정주리 (2021).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 725-743.
- 양유리 (2015). 미술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형제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5.2, 107-121.
- 유미향, 원희량 (2023). 발달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의 퇴행 행동 및 우울, 불안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30(6), 1589-1610.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조절 및 공격성간의 구조적 관계. 教育心理研究 28.1, 205-224.
- 이경순, 윤채영 (2017). 비장애형제의 상담연구동향 분석: 1999-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2), 199-220.
- 이민경 (2019).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돌봄지원의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4.44, 121-148.
- 이윤미 (2015).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 관련 연구동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에린(2023), 지적장애인, 동물화, 그리고 동물로의 전환 -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학, 11-41.
- 백영순, 박순길 (2023).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비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4, 203-216.

전소정(2023).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생애 경험과 관계 경험이 미치는 가족인식에 대한 이해 및 지원방안 모색. 발달장애연구, 27(2), 135-159.

최하나, 이행숙, 한유진. (2023). 신체접촉중심 집단놀이치료가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2), 45-64.

최현주 (2021).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과 거부민감성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5-1737.

## Parentification of non-disabled siblings in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 Insights from oral narratives

Yu Subin\* Seo Juwon\*\* Lim Narin\*\*\*

As disability studies expand, the focus has shifted from the discomforts and need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include their families. Research highlighting the caregiving burdens and responsibilities of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has emerged, emphasizing the need for emotional and policy support for these families.

Particularly, since 2008, there has been an active research on "siblings," leading to discussions on psychological support methods such as art therapy and play therapy. Research targeting non-disabled siblings often emphasizes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ir disabled siblings. When this responsibility manifests excessively, it is referred to as "parentif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atterns of parentification based on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non-disabled siblings, and aims to discuss it in relation to their relationship with disabled siblings. Furthermore, it examines the issue of parentification through the oral narratives <Twelve Brothers> and <The Brother and Sister> by using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Therapy. Additionally, it presents the potential for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non-disabled siblings and suggests a program from a literature therapy perspectiv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reveals the patterns of parentification in non-disabled siblings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disabled siblings via oral narratives and provides practical ways for de-parentification by proposing a literature therapeutic program.

**Keywords** :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oral narrative, literature therapy, de-parentification, coexistence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 부록: 구전 서사를 활용한 비장애형제 문학 치료 계획안

대상	비장애형제		회차	7회차	시간	회차당 3시간
단계		주제	내용			
초기	1회차	서사 경험하기	① 서사 경험 심청전 → 오누이 → 열두 오빠  ② 자기서사진단(인터뷰) 진행			
중기	2회차	인물 이해하기	① 가족화 그리기 -자신의 가족화와 서사 속 가족화 그리고 비교해 보기 ② 이해가는 인물/이해가지 않는 인물 선정 ③ 서사 속에는 숨겨진 인물의 마음 생각해 보기 (or 전사 구성) -말풍선에 생각 채워넣기, 뇌구조 그리기 -전사 구성 활동			
	3회차	결말 평가하기	① 서사적 분기점 평가 ② 결말 평가			
	4회차	수퍼비전	① 중간 상담			
	5회차	다시 쓰기	① 다시 쓰기 -3회차에서 진행한 서사적 분기점 평가를 기반으로 서사적 분기점 및 결말 다시 쓰기			
후기	6회차	서사와 삶 통합하기	① 내 이야기의 주인공 되기: 이야기를 나의 서사로 바꾸기 -다시쓰기 한 내용에 나와 내 가족의 이름 넣기 -다시쓰기 한 이야기를 다시 읽고, 나는 얼마나 그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 앞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정리			
	7회차	수퍼비전	최종 상담			

\_\_\_\_\_

\_\_\_\_\_

\_\_\_\_\_

\_\_\_\_\_

---

#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국내대중의 인식: 유튜브 댓글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 3팀]

박채원(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하린(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한지우(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

#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O!cean)에 대한 국내 대중의 인식: 유튜브(Youtube) 댓글 양상을 중심으로

박채원\* 김하린\*\* 한지우\*\*\*

본 연구는 빅오션을 둘러싼 대중의 지배적인 여론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담론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4월 20일, 비장애인 연예인들이 주류인 K-pop 시장에서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이 데뷔하였다. 이러한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어떠한지 댓글 분석을 하였다. 댓글 수집 매체로 소셜 미디어 중 유튜브를 선정하였으며, 추출한 댓글을 바탕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TF-IDF 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여론은 주제어 '응원'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청각장애' 및 '장애' 등 장애와 관련된 주제어와 아이돌과 관련된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현재 빅오션이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돌로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문화를 생산함과 동시에 아이돌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담론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빅오션 활동의 장애 인식 개선 효과와 문화 생산자로서의 장애인 아이돌의 가치를 증명할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청각장애인, 장애문화, 아이돌, 유튜브, 사회연결망 분석(SNA), 대중인식

---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I. 서론

## 1. 연구배경

미디어에서 장애를 가진 연예인은 왜 보기 어려울까? 2019년에 진행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방송 드라마의 전체 등장인물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7%였다(최재현, 이숙정, 2022).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미디어 속 장애인은 치료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존재 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나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롭고 감동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출현이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비장애인처럼 기능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인 김리후 배우는 모델 활동 시 ‘연예인을 상품이라고 비유한다면 장애가 있는 연예인은 상품에 하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며, 상품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 대중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연예인의 신체장애에 긍정적 이미지가 구축되는 사례가 필요하다.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는 2020년부터 ‘장애 인식 개선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 장애인의 미디어 노출’이라는 믿음 아래 장애예술인을 육성해 왔다(이진호, 2023).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차해리 대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확실하고, 대중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조지윤, 2024). 이에 따라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바로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다.

빅오션은 박현진(25), 김지석(21), 이찬연(26)의 멤버로 구성된 3인조 아이돌로,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했다. 멤버들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서로 청각장애의 정도가 달라 음악 소리를 인지하는 데 차이가 있다. 청각 장애로 인해 정확한 음정을 듣고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빅오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였다. 빅오션은 빅오션 멤버가 여러 번 부른 노래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음원을 발매했다. 또한, 춤을 출 때는 스마트워치로 진동을 보내주는 비트 메트로놈, 모니터를 통한 빛 메트로놈, 수신호 등을 활용해 박자를 맞췄다(남지은, 2024). 이들은 소리를 비장애인 아이돌처럼 음으로 기억하기보다, 음역대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근육의 위치와 정도로 소리를 기억한다(김주현, 선아,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연예인이면서 청각장애 문화를 널리 알리는 빅오션이 국내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빅오션이 활동하며 ‘K-POP’ 시장에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성 있는 공급자로서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대중이 생산하는 빅오션 관련 유튜브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빅오션이 대중문화인으로서 대중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빅오션에 대한 국내의 지배적인 여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빅오션에 대한 국내의 지배적 여론을 형성하는 세부 담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돌 관련 소셜미디어 댓글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빅오션에 대한 대중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 아이돌이 연예계에서 상품 가치가 있을지 확인하고, 대중의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될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여론과 그에 관련 세부 담론을 이해함에 따라, 향후 장애연예인 산업과 미디어의 장애 재현 방식의 방향성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각전달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장애를 의미한다(신현석 2008). 청각장애는 크게 난청(hard of hearing)과 농(deaf)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난청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잔존청력이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보청기 사용을 통해 낮은 청력을 보완한다. 농은 소리를 완전히 혹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주로 인공와우이식술을 통해 의료기기인 인공와우를 사용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대표적으로 수어와 구화가 있다.

청각장애는 신체 외부의 장애가 아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 특징은 대중의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어져 사회 내에 청인 중심의 문화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 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청인 중심 문화에 동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적 특성으로도 이어진다(오승현, 추보은, 김동호, 최훈동, 황성수, 2017).

### 2. 아이돌

아이돌 스타(Idol star)는 2003년 3월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등록된 신조어이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솔로 혹은 그룹으로 데뷔하고, 일반적으로 기획사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 낸 스타를 말한다(이동연, 2011). 아이돌의 활동에는 크게 TV 음악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광고 모델, 각종 홍보대사 등이 있다.

아이돌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팬들에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하다. 인플루언서가 속한 소속

사는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특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박민석, 2021).

### 3. 장애 관련 이론적 모델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장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종정, 2018; Smart, 2004). 장애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있다.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은 장애를 ‘손상된 상태(harmed condition)’로 바라보며 ‘치료’를 장애인에 대한 핵심요소로서 간주한다(Harris, 1993). 즉,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생긴 비정상적인 개인의 생물학적 결함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모델은 장애의 여러 유형 중 기능적 신체 손상만 다를 뿐, 사회의 산물로서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리(disadvantage) 차원의 장애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조한진, 2006; Reindal, 2000). 그러나 의료적 모델은 진단시스템을 통해 객관성을 부여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조기 진단, 치료적 조치 등의 진단결과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로 간주된다(Smart, 2004; 김진희, 김용득, 2023).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본다. 즉, 장애를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억압의 결과로 간주한다(Oliver, 1983). 장애(barrier)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개인에게 내재하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에서 수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는 것이다(김진희, 김용득, 2023). 이 모델에서 손상은 신체의 결함을 의미하고, 장애는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회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라고 본다(양혜승, 2023).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적응과 재활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사회적 모델은 각종 장애인 권운동에 기여하기도 했다(이종정, 2018).

한편, 21세기에 등장한 긍정적 모델은 장애나 손상을 부정적, 비극적으로 바라본 이전의 모델들과 달리, 장애와 손상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가치 있고, 내재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종정, 2018). 즉, 긍정적 모델은 비장애인이 장애나 손상에 대해 비극적으로 여기는 것들을 삶의 한 부분 혹은 장애 정체성(identity)으로 인정한다. 이때 장애정체성이란 장애인이 스스로의 장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태도를 말한다.

Raymond Lang(2007)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욕구와 손상을 지닌 삶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가치 안에서 장애 자부심(disability pride)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장애 자부심은 사회가 만든 비극적 장애 이미지를 버리고 수치심이나 열등감 대신 자부심을 갖는 주체적이며 긍정적인 자기표현이다. 이에 Lang(2007)은 예시로 청각장애인의 삶을 제시하였다. 어떤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며, 독특한 사회 소수 집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 소수집단이 되길 원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구성한다(이종정, 2018).

### 4. 빅오션(Big Ocean)이 생산하는 장애 문화

#### 1) 장애 문화(disability culture)

장애문화란 장애인들의 공통의 경험과 정체성을 근거로 장애인의 생활양식의 과정들 속에서 나온 정신적, 물질적 산물들을 말한다(전지혜, 2011). 이는 긍정적 장애모델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수어 안무'가 있다. 수어(手語)는 수화 언어를 일컫는 말로,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는 농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이는 언어'이다. 최근 대중음악계에서는 수어를 안무 작업에 통합하는 시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수어 안무를 만드는 목적은 농인과 청인 모두가 작품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Wingenroth, 2024).

## 2)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이 생산하는 장애 문화

빅오션은 장애 문화의 주체적인 생산자로 활동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장애 문화로 '수어 안무'가 있다. 이들은 한국 수어(KSL), 미국 수어(ASL), 국제 수어(ISL)를 춤의 모티브로 삼아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빅오션은 2024년 8월 10일 기준 총 2곡을 발매했는데, 첫 번째 곡 '빛'에서는 한국 수어를, 두 번째 곡 'Blow'에서는 미국 수어를 활용해 춤을 추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곡을 수어로 재해석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 5. 여론의 창으로서 유튜브 채널과 댓글의 의미

### 1) 아이돌 산업 내 소셜미디어 활용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참여적, 통합적 특성의 인터넷 기반 소통 채널이다(Choi, 2011; Iris, 2012; Marketo, 2010). 이용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일상, 생각, 감정 등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고, 특정 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셜미디어는 이용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채널이라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가 있으며, 유튜브는 소셜미디어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다(이진원, 2022).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를 검색해서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하지 않아도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이돌들은 공식을 포함한 많은 채널에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개)라디오, 챌린지\*, K-POP 커버댄스 영상\*\*, 자체 제작 콘텐츠 등을 통해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자체 제작 콘텐츠로는 아이돌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나 예능, 무대를 비롯한 각종 활동 뒷 이야기(비하인드) 등의 영상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팬들은 아이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돌 행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본인 의견 등을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한다.

### 2) 온라인 댓글 창에서의 장애인 관련 발화

온라인 댓글에서는 개인, 사용자, 사회의 관심사가 숨어있고, 댓글 분석을 통해 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다(Siersdorfer, Chelaru, Nejdil & Pedro, 2010). 온라인 댓글 공간에서 장애인을 향한 발화는 누리꾼들이 영상

\*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 해시태그의 검색 기능을 적용해 제작하는 영상이다(Guan Jiayu, 2024)

\*\* 가수들의 댄스 안무를 모방하여 추는 춤이다(강별님, 2022)

에서 재현되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추가적으로 학습하게 만든다(양혜승, 2023).

## 6. 텍스트마이닝 분석

### 1) 텍스트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 유형으로서 대규모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방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김일환, 2019). 즉,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이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텍스트마이닝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생산 및 가공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분석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텍스트마이닝은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다. 정보추출, 자연어 처리, 주제 모델링(토픽분석), 감정분석, 텍스트 분류, 클러스터링, 사회연결망 분석(SNA) 등이 존재한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텍스트마이닝을 할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웹 크롤링, API 활용 등을 하여 텍스트, 소셜미디어(뉴스 기사, SNS, 인터뷰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수집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와 형식으로 정제하는 과정이다. 전처리 과정은 토큰화, 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대소문자 통일, 특수문자 제거 등이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형식이 한국어일 경우, 한국어의 특성상 다른 언어로 구성된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차별점으로 형태소 분석, 조사와 접속사와 같은 불용어 제거,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추출, 띄어쓰기, 한자 및 외래어 처리가 중요 전처리 작업이다.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단계에서는 정보 추출, 감정분석, 사회연결망 분석(SNA) 등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 2) 단어 빈도 분석

텍스트 속에서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단어 출현 빈도수를 분석하는 것이다(김일환, 2019). 단어 출현 빈도는 해당 단어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마이닝에서 단어 출현 빈도수는 단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이다(김일환, 2019).

### 3) TF-IDF 분석

TF-IDF 분석이란 특정 단어가 연구 문서 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통계적 수치를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이종화, 이문봉, 김봉원, 2019). TF(단어의 빈도 수, Term Frequency)와 IDF(문서 빈도의 역수,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하여 계산하여 값을 추출한다. TF를 통해 한 문서 속에서 단

어 빈도를 통해서 특정 단어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IDF는 다른 주제의 문서에서 적게 출현하는 특정 단어의 빈도 수를 바탕으로 전체 문서 속에서 해당 단어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즉, 전체 문서 속에서 특정 단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며 단어 빈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TF-IDF 분석은 주로 텍스트의 주제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유은순, 최건희, 김승훈, 2015).

#### 4) 사회연결망분석(SNA)

사회연결망분석(SNA)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모델링하여 구조와 과정 등을 계량적인 수치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최정아, 2023).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관계분석, 소셜미디어 분석 등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노드와 노드들의 관계 특징을 나타내주는 중심성 측정법으로 수행한다(오선효, 2022). 중심성은 특정 개체가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오선효, 2022). 중심성은 밀도\*\*를 중심으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젠벡터 중심성으로 나뉘지며 연결 중심성은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를 분석,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와의 평균 거리의 역수, 매개 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와 최단 경로에 위치하는 빈도를 분석한다. 아이젠벡터 중심성이란,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된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결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한경훈, 서영수, 박근병, 2015).

사회연결망 분석 중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측정 방법으로서 한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구조적 등가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노드를 그룹화하고 이 그룹 간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비슷한 특성을 가진 주제어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이다(권진주, 2023).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자료 전처리

##### 1) 유튜브 영상 및 댓글 수집

유튜브는 많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이자, 장애 인식 재고를 위한 잠재력 있는 도구로도 인정받고 있다(Ellis, 2010). 유튜브 영상들은 주류 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다양한 장애인 표상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빅오션은 아이돌인 동시에 장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빅오션은 SNS 혹은 그들이 제공하는 자체 제작 콘텐츠 속에서 멤버들이 가진 특성인 청각장애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이돌로서의 빅오션과 장애인으로서의 빅오션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에 적

\* 단어 빈도 중심으로 분석하면 문장의 단어 빈도가 높다면 의미 없는 단어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 단어로 추출되며 연구결과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종화, 이문봉, 김중원, 2019).

\*\* 네트워크의 응집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의미이며 네트워크 내 노드 간 연결된 정도(최나래, 반영운, 정현근, 중경선, 손철희, 2015)

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유튜브(Youtube)에서 빅오션 관련 영상을 수집했다. 빅오션의 자체 계정에는 데뷔 전부터 타 아이돌과의 합동 공연 등의 영상이 꾸준히 업로드되었다. 이에 영상 수집기간은 자체 계정에 본격적으로 콘텐츠가 올라오기 시작한 2023년 8월 2일부터 데뷔 후 2개월가량이 경과된 2024년 7월 9일로 선정했다. 빅오션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동영상과 Shorts를 찾았고, 총 123개의 영상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영상의 종류별 개수 및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유튜브 영상 종류별 개수 및 비율

영상 종류	수(개)	백분율(%)
자체 제작 콘텐츠	86	70
방송	18	15
뉴스	13	10
기타	6	5
합계	123	100

\*기타 : 연예 유튜브, 라디오, 뮤직비디오

영상 중에는 자체 제작 콘텐츠가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방송, 뉴스, 기타 영상이 그 뒤를 이었다. 빅오션의 자체 제작 콘텐츠에는 ‘우·아·될(우리가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각종 챌린지\*\* 및 K-POP 커버댄스 영상\*\*\*이 있었다. 이때, 빅오션은 기존 챌린지, K-POP 커버댄스 방식에 핵심 후렴구에는 수어 안무를 더하여 재해석했다.

다음으로 수집된 영상 하단에 게시된 댓글과 그에 달린 답글을 수집했다.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웹 크롤링(Data Crawling)하였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방문해 자동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신성일, 이은순, 2023).

## 2) 댓글 전처리

웹 크롤링으로 수집한 영상, 음성,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계량화해야 한다(신성일, 이은순, 2023). 본 연구에서는 댓글 데이터를 정형화하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정제와 키워드 추출은 빅데이터 분석 통합 패키지인 텍스트툼(Textom)을 활용했다.

1차적으로 타 연예인에 대한 댓글과 해외 댓글을 삭제했다. 먼저 타 연예인 관련 댓글은 빅오션에 관한 대중 인식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빅오션은 타 연예인과 챌린지 영상 등을 빈번히 촬영했다. 이러한 영상 댓글에는 빅오션에 관한 댓글 못지않게 타 연예인 관련 댓글이 많았는데, 이는 빅오션이 신인이기 때문에 타 연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대상이 국내 대중이기 때문에 해외 댓글을 삭제했다. 해

\* 빅오션의 데뷔 전 연습생 시절의 활동을 담은 영상이다.

\*\*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 해시태그의 검색 기능을 적용해 제작하는 영상이다(Guan Jiayu, 2024).

\*\*\* 가수들의 댄스 안무를 모방하여 추는 춤이다(강별님, 2022).

외 댓글에는 외국어로 기재된 댓글과 자신이 외국인임을 밝힌 한국어 댓글이 있었다. 그 결과 4,292개의 댓글이 최종 활용되었다.

2차적으로 유의어 사전을 구축하여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동일하게 처리했다(부록 참조). 유의어의 경우 형태(예 : '귀엽', '귀여', '귀염'), 발음(예 : '추카', '축하'), 띄어쓰기(예 : '수 어', '수어'), 축약형(예 : '훗팅', '파팅', '화이팅'), 은어(예 : '개존잘', '존잘', '잘생겼'), 별명(예 : '차노님', '이찬연') 등을 고려해 동일한 단어로 지정했다. 댓글 전처리에 대한 예시는 <표 2> 와 같다.

[표 2] 댓글 전처리 작업 예시

작업		정제 전	정제 후
삭제	해외 댓글	Guys I love you very much Im from Mexico I love you very much the day you do a concert in Mexico I will be in the front row hahaha I love you	-
		Amazing I am a Deaf teacher in the USA and you guys are so cool	-
		Love from India	-
	타 연예인 관련 댓글	라이즈가 드터 선배가 뒀구나 ㅋㅋ,	-
		아이유도 귀 안좋은댕	-
통제	동의어/유사어	에스보이즈	빅오션
	발음 유사어	추카	축하
	은어	존잘	잘생겼
	축약형	음방	음악방송
삭제	의미없음	케익 맛나보임,	-
		각막염에서 실명위기인데도 렌즈를 꺼야되냐..ㅋ참,	-

최종 정제된 데이터에서 Mecab-IMC 분석기를 이용해 명사와 형용사를 추출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롬(TEXTOM) 전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문장부호와 특수문자 제거, 띄어쓰기 교정, 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형태소 기반 토큰화, 어간 추출을 실시하였다. 품사로 명사와 형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튜브 댓글에는 빅오션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담겨있고, 다양한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내포된 의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총 18,777개의 단어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



다.

## 2. 분석 절차

위와 같은 자연어 전처리 과정 이후, 유튜브 댓글 중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총 18,777개의 데이터는 텍스트(TEXTOM)을 이용하여 단어빈도 분석과 TF-IDF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어빈도 분석과 TF-IDF 분석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인 빅오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주제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어빈도 분석과 TF-IDF 분석을 통해서 빅오션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을 이해한 후, 사회연결망 분석(SNA) 중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을 통해 빅오션에 대한 주제어들이 형성한 군집을 도출하고 해당 군집이 가진 담론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군집이 형성한 담론들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분석 절차 및 활용 프로그램

단계	작업 내용	활용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유튜브 내 빅오션 관련 영상에 게시된 댓글	Excel, Python
데이터 정제	교정, 통제, 제거	Excel, 텍스트(TEXTOM)
데이터 분석	주제어 빈도 분석	텍스트(TEXTOM)
	주제어 TF-IDF 분석	
	주제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Ucinet
	CONCOR 분석	
데이터 시각화	상위 빈도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텍스트(TEXTOM)
	CONCOR 분석 시각화	Netdraw

## IV. 연구결과

### 1. 분석 결과

#### 1) TF-IDF 분석

빅오션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추출한 댓글들을 전처리한 후, 출현한 TF-IDF 수치를 기준으로 상위 50개를 추출하였을 때, 단어를 나열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위 50개 중 ‘응원’, ‘좋’, ‘빅오션’, ‘데뷔’ 등 빅오션의 최근 행보와 그에 대한 응원과 긍정적인 키워드가 빅오션과 관련된 대중의 담론에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TF-IDF 수치 기준 상위 50개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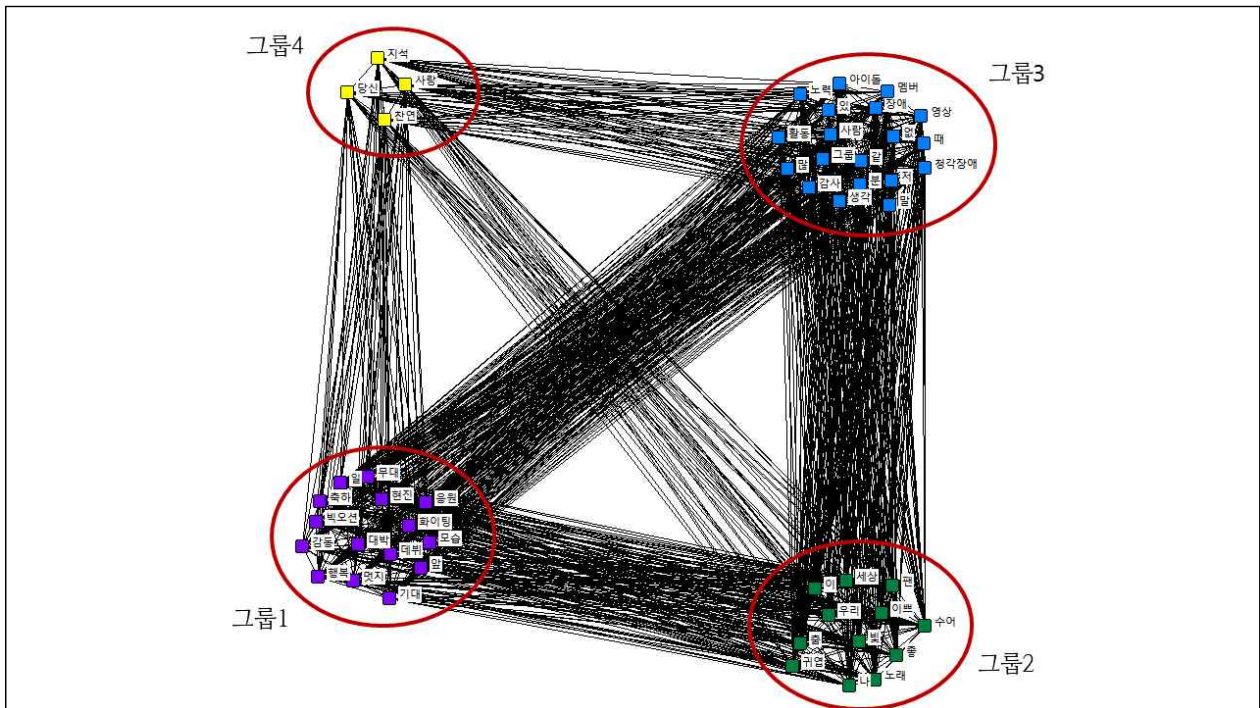
순위	주제어	TF-IDF	순위	주제어	빈도
1	응원	1252	26	있	419
2	좋	1244	27	팬	404
3	빅오션	962	28	무대	398
4	데뷔	919	29	없	391
5	멋지	892	30	저	379
6	노래	857	31	때	378
7	화이팅	815	32	일	368
8	축하	726	33	빛	366
9	같	706	34	생각	344
10	아이돌	685	35	모습	334
11	수어	645	36	당신	333
12	춤	598	37	찬연	332
13	장애	558	38	활동	330
14	현진	541	39	감사	326
15	청각장애	531	40	말	323
16	앞	525	41	우리	317
17	사랑	524	42	지식	304
18	노력	521	43	감동	302
19	나	496	44	대박	273
20	분	494	45	세상	265
21	많	461	46	행복	258
22	그룹	448	47	이쁘	253
23	귀엽	439	48	기대	249
24	영상	420	49	이	244
25	사람	420	50	멤버	242



[그림 1] TF-IDF 분석결과

## 2) CONCOR 분석 및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선별한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CONCOR 분석 및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UCINET을 통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대깊이분할은 2로 설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제어들은 4개의 그룹을 분할되었으며 각각의 그룹은 구조적 등위성에 의해 분류된 것으로 그룹별 주제가 존재하였다. CONCOR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그림 2] CONCOR 분석 결과

### 3) 중심성 분석 결과

#### (1) 그룹1

그룹1의 주제어는 ‘응원’, ‘빅오션’, ‘데뷔’, ‘멋지(다)’, ‘화이팅’, ‘축하’, ‘현진’, ‘앞’, ‘무대’, ‘일’, ‘모습’, ‘감동’, ‘대박’, ‘행복’, ‘기대’로 구성된다. 그룹1의 주요 주제어는 ‘빅오션’, ‘데뷔’, ‘멋지(다)’이며 이를 통해 아이돌 그룹 ‘빅오션’의 데뷔와 그에 대한 대중의 응원과 긍정적인 기대를 내포하는 담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그룹1의 주제는 빅오션 데뷔에 대한 축하와 응원이다.

[표 5] 그룹1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TF-IDF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응원	714	1252	1	1	0.00134	0.148
빅오션	412	962	1	1	0.00134	0.148
데뷔	375	919	1	1	0.00134	0.148
멋지	370	892	0.98	0.98	0.00108	0.145
화이팅	314	815	0.98	0.98	0.00126	0.145
축하	261	726	0.98	0.98	0.00116	0.145
현진	169	558	0.98	0.98	0.00108	0.145
앞	163	531	0.98	0.98	0.00113	0.145
무대	107	391	1	1	0.00134	0.148
일	96	368	0.918	0.925	0.0006	0.137
모습	85	333	0.918	0.925	0.00053	0.138
감동	75	302	0.878	0.891	0.00059	0.131
대박	66	273	0.755	0.803	0.00031	0.114
행복	61	258	0.898	0.907	0.00053	0.134
기대	59	249	0.98	0.98	0.00119	0.145

#### (2) 그룹2

그룹2의 주제어는 ‘좋(다)’, ‘노래’, ‘수어’, ‘춤’, ‘나’, ‘귀엽(다)’, ‘팬’, ‘빛’, ‘우리’, ‘세상’, ‘이쁘(다)’, ‘이’로 구성된다. 그룹2의 주요 주제어들은 ‘좋(다)’, ‘노래’ 등으로 주로 빅오션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아이돌로서 빅오션이 가지는 외모적인 특성에 대한 주제어들 역시 존재한다. 즉, 그룹2는 빅오션의 아이돌로서의 활동에 대한 담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그룹2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TF-IDF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좋	625	1244	1	1	0.00134	0.148
노래	321	857	1	1	0.00134	0.148
수어	198	645	1	1	0.00134	0.148
춤	194	598	1	1	0.00134	0.148
나	143	496	1	1	0.00134	0.148
귀엽	126	439	0.918	0.925	0.00115	0.136
팬	109	404	0.98	0.98	0.00119	0.145
빛	96	366	0.959	0.961	0.00086	0.143
우리	79	323	0.98	0.98	0.00104	0.145
세상	62	265	0.959	0.961	0.00105	0.142
이쁘	60	253	0.816	0.845	0.00037	0.123
이	57	244	0.837	0.86	0.00044	0.126

(3) 그룹3

그룹3의 주제어는 ‘청각장애’, ‘노력’, ‘있(다)’, ‘때’, ‘같(다)’, ‘아이돌’, ‘장애’, ‘많(다)’, ‘저’, ‘감사’, ‘분’, ‘생각’, ‘말’, ‘영상’, ‘그룹’, ‘사람’, ‘없(다)’, ‘활동’, ‘멤버’로 구성된다. 앞서 실시한 TF-IDF 분석, 중심성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그룹3에서의 주요 주제어는 ‘청각장애’, ‘노력’, ‘있(다)’이다.

[표 7] 그룹3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TF-IDF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청각장애	160	524	1	1	0.00134	0.148
노력	158	521	1	1	0.00134	0.148
있	115	420	1	1	0.00134	0.148
때	99	379	0.98	0.98	0.00104	0.145
같	241	706	0.98	0.98	0.00108	0.145
아이돌	229	685	0.98	0.98	0.00108	0.145
장애	164	541	0.98	0.98	0.00108	0.145
많	131	461	0.98	0.98	0.00108	0.145
저	96	378	0.98	0.98	0.00113	0.145
감사	83	330	0.98	0.98	0.00116	0.145
분	142	494	0.98	0.98	0.00124	0.145
생각	86	344	0.98	0.98	0.00123	0.145
말	80	326	0.959	0.961	0.00091	0.143
영상	115	420	0.959	0.961	0.00095	0.143
그룹	127	448	0.959	0.961	0.00103	0.142
사람	112	419	0.959	0.961	0.00103	0.142
없	107	398	0.959	0.961	0.00105	0.142
활동	85	332	0.918	0.925	0.00053	0.138
멤버	56	242	0.857	0.875	0.00064	0.128

(4) 그룹4

그룹4의 주제어는 ‘사랑’, ‘찬연’, ‘당신’, ‘지식’로 구성된다. 그룹4는 빅오션 멤버의 이름인 ‘찬연’, ‘지식’이 주제로 제시되었으며 ‘당신’, ‘사랑’ 주제어가 존재한다. 즉, 빅오션 각각의 멤버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대한 담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그룹4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TF-IDF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사랑	162	525	0.98	0.98	0.00121	0.145
찬연	85	334	0.898	0.907	0.0011	0.133
당신	78	317	0.776	0.817	0.00043	0.116
지식	76	304	0.816	0.845	0.00043	0.122

(5) 전체 분석 결과

그룹1, 그룹2, 그룹3은 노드 간 밀집도가 높은 반면, 그룹4의 노드들과 다른 그룹의 노드 간의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룹4의 주제어들은 다른 담론들과는 독립적인 담론이며, 멤버 중 데뷔

이전에 장애 유튜버로 활동해 왔던 현진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과 찬연이 독립적인 담론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룹1, 그룹2, 그룹3은 상호 간의 링크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빅오션이 아이돌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 모두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본 연구자들은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유튜브의 국내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했다. 단어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빅오션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담론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된 담론의 주제어로 '응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TF-IDF 분석에서 제시된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현재 빅오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과 빅오션의 행보, 대중이 빅오션에게 가지는 기대감과 빅오션의 사회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담론은 '응원'이다. 대중은 빅오션이 '데뷔'를 함을 인지하며 여타 아이돌과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그들의 '데뷔'를 '응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데뷔를 위해 쏟았을 '노력'에 대한 담론과 빅오션의 특성인 '청각장애' 및 '장애' 그리고 빅오션의 다른 아이돌과의 차별점인 '수어' 안무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대'와 '청각장애', '장애' 주제어가 상위 주제어로 출현했다는 점에서, 빅오션이 장애가 있기에 더욱 독특한 빅오션만의 매력을 살린 청각장애인 아이돌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심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빅오션의 사회적 영향력에도 관련이 있다.

즉, 대중은 빅오션이 아이돌로서의 정체성과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지 여론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류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다른 그룹들과의 연결성이 적고 중심성이 낮은 주제어로 구성된 그룹4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룹1은 빅오션의 데뷔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담론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돌은 장기간의 고된 연습생 시절을 거쳐 데뷔한다. 빅오션 또한 약 2년간의 긴 연습생 기간을 거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중은 여타 아이돌과 다름없이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행복', '앞', '기대'는 대중이 빅오션의 등장에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며, 미래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룹2는 빅오션의 아이돌로서의 활동에 대한 담론이었다. '노래', '춤', '빛'은 빅오션의 음원과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빛'은 빅오션의 첫 음원 제목으로 H.O.T 그룹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대중은 노래의 제목처럼 빅오션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했다.

더불어 '귀엽(다)', '이쁘(다)'는 빅오션 멤버들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낸다. 대중은 멤버들의 얼굴, 웃는 모습 등 시각적인 요소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미적 평가에는 빅오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의 특성이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신체장애인의 몸은 결함의 이미지로 규정된다(Brown, Sheidlower, 2021). 장애인의 몸은 특정 부분이 불완전하거나, 휠체어 등 보조기기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난다. 이는 외모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연예계에서 빅오션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된다.

그룹3에서는 빅오션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가장 다양한 양상의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있(다)', '없(다)'의 높은 빈도수는 타 아이돌과 달리 빅오션 멤버들에게만 존재하는 장애가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에서 빅오션은 '장애가 있는', 혹은 '장애가 있어도 걱정할 것 없는' 아이돌로 수식되었다.

먼저 '노력', '많(다)', '말'로 대표되는 담론은 청각장애를 극복한 빅오션 멤버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다. 이 담론은 청력 손상의 많은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를 이겨낸 멤버들의 의지를 높이 산다. 예를 들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 말을 잘 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식이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인식하며 극복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의료적 모델과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담론은 장애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장애인도 한계를 딛고 비장애인처럼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2).

다음으로 '감사', '생각', '같(다)'으로 대표되는 담론은 빅오션이 미디어의 장애 재현과 K-pop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은 등장만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어 대중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대중은 빅오션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아이돌로서 대중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했다. 이처럼 대중은 빅오션이 생산하는 장애 문화를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장애 이미지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는 장애의 가치를 긍정하는 긍정적 모델과 관련성이 높다. 해당 모델은 장애 문화를 통한 장애인권 형성에 주목하며, 장애인을 문화 향유의 객체보다 주체로 여기기를 권고한다(이종정, 2018).

종합하면, 빅오션의 장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화 다양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 문화가 '성공 신화' 담론 또는 '다름의 공존' 담론으로 다뤄진다는 이문오(20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각 그룹 간의 연결성을 통해 그룹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룹1과 그룹3 간 연결성은 빅오션의 청각장애와 대중이 빅오션을 응원하는 담론 사이에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장애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빅오션의 행보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나 그 주변인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데뷔라는 꿈을 실현한 빅오션이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했다. 긍정적 모델의 관점에서 빅오션은 장애인이 스스로 내면화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을 깨고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을 심어주었다. 신체적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자부심(pride)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룹2와 그룹3 간 연결성은 대중이 청각장애 문화를 반영한 빅오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표적 사례로 수어 안무가 있다. 수어는 통상 농인끼리 사용하는 소통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빅오션 멤버들이 수어를 춤에 녹임으로써 노래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더불어 비장애인은 시각 언어인 수어의 예술적 매력을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어 안무에서 파생되는 효과는 빅오션에 대한 팬층 확보에 기여했다(김주현, 선아, 2024). 수어를 사용하는 팬 문화\*를 설명하거나 수어 관련 문화의

확산을 원하는 여론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러한 반응은 장애 문화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그룹1과 그룹2 간 연결성은 대중이 빅오션을 응원하는 담론과 아이돌로서의 역량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빅오션의 춤과 노래에 대해 ‘대박’, ‘멋지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것을 보아, 빅오션은 K-POP 시장에서 신예로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연예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기능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빅오션에 대한 지지적 여론을 보아 장애연예인의 상품 가치가 낮다는 통념은 고정관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장애 연예인이 생산하는 문화는 다른 연예인과의 차별성이 되어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 소비자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었다.

## 2.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의 장애아이돌 그룹에 대한 여론을 다양한 장애 관련 이론을 적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중의 장애인관은 크게 의료적 모델과 긍정적 모델로 구분되었다. 기존에 연예인의 신체장애는 대중에게 결함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여전히 의료적 모델에 따른 반응이 불가피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빅오션의 장애로 인한 손상보다 수어 안무 등 장애 문화의 가치에 주목하는 반응 또한 다수 존재했다. 이는 장애아이돌이 연예계에서 다양성을 증진하여 장애당사자로서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에 ‘장애인을 위해서(for)’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가 ‘장애인에 의해서(by)’ 시행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 인식을 통해 연예계 내 장애아이돌의 상품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배경을 통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기능적으로 부족하다는 등의 인식을 확인했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아이돌 산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산업에서 장애인이 하나의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여론과 세부 담론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대중문화 산업과 미디어는 장애를 하나의 다양성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문화 산업과 미디어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를 하나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튜브 영상에 게시된 국내 댓글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빅오션에 대한 여론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집한 영상이 빅오션에 대해 우호적 성향을 가진 내용이었기에,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 내용 역시 영상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집한 유튜브 영상의 종류 중 자체 제작 콘텐츠의 비율이 80%로 편향되었다. 자체 제작 콘텐츠는 모두 빅오션에 대해 우호적인 영상들이었다.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댓글은 영상에 대한 감상평이므로 영상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

---

\* 박수나 환호를 통해 응원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어에서 박수를 의미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을 응원하는 팬 문화를 의미함.



간 더욱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수집해 대중의 반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어 중요도 순으로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분석하여 빅오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을 파악했으나, 소수의 담론은 불가피하게 경시되었다. 이는 빅오션에 대한 여론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소수의 담론을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온라인상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디어의 장애 프레임이 있다(Haller, Zhang, 2010). 대중은 미디어가 장애를 재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장애인관을 형성하며 장애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댓글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 대중의 빅오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별님 (2022).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참여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2), 219-229.
- 김원경 (2014).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보건사회연구, 344(2): 219-246.
- 김일환 (2019). 인문학을 위한 신문 빅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어문론집, 78, 41-62, 10.15565/jll.2019.06.78.41
- 김주현, 선아. (2024. 07. 23). [세상을 여는 틈 / 인터뷰 공간 짬]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돌 그룹, 더 넓은 세상을 듣는 '빅오션'. 한국장애인재단. <https://blog.naver.com/hubherb0420/223522470913>.
- 김진희, 김용득 (2023). 장애 당사자 인식은 의료(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가?: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 변수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 203-225.
- 남지은 (2024. 04. 25). 청각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희망 메신저 아이돌'빅오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8094.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8094.html).
- 박민석 (2021. 09. 27). 블랙핑크, BTS 등 아이돌,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관심..팬들에게도 '확산'. DealSite 경제TV. <https://news.dealsit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0>.
- 송민호 (2018). 트위터를 활용한 저출산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연결망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송영진 (2011). SNA 분석방법의 이론과 응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신성일, 이은순 (2023). 충주시 유튜브 콘텐츠 댓글을 통해 본 지자체 행정PR의 함의: 텍스트마이닝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2), 277-287, 10.5392/JKCA.2023.23.12.277.
- 양혜승 (2023). 장애인을 향한 시선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한국방송학보, 37(6), 197-241, 10.22876/kab.2023.37.6.006.
- 오선효 (2022).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단-목적사슬(MEC) 이론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의 통합모델을 적용한 국내 골퍼들의 가치추구체계 비교,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오승현, 후보은, 김동호, 최훈동, 황성수 (2017-02-08).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신호 감지 어플리케이션.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 강원.
- 유은순, 최건희, 김승훈 (2015). TF-IDF와 소셜 텍스트의 구조를 이용한 주제어 추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 121-129
- 이마루 (2023.08.20). 아이돌 자권이 대체 뭘데? 자권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ELLE. <https://www.elle.co.kr/article/79917>
- 이문오 (2023). 일간지 담론분석을 통해 본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성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451-462, 10.5392/JKCA.2023.23.08.451
- 이종정 (2018). 장애모델의 발전사를 통해 살펴 본 긍정적 장애모델의 특성과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41(41), 165-194.

- 이종화, 이문봉, 김종원 (2019). TF-IDF를 활용한 한글 자연어 처리 연구. 情報시스템研究, 28.3. 105-121.
- 이진원 (2022.12.6.). [포브스] [2022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앱 20] 앱 순위로 전망하는 2023. 뉴 트렌드, 중앙일보.
- 이진호 (2023. 10. 30). [202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타트업 CEO] 장애인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스타트업. 파스타엔터테인먼트 한경OB&JOY.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10309312d>
- 임옥희(2019). 네트워크 텍스트분석 및 내용분석을 통한 주요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장애인 연구-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종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지혜. 2011.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5:57-76.
- 조지윤. 2024. 07. 12. 차해리 파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애인도 아이돌 할 수 있어요” WOMAN DONGA.<https://woman.donga.com/culture/article/all/12/5027848/1>.
- 조한진 (2006). 장애의 이론 모델과 실천 모델의 전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특수교육학연구>, 40 권 4호, 233-256.
- 최나래, 반영운, 정현근, 주경선, 손철희 (2015).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통한 한국 EIP 산업공생 네트워크 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최재현, 이숙정 (2022). 유튜브 영상 속 장애인 재현에 대한 내용분석 : 생산자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6), 203-240.
- 최정아 (2023). 정보화사업 성과와 이해관계자에 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2), 157-183, 10.23036kapae.2023.33.2.6.
- 한경훈, 서영수, 박근병 (2015).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지하철역 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철도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2015, 34-40.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 01. 31.). 장애예술인 인터뷰, 만능엔터테이너 김리후.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20>.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2). 『장애인 방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홍향희 (2024). 국민신문고 저출산 민원 게시글에 나타난 국민의 영유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석사학위 논문, 국립부경대학교.
- Ellis, K. (2010). A purposeful Rebuilding: YouTube, Representation, Accessibility and the Socio-Political Space of Disability, Telecommunications Journal of Australia vol. 60, pp. 21.1-21.12.
- Guan Jiayu. (2024). K-pop 챌린지 영상 이용자의 참여동기가 참여 정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 Haller, B. and L.Zhang (2010). ‘Highlights of 2010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bout Media Representations’, Media and Disability Resources, 16 September. Available at

<http://media-and->

Harris, J (1993). Is gene therapy a form of eugenics?. *Bioethics*, 7, 178-187.

Oliver, M (1998). Theories in Health Care and Research: Theories of Disability in Health Practice and Research. *British Medical Journal*, 317, 1446-1449.

Oliver, M. (1983).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Basingstoke, UK: Macmillan.

Robin Brown, Scott Sheidlower (2021). *Seeking to Understand A Journey into Disability Studies and Libraries*. Library Juice Press.

Siersdorfer, S., Chelaru, S., Nejd, W., & San Pedro, J. (2010, April). How useful are your comments? Analyzing and predicting YouTube comments and comment ratings. Paper presented at the 19th international.

Smart, J. F. (2004) Models of disability: The juxtaposition of biology and social construction. In T. Riggard & D. Maki (Eds.), *Handbook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pp. 25-49). New York, NY: Springer.

## Abstract

# Public perception of deaf idol ‘Big-O!cean’ : Focusing on Youtube comments

Park Chaewon\* Kim Harin\*\* Han Ji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ominant public opinion surrounding the Big-Ocean and detailed discourse about it. In the K-pop market, the world’s first deaf idol ‘Big-Ocean’ debuted on April 20, 2024. Comments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the public’s response to this Big-Ocean. Youtube was selected as a medium among social media. TF-IDF Analysis and Social-Network Analysis(SNA) were conducted among text mining techniques based on the extracted comments.

As a result, the public’s dominant opinion about Big-Ocean was formed positively around the main word ‘cheering’. Moreover, keywords related to disability such as ‘hearing impairment’ and ‘disability’ and keywords related to idols were derived. It was confirmed that Big-Ocean is currently an idol with a hearing impairment, producing a culture reflecting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a discourse that recognizes its identity as an ido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prove the effect of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of Big-Ocean activities and the value of disabled idols as cultural producers.

**Keywords : Deaf, Disability–Culture, Idol, Youtube, Social–Network Analysis(SNA), Public–Awareness**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부 록

기존 단어	수정 단어	기존 단어	수정 단어
에스보이즈, S-BOYZ, S-BOYS, 빅오둥이, big olcean, 비오션, 빅오션	빅오션	썸넬	썸네일
릴	릴스	남준, 김남준	RM
츠	쇼츠	방탄, 방탄소년단	BTS
숏츠	쇼츠	케이	케이팝
파이팅, 하이팅, 핫팅, 파팅, 화잇티이이이이이이이잉, 화이티이이이	화이팅	대뷔	데뷔
으싸, 으씬	으싸	지나	존나
음방, 음악 프로	음악방송	개잘생	잘생겼
챌리지, 챌린지	챌린지	개솔	솔
이찬연, 차노님	찬연	퀄	퀄리티
박현진	현진	개이빠, 이쁜, 예쁘, 예븐, 예빠	이쁘
김지석	지석	개부럽	부럽
가운데	가운데	개웃기	웃기
청각장애, 청각 장애	청각장애	개오바	오바
달생기, 찰생겼, 잘생겼, 존잘, 개존잘	잘생기	개슬퍼	슬퍼
머야	뭐야	와꾸	얼굴
럽119, 러브 119	Love119	비주얼	외모
ㄱㅇㅇ, 귀여, 귀염, 귀염둥이, 귀염둥이, 개귀여, 개기여워, 짱출귀, 짱기요미, 기여우, 기여미, 기엽	귀엽	개대단	대단
놀르	누르	인공지능, ai, Ai	AI
우어ㅏ	우와	헤메스, 해매코	헤메코
츙크, 추카	축하	에이알, ar	AR
첫 걸음	첫걸음	갠적으로	개인적으로
수 어, 수화	수어	남돌	남자아이돌
살벌	살벌	TikTok	틱톡
멋있, 개멋, 개 멋있어, 멋진, 멋진	멋지	바이럴	바이럴 마케팅
댄스, 안무	춤	엔터,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의상, 코디	착장	에초티, H.O.T	H.O.T.
그잡채	그 자체	유투버	유튜버
미쳤, 폼미쳤	미쳤	드덕	드디어
비디오	영상	순둥, 순딩, 순수	순하
인스타	인스타그램	손백	박수
진짜	진짜	설렘	설레
셋미프리	set me free	따스, 따수, 따습	따뜻
에스엠, sm	SM	유키즈	유퀴즈
컨텐츠	콘텐츠	애드라	애들아
리듬감, 박자 감각	박자감	썸넬	썸네일
유튜브	유튜브	눔	넘
받고가욐	받고 가요	주셔셔요	주셔요
있은	있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동 연결망 응집구조 분석 연구

[연구 4팀]

이원배(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2학년)

백승은(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

이에건(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

---

##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동 연결망 응집구조 분석 연구

이예건\* 이원배\*\* 백승은\*\*\*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연결망(network)을 구성하고 여가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분석 대상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 3,431명과 낮은 청소년 241명의 여가 활동 연결망(leisure activities network)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의 지표로서 밀도, 포괄성, 평균 거리, 고립 노드와 연결 중심성, 응집구조 분석을 NetMiner 4.0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SPSS ver.25.0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평일과 주말 여가 활동 연결망의 차이가 나타났다. 중심성 지표 분석 결과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활동 여가를 대부분 많이 수행하며, 레크레이션 활동 여가 중에서 개인적인 취미는 더 적게 수행하며, 스포츠 참여 활동 여가는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구조 분석 결과 청소년의 여가 활동 간 응집구조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 활동 수행의 차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여가 활동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여가 활동 연결망, 응집구조 분석, 주관적 웰빙, 청소년

---

\*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I. 서론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 안녕감과 같이 정서적 안녕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이며, 심리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Szalai, 1980). 특히 정신건강은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주관적 웰빙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건강이 매우 위기가 될 수 있다(Song, 2022). 따라서 청소년기에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증재가 조속히 제공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최근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Vancampfort et al., 2019).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 관계의 변화, 학업 진로 고민, 학교폭력과 유해환경 증가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Trainor et al.,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의 World mental health report 자료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청소년(10-19y)의 14%가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WHO, 2022).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정신 질환이 성인기의 4분의 3이 재발병하였다고 보고되었다(Kessler, 200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적절한 여가 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Kim et al., 2016).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가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tatistics Korea, 2023).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15~19세의 청소년들이 건강을 위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6년 1.2%, 2019년 1.2%, 2022년 3.1%로 보고되었다(Statistics Korea, 2023).

청소년 여가 활동은 더 나은 삶의 질과 학업 성취, 심리적 행복감 그리고 명확한 자아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 새로운 기술의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새로운 정체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Trainor et al., 2010). 또한, 여가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스트레스 감소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Vancampfort et al., 2019).

청소년의 여가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여가 참여 빈도에 따른 활동 참여 유형과 유형별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행복감의 차이를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가 활동의 참여 경향에 따라 각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행복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Park & Ha, 2022)와 아동 및 청소년의 놀이와 여가 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55개의 활동 중 평균 24.83개의 활동에 참여하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친구들과 놀기, 컴퓨터 비디오 게임, 전화통화하기, 집에서 TV 및 영화보기, 음악 감상 순이라고 보고된 연구 등의 연구가 있다(Jo et al., 2022; Park & Ha, 2022; Chang & Ryu, 2010).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단면적 연구 설계와 양적 지표를 빈도 분석과 같은 기술적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성 파악과 전체적인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Oh, Park, & Jeon, 2022).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이라고 하는 관계들을 포함하는 모든 개체의 연결 되어진 관계성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이다(Kim,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항목을 연결망(network)으로 구성하고 여가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가 활동의 수행 차이와 특성을 예측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관적 웰빙

청소년기는 정서발달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 정서의 발달과 부정 정서를 완화하는 노력은 주관적 웰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렸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핵심 내용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모두 포함하였다.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되며 주관적이라는 것과 두 번째, 주관적 웰빙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주관적 웰빙은 긍정적 정서는 증진 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UN(2023)에서 발표한 '2023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서 5.951로 조사국가 157개 중에서 57위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된 이후 우리나라의 순위는 40-60위 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21년 5.845점으로 149개 국가 중 62위, 2022년은 5.935점으로 146개 국가 중 59위로 근소한 상승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관적 행복에 대한 척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wan, 2023).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정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관적 웰빙이라고 할 수 있다(Rowan, 2023).

### 2. 청소년 정신건강의 현황

염유식 외(2021)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2개의 국가 중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은 '건강', '삶의 만족', '학교 생활',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에 대한 청소년의 평소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된 결과이다.

청소년은 전반적 발달과정에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정신과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질환 병명에서도 서로 차이를 나타낸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19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인 28.6%, 청소년 39.9%로 나타났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성인 10.5%, 청소년 25.2%로 청소년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성인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은 1.2%로 증가했고,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도 늘어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23).

국제적으로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자살 데이터를 국가별 또는 연령별로 다양하게 추산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WHO가 발표한 Suicide Worldwide에서 2019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703,000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굉장히 심각한 사망 원인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더 이상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WHO, 2024)

그러므로 자살 예방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 및 연구방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조사 및 자료에서 정신건강 위험 청소년의 문제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3. 청소년의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Neulinger가 1981년에 제시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노동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에 스스로 의미있는 시간과 활동을 사용하는 종합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가 활동 시간이 개인의 자기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고 제시하였다. Neulinger의 개념처럼 '여가'는 '종합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중점을 두어 정의될 수 있다. 여가의 개념은 크게 시간, 활동, 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간 관점에서 정의한 여가 개념은 노동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개인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Neulinger, 1981)

두 번째, 활동 측면에서의 여가의 개념은 사회학자 Dumazedier가 1987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가정과 일터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무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교양이나 지식을 쌓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개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Dumazedier, 1987).

세 번째, 의식 개념의 여가 활동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Godbey(1981)는 여가란 한 개인이 속한 환경 및 문화가 그 개인에게 행사하는 강제적인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는 자유이며, 개인은 그 자유로운 인생 동안 스스로 매우 즐겁고 가치가 있으며 본인이 매우 선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여가를 정의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르

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나 책임 및 의무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스스로 임의로 선택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여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 4. 응집구조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관계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Lee, 2013). 과거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탈경계화와 동시다발적으로 복잡계 사회(complex system)로 전환되었으며, 정보화와 세계화를 통해 개인의 속성(attribute)을 이용하여 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관계성(relationship)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2013).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사용하는 지표 중에서 응집구조 분석은 전체 네트워크를 분할된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가 어떠한 하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하부 집단 내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법이다(Lee & Lee, 2012).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각각의 군집들은 세부적인 연구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Lee & Lee, 2012).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노드들이 전체 네트워크 또는 그 하위에 존재하는 하부 그룹을 지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체 네트워크가 몇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룹마다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이다(Ryu, 2018).

따라서 하부 그룹을 어떤 특징을 기반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나누어진 하부 그룹 간의 차이점은 어떠한지, 또한 하부 그룹들 중에 무엇이 영향력이나 권력 면에서 더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와 같은 특징들을 응집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Park, 202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응집구조 분석 방법 중에서 모듈 방식을 이용한 커뮤니티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듈'을 분리의 기준으로서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들의 조합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커뮤니티를 좀 더 큰 규모로 합쳐 나가면서 각 과정마다 모듈 값(modularity)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선택해 하위 그룹으로 만드는 기법이다(Ryu, 2018).

###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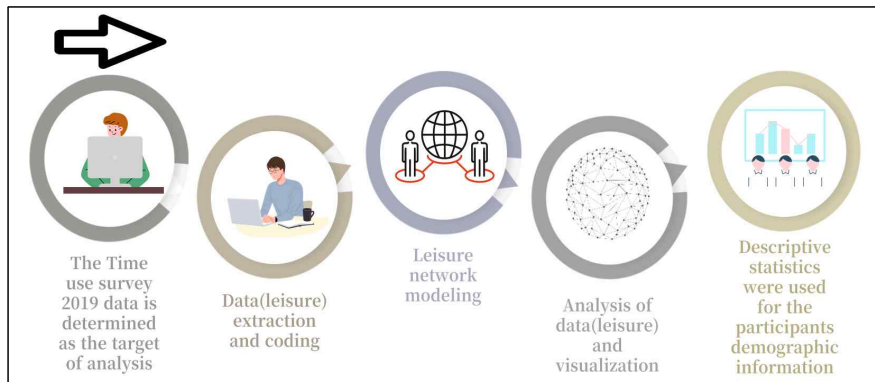
####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연결망 응집구조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 간에 비교하기 위하여 만 10세부터 19세까지의 전체 청소년과 1개 시점(2019년)에 걸쳐 측정한 전국민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의 49개의 여가 활동, 1개의 기분 상태, 1개의 건강 상태 항목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하여 Andrews와 Withey(1976)의 한가지 문항으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한 방법을 참조하여 리커트 7점 척도인 주관적 웰빙 문항의 기분 상태, 리커트 5점 척도의 건강 상태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분류하여 선정하였는데, 기분 상태 항목 5~7점, 건강 상태 항목 3~5점일 경우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최종 표본의 크기는 만 1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년 전체 3,672명(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 3,431명,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 241명)이다.

## 2.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연결망을 구성하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수집 후에 여가 활동 수행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여가 활동 연결망의 관계를 유사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가 직접 Excel(Microsoft, Co., USA)에 여가 활동 항목을 기입한 후 NetMiner(Cyram, Co., Kore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는 단계로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여가 활동 항목이 포함된 2-mode network를 중복되고 불필요한 여가 활동 항목을 제거한 상태의 1-mode network로 변환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델링(network model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모델링 과정이 끝난 후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분포 특성과 중심성 지표 그리고 응집구조 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림1] Study process

[표1] Classification of network analysis index

구분	분석방법	지표		내용
네트워크 특성 분석	네트워크 수준	밀도 (density)		총 노드에서 실제로 맺어진 노드의 비율
		포괄성 (inclusiveness)		전체에서 고립된 노드를 제외한 수의 비율
	노드	인접성	평균 거리	임의의 두 노드가 갖는 평균적인 최단 거리를 측정 한 값

	수준	지표	(mean distance)	
		연결성 지표	고립 노드 (isolated nodes)	다른 노드 간에 연결이 없는 독립적인 노드
중심 구조 분석	네트워크/노드수준	중심성 지표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전체 노드의 수와 실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드수의 비율.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경우 다른 노드와 동시에 동반되는 핵심적인 노드임
응집 역할 분석	집단 수준	응집구조		데이터의 연결 관계의 중심성을 이용해 하위 네트워크의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음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항목별로 정리하여 부호화하였으며, NetMiner 4.0 software(Cyram, Co., Kore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가 활동 연결망 구조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은  $p < 0.05$  수준으로 적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표2] Resul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n=3,672)

항목		높은 청소년(n=3,431)	낮은 청소년(n=241)
연령(average)		14.02	15.50
성별	남자	1,800	107
	여자	1,631	134
교육 수준	초등학교	1,154	40
	중학교	1,040	57
	고등학교 이상	1,237	144
여가 만족도	매우 만족	471	21
	만족	743	54
	보통	648	81
	불만족	219	60
	매우 불만족	34	25
건강 상태	매우 좋음	1,149	-
	좋음	2,282	-
	보통	-	153
	나쁨	-	75
	매우 나쁨	-	13

### 2. 네트워크 분포 특성 분석 결과

네트워크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여가 활동 연결망에서 밀도가 높다는 것은 여가 활동 간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 다양한 여가 활동을 많이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평일에는 0.616, 주말에는 0.966으로 높아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여가 활동 간에 연결



이 더 많아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포괄성이 높다는 것은 수행하지 않는 여가 활동 또는 극소수만 수행하는 여가 활동이 더 적어 하루 동안 특정하게 수행하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평일에는 0.939로, 주말에는 1.000로 높게 나타나 여가 활동 간에 고립된 여가 활동이 적어 더 많은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 활동 연결망에서 평균 거리가 높다는 것은 여가 활동 간에 연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루 동안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여가 활동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평일에는 1.300, 주말에는 1.304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24시간 동안 수행하는 여가 활동 간에 연결이 쉽게 될 수 있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여가 활동을 더 많이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Results of Network distribution property**

대상자		밀도	포괄성	평균 거리	고립 노드
평일	높음	0.616	0.939	1.300	3
	낮음	0.275	0.653	1.349	17
주말	높음	0.966	1.000	1.304	0
	낮음	0.270	0.673	1.400	16

### 3. 중심성 분석

#### 1) 연결 중심성

##### (1) 평일

연결 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는 상위 10개의 활동 항목만 정리하였다. 평일에 24시간 동안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가장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1위 수면(0.93), 공동 2위 대면교제, 화상음성교제, 참여활동, 비디오시청(0.91), 공동 6위 모바일게임, 무노동,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0.89)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공동 1위 수면, 대면교제(0.64), 3위 실시간방송시청(0.60) 4위 상품매장쇼핑(0.58), 5위 비디오시청(0.56), 공동 6위 참여활동, 인터넷정보검색, 무노동(0.54) 순으로 나타났다.

**[표4] Results of Weekday Degree centrality**

RANK	높은 청소년	지수	RANK	낮은 청소년	지수
1	수면	0.93	1	수면	0.64
2	대면교제	0.91	1	대면교제	0.64
2	화상음성교제	0.91	3	실시간방송시청	0.60

2	참여활동	0.91	4	상품매장쇼핑	0.58
2	비디오시청	0.91	5	비디오시청	0.56
6	모바일게임	0.89	6	참여활동	0.54
6	무노동	0.89	6	인터넷정보검색	0.54
6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0.89	6	무노동	0.54
9	실시간방송시청	0.87	9	화상음성교제	0.52
9	온라인PC게임	0.87	9	집단게임놀이	0.52

(2) 주말

연결 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는 상위 10개의 활동 항목만 정리하였다. 주말에 24시간 동안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가장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공동 1위 수면, 잠못이름, 반려동물돌보기, 상품매장쇼핑, 대면교제, 화상음성교제, 문자메일교제(1)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1위 수면(0.66), 공동 2위 참여활동, 실시간방송시청(0.60), 4위 비디오시청(0.58), 공동 5위 상품매장쇼핑, 문자메일교제, 책읽기, 모바일게임(0.56) 순으로 나타났다.

[표5] Results of Weekend Degree centrality

RANK	높은 청소년	지수	RANK	낮은 청소년	지수
1	수면	1	1	수면	0.66
1	잠못이름	1	2	참여활동	0.60
1	반려동물돌보기	1	2	실시간방송시청	0.60
1	상품매장쇼핑	1	4	비디오시청	0.58
1	대면교제	1	5	상품매장쇼핑	0.56
1	화상음성교제	1	5	문자메일교제	0.56
1	문자메일교제	1	5	책읽기	0.56
1	사회관계망을 통한 교제	1	5	모바일게임	0.56
1	참여활동	1	9	대면교제	0.54
1	종교집회모임참가	1	9	사회관계망을 통한 교제	0.54

#### 4. 응집구조 분석 결과

##### 1) 평일 여가연결망 응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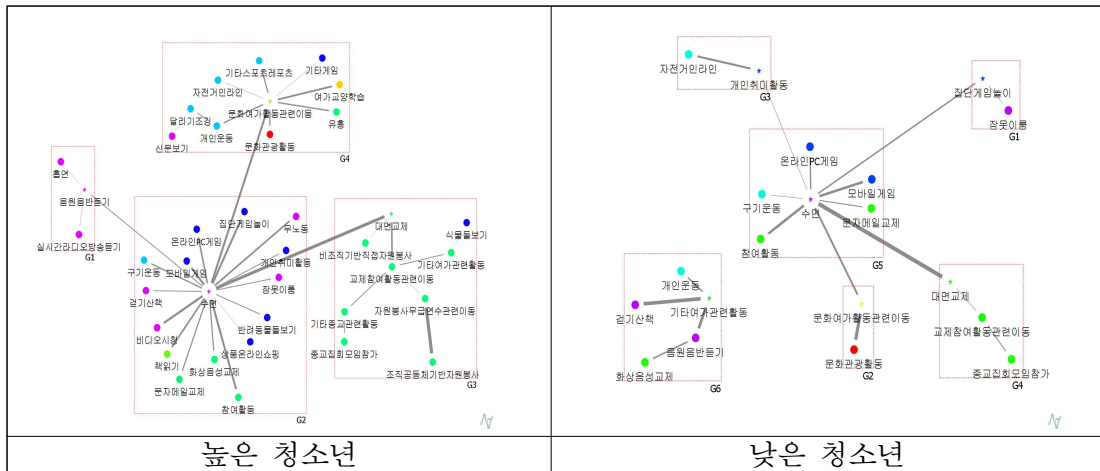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평일 여가 활동 연결망 응집구조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6, Figure 3과 같다. 응집구조 분석의 순서는 1단계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의 활동 항목들을 통계청의 국민여가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6개의 여가 활동으로 나누어 색으로 표현하였다(Figure 2). 2단계 응집그룹 내에서 여가 활동의 연결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넷이 상의하여 3단계에서 응집그룹의 주제명을 Naming 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6] Results of Weekday Cohesion structure analysis

대상자	그룹	주제명	하위 그룹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	G1	음악 관련 휴식적 여가	음원음반듣기, 흡연, 실시간라디오방송듣기
	G2	수면 관련 개인적 여가	수면, 온라인PC게임, 집단게임놀이, 무노동, 개인취미활동, 잠못이룸, 반려동물돌보기, 상품온라인쇼핑, 참여활동, 화상음성교제, 문자메일교제, 책읽기, 비디오시청, 걷기산책, 구기운동, 모바일게임
	G3	교제참여활동 관련 참여적 여가	대면교제, 비조직기반직접자원봉사,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기타여가관련활동, 식물돌보기,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기타종교관련활동, 종교집회모임참가,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자원봉사무급연수관련이동, 조직공동체기반자원봉사
	G4	문화여가활동 관련 활동적 여가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기타스포츠레포츠, 기타게임, 여가교양학습, 유흥, 문화관광활동, 자전거인라인,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개인운동, 달리기조깅, 신문보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	G1	집단 관련 여가	집단게임놀이, 잠못이룸
	G2	문화여가활동 관련 관광 여가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문화관광활동
	G3	개인 관련 취미 여가	자전거인라인, 개인취미활동
	G4	대면교제 관련 참여 여가	대면교제,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종교집회모임참가
	G5	수면 관련 개인 여가	수면, 온라인PC게임, 모바일게임, 문자메일교제, 참여활동, 구기운동
	G6	기타여가 관련 휴식 여가	기타여가관련활동, 개인운동, 걷기산책, 기타여가관련활동, 음원음반듣기, 화상음성교제



[그림2] Leisure activity clas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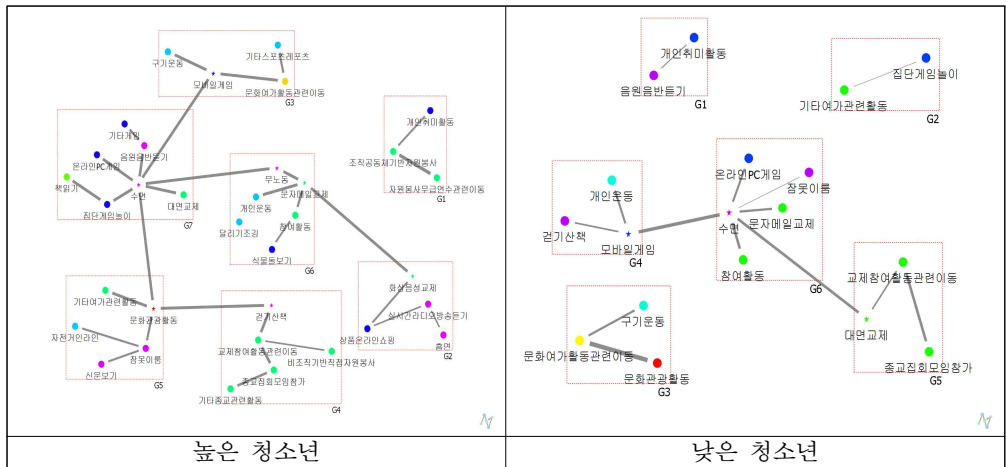
[그림3] Weekday Cohesion structure

2) 주말 여가연결망 응집구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주말 여가연결망 응집구조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7, Figure 4와 같다.

[표7] Results of Weekend Cohesion structure analysis

대상자	그룹	주제명	하위 그룹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	G1	자원봉사 관련 개인 여가	조직공동체기반자원봉사, 개인취미활동, 자원봉사무급연수관련이동
	G2	온라인 관련 휴식 여가	화상음성교제, 상품온라인쇼핑, 상품온라인쇼핑, 실시간라디오방송듣기, 흡연
	G3	문화활동 관련 운동 여가	모바일게임, 구기운동,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기타스포츠레포츠
	G4	교제 관련 사회 활동 여가	걷기산책,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비조직기반직접자원봉사,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종교집회모임참가, 기타종교관련활동
	G5	문화관광 관련 기타 여가	문화관광활동, 기타여가관련활동, 문화관광활동, 잠뭏이름, 자전거인라인, 신문보기
	G6	모바일 관련 개인 여가	문자메일교제, 무노동, 문자메일교제, 개인운동, 달리기조깅, 문자메일교제, 참여활동, 식물돌보기
	G7	수면 관련 놀이 여가	수면, 대면교제, 온라인PC게임, 수면, 음원음반듣기, 기타게임, 수면, 집단게임놀이, 책읽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	G1	음악 관련 개인 취미 여가	음원음반듣기, 개인취미활동
	G2	기타 여가 관련 놀이 여가	기타여가관련활동, 집단게임놀이
	G3	문화활동 관련 활동 여가	문화여가활동관련이동, 구기운동, 문화관광활동
	G4	모바일 관련 신체적 여가	모바일게임, 개인운동, 걷기산책
	G5	교제 관련 사회 활동 여가	대면교제,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종교집회모임참가
	G6	수면 관련 온라인 여가	수면, 온라인PC게임, 잠뭏이름, 문자메일교제, 참여활동



[그림4] Weekend Cohesion structure

### 5. QAP 상관관계 분석 결과

QAP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9과 같다. QAP 상관분석은 순열(Permutation)을 활용한 비모수 검정(non-parametric test)을 통해 두 네트워크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평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과 주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과의 상관 계수 결과는 0.55( $p < 0.01$ ), 평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과는 0.671( $p < 0.01$ ), 주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과는 0.625( $p < 0.01$ )로 통계적으로 여가 활동 연결망이 서로 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Results of QAP correlation analysis

	평일 높은 청소년	주말 높은 청소년	평일 낮은 청소년
주말 높은 청소년	0.55**	-	-
평일 낮은 청소년	0.671**	0.452**	-
주말 낮은 청소년	0.625**	0.452**	0.522**

$p^{**} < 0.05$

## V. 고찰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포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해 여가 활동 간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포 특성 분석 결과에서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 간의 전반적인 특성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평일과 주말 모두 더 다양하고 특정한 여가 활동을 평소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내에서 분포 특성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특성 지표를 사용하여 노드 간 다양한 상호작용과 발생하는 행동 간 역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을수록 평소에 다양하고 많은 여가 활동을 수행한다고 한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Fonseca-Pedrero et al., 2022; Padhy et al., 2015). 이처럼 청소년의 평소 여가 활동 수행 간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관계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서 차후 주관적 웰빙 수준 저하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대한 식별, 예후 및 청소년 여가 정책 전략 수립을 할 때 네트워크 분포 특성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중심성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수행하는 의미있는 여가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및 기타 활동 여가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평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대면교제, 화상음성교제, 참여활동, 교제참여활동관련이동, 문자메일교제, 사회관계망을 통한교제를 많이 수행하며, 낮은 청소년은 수면, 대면교제, 참여활동, 화상음성교제, 사회관계망을 통한교제, 문자메일교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 여가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낮은 청소년이 대부분 낮은 수행도를 나타냈는데, 반면에 대면교제와 사회관계망을 통한교제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여가 활동은 친구 만나기와 같은 교제 활동이라고 한 연구(Kim et al., 2012)와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고 한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Chang & Ryu, 2010) 또한 청소년 여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친구 만나기 항목이 43.6%가 선택하는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16; Leufstadius & Eklund, 2008). 이와 같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낮은 청소년이 사회적 활동에 대해 많이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면교제, 사회관계망을 통한교제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게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는 청소년의 특성상 같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주변의 사회관계망 안에 있는 지인들과 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취미 오락과 같은 레크레이션 활동 여가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비디오시청, 모바일 게임, 실시간방송시청, 온라인PC게임, 인터넷정보검색, 집단게임놀이 순으로 많이 수행하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실시간방송시청, 비디오시청, 인터넷정보검색, 집단게임놀이, 모바일게임, 책읽기, 온라인PC게임 순으로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하기(13.6%), TV 보기(11.4%), 만화책 보기(7.4%)순으로 활동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Kim(2006)의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의 유형 중 컴퓨터 및 인터넷, TV 시청, 비디오 시청 순으로 컴퓨터 비디오 게임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Choi et al., 2009).

또한, 청소년이 친구 만나기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여가 활동은 컴퓨터 및 비디오게임 하기, 집에서 TV 및 영화보기라고 하였는데(Ju et al., 2021; Padhy et al., 2015), 평일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평소 학업으로 인해 비디오 시청, 모바일게임, 온라인PC게임과 같은 여가 활동을 수행하기 제한이 있는 반면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건강 문제로 인해 학업보다는 개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게임과 같은 여가에 더 시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시간방송시청, 인터넷정보검색, 집단계임놀이, 책읽기와 같은 개인적인 취미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판단된다.

스포츠 참여 활동 여가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15위 개인 운동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19위 개인운동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모두 스포츠 참여 활동의 여가 개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개인운동으로 나타난 여가 활동의 순위도 전체 여가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 중심성이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체 활동 여가보다는 정적인 여가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Nam & Lee, 2017). 또한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대상자와 낮은 대상자의 여가 활동 참여를 비교 했을 때,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신체적 활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활동보다 정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Kwon, 2022; Kuykendall, Boemerman, & Zhu, 2018). 이처럼 신체 활동 수행의 어려움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사회적 시선 및 낙인을 두려워하여 남들과 함께해야 하는 신체적 활동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정적인 여가 활동 위주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및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사업과 신체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센터와 같은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말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모두 지수값이 1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여가 활동 간 지수값의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많은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골고루 수행하는 반면에, 낮은 청소년은 특정한 여가 활동만 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에게 여가와 관련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집구조 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주로 휴식적 여가, 개인적 여가, 참여적 여가, 활동적 여가 위주로 평소 수행을 하는 반면에 낮은 청소년은 주로 그룹 관련 여가, 문화 관련 여가, 개인 취미 여가, 참여 여가, 휴식 여가 위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여가 활동 간에 응집구조가 다양한 활동이 함께 묶이며 다양한 여가 활동이 골고루 묶이는 양상으로 관찰되며, 낮은 청소년은 여가 활동의 개수도 적으며 그룹 간 연결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응집구조가 관찰된다. 이는 네트워크 분포 특성 분석과 중심성 분석 결과와 함께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여가 활동 수행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분할시켜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하는 하위 네트워크의 특징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며 어떠한 노드(node)간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한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Lee & Lee, 2012).

이처럼 본 연구의 응집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여가 활동 수행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여가 활동 연결망(leisure network)을 구성하고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관찰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청소년 여가 활동 중재를 적용할 때 전문가들이 참조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여가 정책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연결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성장과 변화, 자아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어 동기 부족으로 인해 여가 활동의 수행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Padhy et al., 2015). 이처럼 주관적 웰빙과 여가 활동 수행 간 중요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연결망을 구성한 후에 24시간 동안의 여가 활동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 활동 수행의 차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여가 활동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아 남·녀 간 차이나 초·중·고등학생 간 차이 등을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 간 대상자 수의 차이로 인해 일반화 할 수 없었던 점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양하게 나누어 비교 분석해야 되며 대상자 수를 동일하게 진행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9년 데이터 뿐만 아닌 다양한 시간대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청소년의 여가 활동 변화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Ⅵ. 결론

본 연구에서 가지는 학문적 의의는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데이터 간 관계성을 알아보는 방법인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24시간 여가 활동을 여가 활동 연결망(leisure network)으로 구성하여 의미있고 목적있는 여가 활동에 대해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청소년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청소년 간 여가 활동 연결망 비교를 통해 일반적인 통계적 분석에서 알아낼 수 없었던 다면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여가 활동 간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일상에서 활동 빈도보다 더 중요한 여가 활동을 찾아내어 주관적 웰빙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활동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제시 및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웰빙 수준 저하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 여가 정책 수립 및 법안 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청소년 분야에서 여가 활동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염유식, 김경미, & 이미란. (2016).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2014: 초등학생.
- 염유식. (2021). "한국 고령자의 사회연결망과 건강."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8-146.
- Analysis of cohesion structure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ies network to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 Andrews, F. M., & Crandall, R. (1976). The validity of measures of self-reporte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3, 1-19.
- Chang, K. Y., & Ryu, A. N. (2010). Study of play and leisure participation(out of school activities)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8(3), 37-5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Dumazedier, J. (198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 The Free Press.
- Fonseca-Pedrero, E., Al-Halabí, S., Pérez-Albéniz, A., & Debbané, M. (202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suicidal behaviour: A network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3), 1784.
- Godbey, G. (1981). *Leisure in your life*. CBS College Publishing.
- Jeon, B. J., Park, H. G., & Oh, J. S. (2022). A comparative study of the 24-hour occupational network of younger and older elderl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30(4), 49-63.
- Jo, E. M., Yoo, E. Y., Park, J. H., Park, H. Y., Lee, J. Y., & Lee, J. S. (2022). Effectiveness of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s for preventing addiction to smartphone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0(2), 17-30.
- Ju, Y. M., Lee, H. S., Jeong, E. H., & Kim, J. H. (2021). Effectiveness of home modification occupational therapy for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with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9(3), 155-168.
- Kessler R, Berglund P, Demler O, Jin R., & Merikangas K.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 Gen Psychiatry*. 62(6):593-602. doi:10.1001/archpsyc.62.6.593.
- Kim, H. J., Jung, M. K., Jang, D. E., Song, J. H., Seo, J. H., Lee, S. E., & Jeon, B. J. (2012). The effects of using a time management application on the QOL for people with schizophrenia: A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3), 105-118.

- Kim, Y. H. (2011). Social network analysis 3rd edition. Seoul: Parkyoungsa.
- Kim, Y. J., Yoo, S. H., Lee, M. H., & Kim, J. H. (2016). A Stud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V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uykendall, L., Boemerman, L., & Zhu, Z. (2018). The importance of leisure for subjective well-being.
- Kwon, H. J., Jang, J. S. & Lee, N. R. (2022). Comparative analysis study of leisure activities between disabled person and non-disabled person: Based on 2019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14(1), 11-22.
- Lee, D. I., & Lee, H. J. (2012). Understanding the semantic network structure in the consumer group interview with the sub network analysis.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23(2), 249-272.
- Lee, S. S. (2013). Analy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ies of research networks and research performance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405-428.
- Lim, J. H., Yoo, D. S., Yu S. J., Lee, J. H., & Kim, H. (2024).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based on the model of human occupation on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and time use of community-dwel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2(2), 29-3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vailable of <https://knhanes.kdca.go.kr/knhanes/main.do>.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available of <https://mhs.ncmh.go.kr/eng/>
- Nam, H. J., & Lee, H. J. (2017). Correlates of th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isabled peopl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1(1), 121-140.
- Neulinger, J.(1981). To leisure :An instruction. Boston : Allyn Bacon.
- Padhy, M., Valli, S. K., Pienyu, R., Padiri, R. A., & Chelli, K. (2015). Leisure motivation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Studies, 60, 314-320.
- Park, C. J. (2020). Social network analysis on internal decision-making organ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service in Korea - focusing on the editorial board of MBC(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K. H., & Ha, S. K. (2022). Adolescent leisure participation patterns and analysis of

- difference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happiness by typ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0(2), 1-15.
- Rowan, A. N. (2023). World happiness report 2023. *Wellbeing News*, 5(3), 1.
- Ryu, J. H. (2018). Analysis of the knowledge structure of business model studies using keyword networks(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Song, S. Y. (2022).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ater Participants in the led by the Person with Mental Distress : Focusing on the Mad Presence Project.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75), 257-293.
- Statistics Korea. (2023). 2023 Korean Social Trends. available of <https://kostat.go.kr/>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SAGE Publication*.
- Trainor, S., Delfabbro, P., Anderson, S., & Winefield, A. (201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33(1), 173-186.
- United Nations(UN). (2023). World Happiness Reporting. available of <https://worldhappiness.report/about/>
- Vancampfort, D., Stubbs, B., Mugisha, J., Firth, J., Van Damme, T., Smith, L., & Koyanagi, A. (2019). Leisure-time sedentary behavior and suicide attempt among 126,392 adolescents in 43 countr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50, 346-353.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 2019 Suicide Worldwide. available of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suicide-in-the-world>.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2). World mental health report. <https://iris.who.int/>

Abstract

# Analysis of Cohesion Structure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ies network to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Lee Yegun\* Lee Wonbae\*\* Jin Seokoh\*\*\*

In this study, we utilized the 2019 Time Use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to construct and analyze the leisure activity networks of adolescents based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levels. The analysis focused on 3,431 adolescents with high subjective well-being and 241 with low subjective well-being. Network metrics such as density, inclusiveness, mean distance, isolated nodes, centrality, and cohesion were analyzed using NetMiner 4.0, whil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 SPSS ver.25.0. The results revealed differences in weekday and weekend leisure activity networks between high and low subjective well-being adolescents. Centrality indicators showed that adolescents with higher subjective well-being engaged more in social activities and sports, while they participated less in personal hobbies compared to their lower well-being counterparts. Cohesion analysis also indicated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cohesion of leisure activities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visually mapp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activities based on subjective well-being level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providing insights into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y engagement.

**Keywords :** Adolescent, Cohesion structure, Leisure activities network, Subjective Well-being

---

\*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dministration, U1 University

\*\*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dministration, U1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dministration, U1 University

\_\_\_\_\_

\_\_\_\_\_

\_\_\_\_\_

\_\_\_\_\_

---

데이터 매칭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및 시도에 관한 연구

[연구 5팀]

임영재(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과 4학년)

---

# 데이터 매칭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생각 및 시도에 관한 연구

임영재\*

본 연구는 장애인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시도를 직접 비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시자료와 202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유사 문항을 추출하고, 두 집단을 성, 연령에 기반한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장애인 3,306명과 비장애인 3,306명의 1:1 매칭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등을 공변량으로 한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나 건강행동, 건강상태에 있어 열악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2주 이상의 우울감에서는 비장애인이 9.32%, 장애인이 20.7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001$ ). 스트레스(2.04 SD 0.75 VS 2.28 SD 0.77,  $p < 0.0001$ )나 주관적 건강수준(3.19, SD 0.83 vs 2.55, SD 0.87,  $p < 0.0001$ )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오즈비(unadjusted)는 각각 4.89(95% CI 3.91-6.12), 5.71(95% CI 2.39-13.62)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95배(OR=1.95, 95% CI 1.27-3.00) 더 많이 자살 생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살 시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결과,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자살생각(OR=12.18 95% CI 8.01-18.53)과 자살시도(OR=23.70, 95% CI 6.42-87.52)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95배 더 높은 확률로 자살생각을 한다는 점, 그러나 자살시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우울감의 매개효과 가능성 즉 장애인이 더 우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있어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 이로 인한 우울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에 향후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자살예방정책수립시 장애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장애인, 자살생각, 자살시도,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

\* 목원대학교 보건안전대학 생명과학부 보건학전공

##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외(2023)의 의하면 2010년 인구 10만명당 31.7명을 최고치를 보였고,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고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져 2011년 자살 예방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입안되어 자살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2020년 기준 25.2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24). 국립재활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등록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장애인 사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2배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2).

자살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서 대표적으로 발생한다(Marlow et al., 2021). 취약계층에는 청소년, 노인, 성수자, 장애인 등이 해당되는데, 한국의 자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상대적으로 노인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한국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2,646,922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취약성 및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살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4).

장애는 기능 상실을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하면 건강 상태와 기능이 영구적으로 고정되고 (Tarlov & Pope, 199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소득감소 등의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신유리 외, 2016) 또, 장애는 흡연이나 음주 등의 약물 의존과 신체활동 부족 등의 부정적 보건 행동을 발생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Seyi et al., 2005). 장애인은 일상 생활 수행의 어려움과 사회적 소속감의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는다(Bezyak et al., 2020; Mithen et al., 2015). 기능 상실 또는 부재는 빈곤, 우울 등의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적 자원, 소득, 건강 등에서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에 원인이 된다(Khazem, 2018; 박형준, 2022).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고,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유동철 외, 2013).

장애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 수행, 사회적 차별과 멸시, 사회 경제적 문제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고은혜 외, 2021; 김예순, 남영희, 2020). 장애인의 자살과 관련해 국내외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장애 유형 또는 복수장애나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다(이원진, 2021; Choi et al., 2020).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이나 특정 집단의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살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2차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자살에 대한 비장애인과와의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202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매칭 기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표성을 지닌 두 개의 상이한 2차 자료를 기반으로 성향점수 매칭기법으로 표본을 매칭하여 하나의 통합된 표본데이터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장애여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자살생각과 시도에 관한 연구

자살 생각, 자살시도를 키워드로 하는 국내외 최근 5개년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10~20대집단이나, 양적으로 자살자가 많은 노인,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지만, 국외에서는 정신 질환 당뇨 통증등의 특정 질병 대한 자살 생각, 자살 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Monteith et al., 2020; Fan et al., 2024; Smith et al., 2023). 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고용, 경제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우울감과 스트레스, 음주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박현섭, 2020; 서소영, 2021; 고은혜 외, 2021; 정인관, 한우재, 2020; 이정욱, 2022)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개입과 정부의 공적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Han et al.(2016)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미국 국가약물사용건강조사(National Surveys on Drug and Health)에서 18~64세 184,300명을 표본추출하여 직업의 종류가 자살 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비해 3.0-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살 생각에는 혼인 여부, 건강보험 가입 유형, 의료기관 이용 등이 영향을 미쳤고, 자살시도에는 혼인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의료기관 이용,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훈 외(2017)은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충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287명을 추출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우울, 통증 및 불편감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자살생각, 사회적 활동이 자살 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관과 한우재(2020)은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2,874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12%가 자살 생각하였고, 그 중 6%가 실제로 자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 시도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실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울, 스트레스의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원 외(2023)는 20~39세 청년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청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42.1%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5.6%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는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욕구, 수면, 가족 건강성이, 여성에는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는 소득, 우울감, 가족 건강성이, 여성에는 실직 경험, 주관적 경제수준, 우울감, 사회 신뢰도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장애인의 자살생각 및 시도에 관한 연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자살률

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살 예방은 비장애인에 자살예방에 비해 강조되어야 하지만, 국내외의 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 노인, 중증질환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의 장애인의 자살 생각, 자살 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예순과 남영희(2021)는 2017 노인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2563명을 추출하여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비장애 독거노인은 9.0%, 장애 독거노인은 13.6%가 자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신과 김한성(2016)은 2014 사회조사에서 42,781명을,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6,824명을 대상으로 각각 가구소득과 사회적 차별이 장애인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장애인의 자살 충동이 6.57%, 장애인의 자살 충동이 11.44%로 장애인의 자살 충동이 비장애인에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장애인의 경우 여성이, 고연령일수록,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이,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은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자료의 한계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심리상태와 의료 이용 등의 사회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Lee et al.(2017)은 국민건강보험 샘플코호트 데이터에서 2003-2013년간 사망한 990,598명 가운데 등록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장애여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콕스비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 연령, 지역, 소득을 보정한 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위험(Hazard Ratio)이 1.9배(95%CI 1.6-2.0)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등록장애인에 비해 고의적 자해에 대한 HR이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부전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3.2배,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 2.4배, 지체장애의 경우 1.4배의 HR을 보였다. 소득은 비장애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장애인의 자살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장애진단이후 평균 39.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시도와 자살 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 비교가 난해하여 선행 연구에서 지목된 영향요인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대표하는 2차 자료를 매칭하고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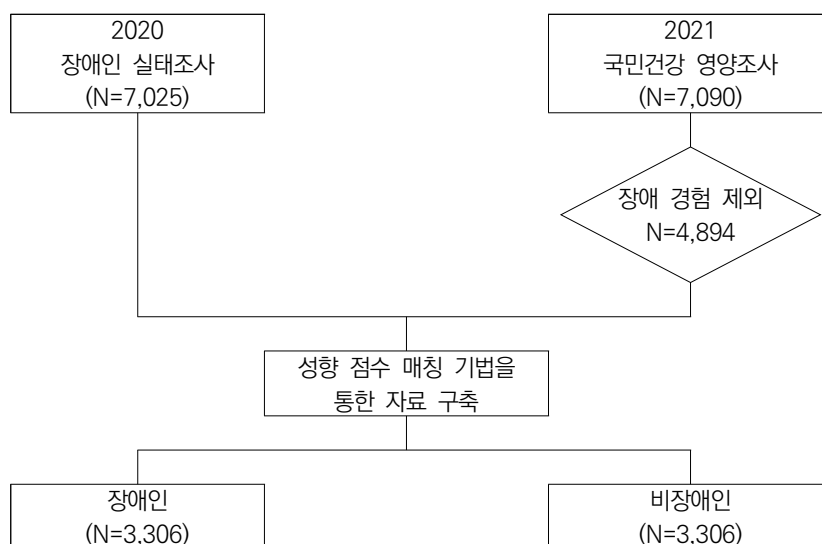
#### 1. 자료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재 공개되어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 내지 19조에 규정을 근거로 한국의 장애 인구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약 7,000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자료이다. 이중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0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관한 자료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2). 2020년 자료도 이용가능하였으나, 홀수년에만 조사되는 2주 이상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유사한 2021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대표성을 가지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된 8차조사는 2019-2021년에 걸쳐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서 “신체 및 정신장애의 경험으로 인한 활동제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비해당자이며 19세 이상인 4,894명(전체 7,090명)만을 대상으로 응답자를 추출하였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시자료에서 공통된 설문문항을 확인하여 공통변수로 정의하였고, 응답에 대해 재코딩과정을 거쳤다. 총 7,025명의 장애인과 4,894명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통합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성, 연령에 대해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1로 매칭하여 최종 6,612명(장애인 3,306명 vs 비장애인 3,306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그림 1> 분석자료 구축



## 2.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데이터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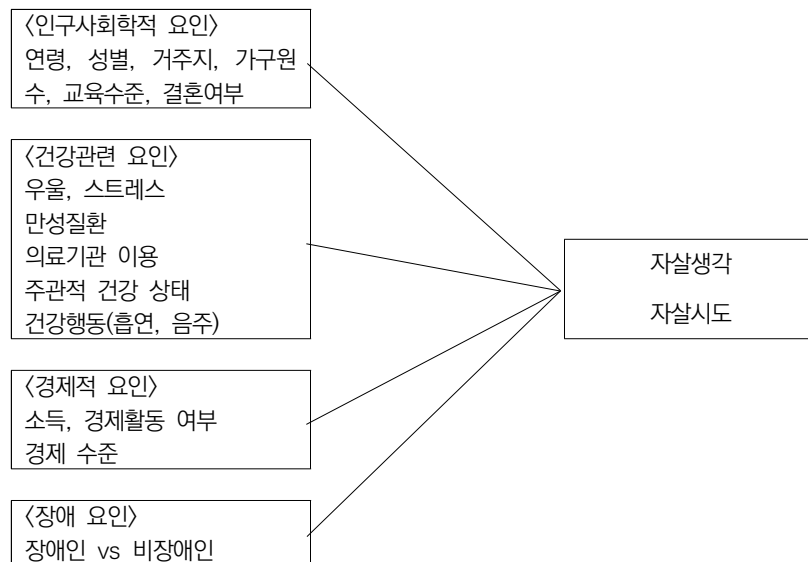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성향분석 매칭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을 활용하여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와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일대일 연결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우울감과 자살생각이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 중 홀수년도에만 포함되어 2020 장애인 실태조사와 동년도가 아닌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등 장애여부 및 상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이 부재하고,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부문에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문항에서 신체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해당하는 문항에서 “아니오”로 응답한 자만을 비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 집단에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성, 연령을 기준으로 성향 점수매칭기법(GREEDY방법, CALIPER=0.01)을 통해 1:1매칭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비장애인 3,306명, 장애인 3,306명을 추출하였다 <그림 1>.

###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여부를 종속변수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관한 변수를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기타 설명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건강 관련 요인을 설정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거주지(읍면·동), 가구원수, 교육 수준, 결혼여부를 설정하였고, 건강 관련 요인으로 우울, 스트레스, 만성질환 여부(암, 고혈압, 당뇨 등), 주관적 건강 상태, 의료기관 이용, 건강 행동(흡연, 음주)를 포함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 및 주관적 경제 수준,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 4. 관찰변수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장애 여부,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경제적 요인에 대해 각 각 세부변수를 선정하였으며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세부 변수들은 장애인실태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며 응답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재코딩을 통해 보정하였다.

[표 1] 주요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자살생각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예=1, 아니오=2)	
	자살시도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예=1, 아니오=2)	
설명변수	장애요인	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응답자(등록장애인)
		비장애인	국민건강영양조사_신체적·정신적 활동제한이 없는 자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나이(연속형 변수, 귀하의 만 나이는?)
		성별	성별 (남성=1 여성=2)
		거주지	거주지역 (비도시_읍면부=0, 도시_동부=1)
		가구원수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⑥6명 이상
		교육수준	①고등학교 이하 ②대학교(2년제 이상) ③대학원이상
		결혼여부	①유배우 ②기타
		건강 요인	우울감
	스트레스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대단히 많이느낀다=4, 많이느끼는 편이다=3, 조금 느끼는 편이다=2, 거의 느끼지 않는다=1)
	만성질환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이상지질혈증, 당뇨, 갑상선질환, 천식,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 각종 암(예=1, 아니오=2)
	외래의료이용		최근 2주간 외래 의료기관 이용(예=1, 아니오=2)
	입원의료이용		최근 1년간 입원 의료기관 이용(예=1, 아니오=2)
	주관적 건강상태		평소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좋음=1, 좋음=2, 보통=3, 나쁨=4, 매우나쁨=5)
	음주여부		최근 1년간 음주(전혀 마시지 않았다=1, 마셨다=2)
	흡연여부		현재 흡연자(예=1, 아니오=0)
	경제적 요인	경제수준	①하층 ②중층 ③상층
		소득	월평균 소득액(연속형 변수, 귀하의 월 소득액은?)
경제활동여부		취업 유무 (취업=1, 미취업=0)	

## 5. 통계 방법

성향점수 매칭으로 추출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인구의 특성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데이터 매칭을 통해 처리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표 2>와 같다. 성, 연령은 두 집단간 동일하게 매칭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장애인이 62.25%, 장애인이 83.09%였다( $p < 0.0001$ ). 결혼 여부에는 비장애인이 17.36%, 장애인이 48.64%로 장애인이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가구원수 중 1인가구의 비율은 비장애인 11.95%보다 장애인 25.71%로 나타났다( $p < 0.0001$ ), 거주지는 동(도시)에 거주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78.43%, 69.12%였으며 읍면 거주는 21.57%, 30.88%로 각각 나타나 장애인의 읍면부 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소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경제 수준에서도 장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읍주여부는 응답자는 비장애인이 많았으나, 비율은 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의료서비스 이용은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외래와 입원 모두 장애인의 이용률이 높았다(48.22% vs 17.27%,  $p < 0.0001$ ).

[표 2] 대상인구의 일반적 특성

변수		장애인(N=3,306)		비장애인(N=3,306)		p-값
		N	%	N	%	
성	남성	1600	48.40	1600	48.40	NS
	여성	1706	51.60	1706	51.60	
연령 (평균, 표준편차)		58.82	13.00	58.82	13.00	NS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2747	83.09	2058	62.25	<0.0001
	대학교(2년제이상)	518	15.67	1069	32.34	
	대학원이상	41	1.24	179	5.41	
결혼여부	유배우	1698	51.36	2732	82.64	<0.0001
	미혼	1608	48.64	574	17.36	
가구원수	1명	850	25.71	395	11.95	<0.0001
	2명	1304	39.44	1299	39.29	
	3명	639	19.33	804	24.32	
	4명	374	11.31	591	17.88	
	5명	105	3.18	161	4.87	
	6명 이상	34	1.03	56	1.69	
거주지	동	2285	69.12	2593	78.43	<0.0001
	읍면	1021	30.88	713	21.57	
경제활동	예	876	26.50	2075	62.76	<0.0001
	아니오	2430	73.50	1231	37.24	
경제수준	하층	2343	70.87	691	20.95	<0.0001
	중층	938	28.37	1719	52.11	
	상층	25	0.76	889	26.95	

변수	장애인(N=3,306)		비장애인(N=3,306)		p-값	
	N	%	N	%		
소득 (평균, 표준편차)	228.1	592.7	443.8	328.0	<0.0001	
음주여부	예	226	31.88	838	39.05	<0.0001
	아니오	483	68.12	1308	60.95	
흡연여부	예	388	11.74	510	15.44	<0.0001
	아니오	2918	88.26	2793	84.56	
최근 2주간 외래이용	1594	48.22	1019	30.82	<0.0001	
최근 1년간 입원이용	571	17.27	341	10.31	<0.0001	

## 2. 건강상태비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의 비교는 <표 3>과 같다. 장애인의 자살에 미치는 건강상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만성질환, 암,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수준을 파악하였다. 먼저 만성질환은 비장애인의 54.14%가, 장애인의 57.32%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 $p=0.009$ ). 비장애인은 이상지질혈증( $p<0.0001$ ), 골관절염( $p=0.0005$ ), 골다공증( $p<0.0001$ )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장애인은 고혈압( $p<0.0001$ ), 뇌졸중( $p<0.0001$ ), 심근경색( $p=0.0011$ ), 당뇨( $p<0.0001$ ), 류마티스관절염( $p=0.0322$ ), 우울증( $p<0.0001$ )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암진단 경험은 비장애인의 1.48%가, 장애인의 2.15%가 암진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암을 제외한 모든 암질환이 장애인 이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43$ ). 구체적으로 갑상선암( $p=0.025$ ), 간암( $p=0.045$ ), 자궁경부암( $p=0.045$ )에서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비율은 비장애인이 9.32%, 장애인이 20.75%로 나타나, 우울증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 스트레스 수준에는 비장애인의 평균이 4점 중 2.04(SD 0.75), 장애인의 평균이 2.28(SD 0.77)로 나타나 장애인의 스트레스 지수(4점 척도)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수준(5점 척도)은 비장애인의 평균이 3.19(SD 0.83), 장애인의 평균이 2.55(SD 0.87)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

[표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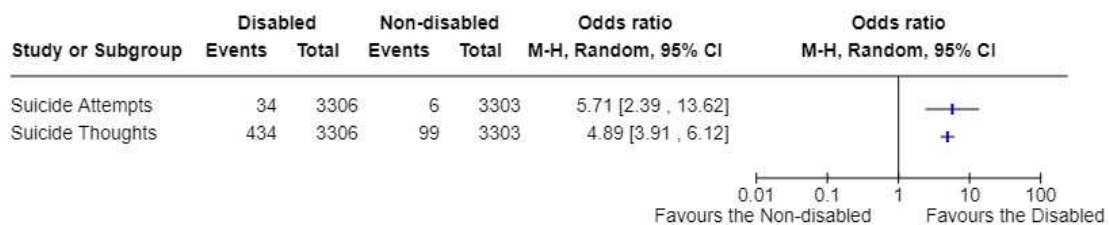
변수	장애인(N=3,306)		비장애인(N=3,306)		p-값
	N	%	N	%	
만성질환 보유 (복수 응답)	1895	57.32	1,790	54.14	0.009
고혈압	1224	37.02	1,072	32.43	<0.0001
뇌졸중	207	6.26	61	1.85	<0.0001
심근경색	84	2.54	47	1.42	0.0011
이상지질혈증	180	5.44	867	26.23	<0.0001
당뇨	678	20.51	467	14.13	<0.0001
갑상선질환	87	2.63	95	2.87	NS
천식	66	2.00	59	1.78	NS
골관절염	310	9.38	398	12.04	0.0005
류마티스관절염	76	2.30	52	1.57	0.0322

변수	장애인(N=3,306)		비장애인(N=3,306)		p-값	
	N	%	N	%		
골다공증	155	4.69	262	7.92	<0.0001	
우울증	122	3.69	50	1.51	<0.0001	
암진단경험	71	2.15	49	1.48	0.043	
갑상선암	5	0.15	15	0.45	0.025	
위암	11	0.33	9	0.27	NS	
대장암	19	0.57	9	0.27	NS	
폐암	10	0.30	3	0.09	NS	
간암	12	0.36	4	0.12	0.045	
유방암	12	0.36	9	0.27	NS	
자궁경부암	4	0.12	0	0.00	0.045	
2주 이상 우울감	예	686	20.75	308	9.32	<0.0001
	아니오	2,620	79.25	2,995	90.68	
스트레스 (평균, SD) 4점척도	2.28	0.77	2.04	0.74	<0.0001	
주관적 건강수준 (평균, SD) 5점척도	2.55	0.87	3.19	0.83	<0.0001	

### 3.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관한 비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오즈비는 <그림 3>에 엮볼수 있다. 자살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5.71배[OR=5.71, 95% CI 2.39-13.62]의 승산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도 장애인의 자살생각 대비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이 4.89배[OR=4.89, 95% CI 3.91-6.12] 높은 확률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장애여부에 따른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오즈비



###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그림 2>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애여부가 얼마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결혼여부, 경제활동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2주이상 우울감, 스트레스, 외래서비스 이용여부, 장애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있는 경우 12.18배 높은 승산비를 보였다 [OR=12.18 95% CI 8.01-18.53]. 다음으로는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1.95배 자살생각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R=1.95, 95% CI 1.27-3.00],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1.74배 [OR=1.74, 95% CI 1.33-2.27], 외래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1.62배[OR=1.62 95% CI 1.09-2.43] 높은 자살생각의 확률을 보였다. 반면, 결혼을 한 경우는 미혼(사별, 이혼 등)에 비해 0.47 배[OR=0.47, 95% CI 0.31-0.72] 낮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0.50배 [OR=0.50, 95% CI 0.33-0.76] 낮게, 주관적 건강수준이 1점씩 높아질수록 0.73배[OR=0.73, 95% CI 0.57-0.94] 낮게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자살 시도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수와 2주 이상의 우울 감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가족수가 1명씩 늘어날수록 0.48배[OR=0.48, 95% CI 0.26-0.90] 덜 자살시도를 하였고, 2주 이상 우울감을 가진 경우 23.7배[OR=23.70, 95% CI 6.42-87.52] 더 많 이 자살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주 이 상의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보다는 오히려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큰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주 이상의 우울감은 장 애인에서 높은 비중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에(p<0.0001) 장애여부가 2주 이상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울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함을 본 연 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오즈비(OR)	95% 신뢰성 한계	
				하한값	상한값
자살생각	결혼여부	예	0.472	0.31	0.72
		아니오	-	-	-
	경제활동여부	예	0.50	0.33	0.76
		아니오	-	-	-
	주관적 건강 수준		0.73	0.57	0.94
	2주 이상 우울감	예	12.18	8.01	18.53
		아니오	-	-	-
	스트레스		1.74	1.33	2.27
	외래이용여부	예	1.62	1.09	2.43
		아니오	-	-	-
장애 여부	예	1.95	1.27	3.00	
	아니오	-	-	-	
자살시도	가족수		0.48	0.26	0.90
	2주 이상 우울감	예	23.70	6.42	87.52
		아니오	-	-	-

##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고자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0 장애인 실태조사」와 전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3차년도 (2021년)」자료(장애경험 응답자 제외)를 통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통계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 연령을 기반으로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1 매칭자료(총 6,612명)를 구축하였다.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건강행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일부 질환(갑상선질환, 천식)과 일부 암진단경험(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주 이상의 우울감에서는 장애인(20.75%)이 비장애인(9.32%)에 비해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고 스트레스나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도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해 두 집단의 오즈비를 단변량으로 산출한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5.71배의 높은 자살 시도 [OR=5.71, 95% CI 2.39-13.62]와 4.89배 OR=4.89, 95% CI 3.91-6.12]의 자살생각에 대한 승산비를 보였다.

장애여부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 교육수준, 결혼여부, 거주지, 가족수, 경제수준, 소득액, 경제활동여부, 만성질환여부, 암진단경험,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감, 음주, 흡연, 스트레스, 외래서비스 이용, 입원경험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단계적 선택(stepwise selection)조건으로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1.95배 [OR=1.95, 95% CI 1.27-3.00]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결혼여부, 경제활동,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감, 스트레스, 외래이용여부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살시도에는 장애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수와 우울감만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여부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시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주 이상의 우울감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있어 우울감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1.95배 높은 승산으로 자살생각을 하지만 자살 시도에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된 것과 사뭇 상이하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2배 더 많이 자살한다는 국립재활원의 통계와 상이하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자살생각비율이 9.0%대 13.6%로 조사된 김예순과 남영희(2021)의 연구와도 상이하다.

그 외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거나 스트레스가 높고, 외래 의료 서비스 이용했으며 우울감 경험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김민경, 조경원, 2019; 이유신, 김한성, 2016; 윤명숙, 김새봄, 2020; 임소희 2022; 원서진, 김혜미, 2019). 즉, 우울감과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수준, 외래 의료 이용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OR=0.5, 95% CI 0.33-0.76)을 확인하였는데,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장애인의 소득의 증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사회 참여로 이어져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의 의미를 지닌다고 확인된 바 있다(이유신, 김한성, 2016; 원서진, 김혜미, 2019).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불건강한 행동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정인관, 한우재, 2020), 본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행동은 자살생각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감 외에 가구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기존 연구에서의 자살 위험 증가와 동일하게 나타났다(도문학 2014). 적은 가구원수는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우울 또는 고립감 등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져 자살 시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Lee et al.(2017)은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대한 설문방식이 아닌 건강보험청구샘플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상병코드기준 고의적 자해(X60-X84), 즉 자살시도로 요양기관에 내원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콕스비례모형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여부에 따른 Hazard ratio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 연령, 지역, 소득을 보정한 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위험(Hazard ratio)이 1.9배(95%CI 1.6-2.0)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등록장애인이 자살시도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설문에 대한 주관적 응답보다는 청구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보다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나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를 보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질적인 두 자료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목적이 다른 이질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장애인을 기준으로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경제 활동 등의 일부 변수를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로 연구 자료로 이용한 장애인 실태조사와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횡단연구로 자살 생각 후,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사이 일어나는 우울감, 질환 등의 선후관계나 시차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인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장애 여부에 대한 설문이 등록장애인여부를 묻는 등의 구체적이지 않고, 활동제한경험여부에서 확인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추출한 비장애인 집단에 장애인이 일부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 여부는 우울감과 자살생각에는 영향을 주었는데 자살 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는 우울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에 우울감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울감의 매개효과분석을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우울감의 매개효과로 인한 장애여부와 자살시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데이터 간의 시차가 존재하여 동일한 기간에 조사된 자료로 장애여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에 한계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 여부와 자살 생각, 자살시도를 직접 비교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이질적인 두 자료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95배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시도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애여부가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우울감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매개효과를 지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장애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우울감 특히 장애에 따른 우울감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질적 자료의 통합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두 포함된 건강, 영양, 의료 이용 그리고 삶의 질이 모두 포함된 통계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한 정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95배 더 높은 확률로 자살생각을 한다는

점, 그러나 자살시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우울감의 매개효과 가능성, 즉 장애인이 더 우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있어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 이로 인한 우울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에 향후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자살예방정책수립시 장애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또한 장애인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경, 조경원. (2019).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관련 요인.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6(3), 61-71.
-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오다은, 황주희, 오미애, 김지민, 이연희, 강동욱, 권선진, 백은령, 윤상용, 이선우 (2021), 202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원, 장숙량, 김해송, 김민경, 김현수, 주지영, 이경영, 김유경. (2023).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보건사회연구, 43(1), 69-84.
- 고은혜, 송선미, 허순임, 김혜영. (2021).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중·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2), 239-257.
- 국립재활원. (2022). 건강검진 통계에 비취진 장애인의 건강,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75-100.
- 김예순, 남영희.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2(3), 69-81.
- 김예순, 남영희. (2020).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고려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4(2), 19-27.
- 도문학. (2014). 노인자살의 생태체계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자살고위험군 노인 선별을 위한 ROC Curve의 적용.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0), 519-543.
- 박선미, 한미아, 박종, 류소연, 최성우, 신환호 and 주미현. (2016). 흡연 및 음주와 우울증상 경험과의 관련성: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6(2), 111-118.
- 박현섭, 홍성애. (2020). 전기·후기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 요인 비교 -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4(4), 91-104.
- 박형준. (2022). 장애 발생 전후의 빈곤 궤적과 예측 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55, 105-137.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2). 2022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건강검진 통계에 비취진 장애인의 건강, 93-96.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2). 제8기(2019-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연도.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1/sub01\\_05.do](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1/sub01_05.do).
- 보건복지부. (2024.4.30).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 서소영. (2021). 고용형태와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와의 관계: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한보건연구, 47(2), 117-131.
-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2016).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Aging)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판사회정책, 50, 200-240.
- 원서진, 김혜미. (2019). 성인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

- 교육건강증진학회지, 36(2), 65-76.
- 유동철, 홍현정, 김경미, 김동기, 신유리. (2013).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183-206.
- 윤명숙, 김새봄. (2020). 노년기 장애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 노령화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비교.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1), 84-109.
- 이원진.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94, 6-20.
- 이유신;김한성. (2016).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가구소득과 차별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3), 5-34.
- 이정옥. (2022). 1인 가구의 연령별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8(11), 487-498.
- 임소희 (2022). 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18(8), 123-134.
- 장성훈, 서은영, 최희정. (2017).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분석.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0(2), 111-121.
- 정인관, 한우재. (2020).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7)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44(4), 181-206.
- 통계청 인구동향과, 노형준, 서주희. (2023). Cause-of-death statistics in 2020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의사협회지, 66(2), 132-142.
- Alvin R. Tarlov, & Andrew M. Pope. (1991). Disability in America : Toward a National Agenda for Preven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Bezyak, J. L., Sabella, S., Hammel, J., McDonald, K., Jones, R. A., & Barton, D. (2020).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barriers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42(23), 3275-3283. <https://doi.org/10.1080/09638288.2019.1590469>.
- Choi, J. W., Lee, K. S., & Han, E. (2020).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risk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3, 9-14. <https://doi.org/10.1016/J.JAD.2019.11.129>.
- Fan, Z., Xu, J., Ge, M., Huang, J., Ni, H., Shen, W., & Chen, H. (2024). Suicide dea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in patients with diabet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https://doi.org/10.1111/jan.16074>.
- Han, B., Crosby, A. E., Ortega, L. V. A. G., Parks, S. E., Compton, W. M., & Gfroerer, J. (2016).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and occupations among employed adults aged 18-64 years in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Psychiatry, 66, 176-186. <https://doi.org/10.1016/j.comppsy.2016.02.001>.

- Khazem, L. R. (2018). Physical disability and suicide: recent advancements in understanding and future directions for consideration. I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Elsevier B.V, 22, 18-22. <https://doi.org/10.1016/j.copsyc.2017.07.018>.
- Lee, S. U., Roh, S., Kim, Y. eun, Park, J. I., Jeon, B., & Oh, I. H. (2017). Impact of disability status on suicide risks in South Korea: Analy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data from 2003 to 2013.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0(1), 123-130. <https://doi.org/10.1016/J.DHJO.2016.06.008>.
- Marlow, N. M., Xie, Z., Tanner, R., Jo, A., & Kirby, A. v. (2021). Association Between Disability and Suicide-Related Outcomes Among U.S. Adul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61(6), 852-862. <https://doi.org/10.1016/j.amepre.2021.05.035>.
- Mithen, J., Aitken, Z., Ziersch, A., & Kavanagh, A. M. (2015). Inequalities in social capital and health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26, 26-35.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4.12.009>.
- Monteith, L. L., Holliday, R., Miller, C., Schneider, A. L., Hoffmire, C. A., Bahraini, N. H., & Forster, J. E. (n.d.).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female veterans: Prevalence, timing, and onset. <https://doi.org/10.1016/j.jad.2020.04.017>.
- OECD (2024), *OECD Health Statistics, Suicide rates, Deaths per 100,000 inhabitants, 2020*
- Smith, L., Shin, J. il, Pizzol, D., López Sánchez, G. F., Soysal, P., Veronese, N., Kostev, K., Jacob, L., Butler, L. T., Barnett, Y., & Koyanagi, A. (2023). The association of pain wi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s aged  $\geq 50$  years from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8(7). <https://doi.org/10.1002/gps.5962>.
- Seyi L. Amosun, Eugene Mutimura, Jose M. Frantz, (2005). Health promotion needs of physically disabled individuals with lower limb amputation in Rwanda,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7, 837-847 <https://doi.org/10.1080/0963828040001867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WHO 자살예방 문헌집: 국가 자살 예방 전략(최진화, 육동연, 이선아 역), 세종: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 Abstract

#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 vulnerable to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Evidence from the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Data Sets

Lim Youngja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Given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directly compar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y, we made it possible by integrating two datasets representing the disabled(Korea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KNSD) and the non-disabled(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respectively.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by sex and age, a total of 6,612 participants(3,306 vs 3,306 with and without disability) were selected and directly compared on the extent of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 logistic analysis was performed,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related factors in addition to disability status. As a result,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poorer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behaviors and health status. In particula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for more than 2 weeks, with 9.32% of non-disabled and 20.75% of disabled( $p < 0.0001$ ). The unadjusted odds ratios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ere 4.89 (95% CI 3.91-6.12) and 5.71 (95% CI 2.39-13.62),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he disabled was 4.89 times more likely to think about suicide and 5.71 times more likely to attempt suicide than the non-disabled. However,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show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1.95 times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OR=1.95, 95% CI 1.27-3.00)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but no significance was found for suicide attempts. Interestingly, depressive symptom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OR=12.18 95% CI 8.01-18.53) and suicide attempts (OR=23.70, 95% CI 6.42-87.52). A possib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was also found.

**Keywords :** People with disability,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s, KNSD, KNHANES

---

\*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Mokwon University



\_\_\_\_\_

\_\_\_\_\_

\_\_\_\_\_

\_\_\_\_\_

---

여성장애인의 목소리 발화와 리터러시 제안  
: 2010년대 전후 한국문화작품 및 대중 콘텐츠 속  
여성 장애인의 출현양상과 장애담론을 중심으로

[연구 6팀]

김나은(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

김선진(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3학년)

---

#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 발화와 리터러시 제안 : 2010년대 전후 한국 문학작품 및 대중 콘텐츠 속 여성 장애인의 출현 양상과 장애 담론을 중심으로

김나은\* 김선진\*\*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현대문학과 대중문화콘텐츠를 분석하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때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자와 독자·시청자 각각에게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시청할 때 쓰일 수 있는 인권·가치 지향적 리터러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문화콘텐츠를 각각 2000년대 이후 한국현대문학과 대중문화콘텐츠(영화, 드라마)로 나누어 수집, 각각의 장르에 나타난 장애여성 인물의 경향과 소비 패턴, 창작자의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한국현대문학에서 장애여성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2000년대 비장애인 가족의 불행을 의미화하는 상징에서 2010년대 성적 욕구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 바뀌었으며, 2020년대에는 더 나아가 장애-퀴어 교차 담론을 가지고 장애여성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존재론적 문제로 그 시야가 확장되었다. 대중문화콘텐츠에서는 장애여성의 재현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선례가 〈오아시스〉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애여성 인물의 활용에 대한 편협함과 아쉬움을 극복한 사례를 추후 탐색할 수 있었다. 〈오직 그대만〉에서 로맨스 서사의 클리셰 충족을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되었던 장애의 소재가 〈도가니〉의 호소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로, 그리고 마침내 2020년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오아시스〉의 파급을 되찾는 동시에 장애여성인물에 대한 활용의 지평 확장을 이루는 데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 특히 장애여성 담론에 있어 그동안의 오류를 보고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심 리터러시를 구체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장애여성, 대중문화콘텐츠, 한국현대문학, 성인식, 교차성 담론, 다양성, 리터러시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95년 4월 장애여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리면서부터였다(김경화, 1999). 이후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이 창립되고, 2000년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장애여성이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사회의 장애여성은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 성적으로 무지한 존재, 무성(無性)의 존재, 병리적인 존재로 취급되며 재생산이 금지당하는 등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성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차별받았다. 이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을 파악하는 방식이 남성중심의 담론을 준거로 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특수성은 보이지 않거나 배제되었기 때문이다(공미혜, 2005)<sup>1)</sup>. 장애여성을 향한 교차차별로 장애여성은 교육, 결혼, 취업, 재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러나 2010년 디지털 세대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은 급격히 변화했는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해 목소리를 알리기 시작한 페미니스트가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를 재의미화하고 비판하며, 의제화(agenda)<sup>2)3)</sup>하기 시작했다. 한국 페미니즘이 제4물결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타면서, 한국에서도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장애인의 정체성과 교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교차성에 관한 담론은 2000년대 로버트 맥루어(Robert McRuer)가 『불구 이론』Creep Theory(2006)에서 불구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몸의 교차 속에서 ‘불구화하기’라는 이름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학자에게 계승되었고, 앨리슨 케이퍼(Alison Kafer)는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Feminist, Queer, Crip(2013/2023)에서 장애를 처음부터 관계성과 교차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자 정치적인 것으로 재개념화하는 ‘장애의 정치적/관계적 모델’을 정립했다(전혜은, 2023)<sup>4)</sup>. 즉, 현대에서 한 명의 장애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얽힌 다양성을 인정하며 몸의 교차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여성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다. 기존의 학술 연구가 모두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에 관한 유의미한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로, 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이다<sup>5)</sup>. 더불어 장애여성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 수준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만성질환 또는 장애 특성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1) 공미혜. (2005). 침묵화된 성. 한국여성학, 21(1), 87-124.

2) 김은주. (2019).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1-32.

3) 김수아. (2017).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 아이돌 팬덤의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의 명암. 문화와 사회, 25, 297-336.

4) 전혜은. (2023). 장애로부터 교차성의 방법론과 연대를 구체화하기 : 앨리슨 케이퍼(2023),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 불구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학과 상상력』, 이명훈(역), 서울: 오월의봄(Alison Kafer(2013). Feminist, Queer, Crip.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한국여성학, 39(4), 189-194, 10.30719/JKWS.2023.12.39.4.189

5)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여기에 장애여성이 포함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 공미혜, 김경화, 김현지, 주경미. (2007). 장애여성의 삶과 복지. 신정.

인 건강 문제, 주관적 건강 상태 등 장애남성에 비해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장애인구 중에서도 취약집단이다(김성희, 2018).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도 장애여성을 향한 인식의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미술, 문학, 영화 등의 분야에 데뷔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여성예술인의 수가 드물뿐만 아니라<sup>6)</sup>,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창작자의 시각이 여전히 복지와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는 콘텐츠 소비자에게 인간 삶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창작된 시대의 담론과 문제를 제시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인 TV가 일상화되면서 시청자와 창작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대중에게 문화콘텐츠가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 장애여성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장애여성의 권리를 무시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현대문학과 대중문화콘텐츠를 분석하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때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자와 독자·시청자 각각에게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시청할 때 쓰일 수 있는 인권·가치 지향적 리더십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장애여성에게 부여한 사회적 낙인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면서, 그동안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 답습해온 장애여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독자·시청자에게 하나의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후속 창작자들에게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을 창작할 때의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II. 연구 방법 - 한국문학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문학 중에서도 장애여성이 등장하고 소재로 사용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당대의 모든 소설을 분석할 수 없으므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장애인인 주요 인물이 나타나는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중심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작품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든 분석대상작품은 주요 계간지와 월간지에 발표된 단편소설과 현재(2024년 기준)까지도 출판되어 구매 가능한 장편소설 중에서 장애를 소재 또는 주제로 하는 작품을 선택했다.

분석대상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따랐다. 첫 번째는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따른 시대별 장애여성 인물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 두 번째는 장애여성인 작품에서 하나의 인물로서 기능하는 작품, 세 번째는 장애여성을 둘러싼 교차차별 등의 담론을 충분히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의 기준에 따른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료는 국립장애

6) 아직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  
<https://www.welvoter.co.kr/41752>

인도서관의 ‘장애 분야 신간 도서’를 따랐다.

[표1] 발표 연도순에 따른 분석 대상 작품

연 번	작품	작가	발표연도	장애인물	장애유형	작품분류	소설 속 역할
1	당신의 수상한 근황	김경욱	2004	강민아	언어	단편소설	주인공의 딸
2	버스 드라이버	김미선	2013	손봉애	소아마비	장편소설	주인공 (1인칭 서술자)
3	나뭇잎이 마르고	김멜라	2020	체(한나)	뇌병변	단편소설	주인공 (3인칭 전지적 시점의 관찰 대상)

김경욱의 「당신의 수상한 근황」(2004)은 2000년대 장애여성이 물화(物化)된 존재로, 비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2000년대 장애인문학의 경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대상작품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에 발표된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는 2010년대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장애여성의 성적 욕구를 과감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장애여성이 성적으로 무지하다는 편견을 벗고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2010년대 장애인문학 속 장애여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세 번째, 김멜라의 「나뭇잎이 마르고」(2020)는 장애여성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긴 하지만, 동시에 장애여성을 성적대상화하던 2010년대의 소설 경향에서 벗어나 장애여성과 퀴어의 교차성 담론을 제시하고 비장애인중심주의 사회에 경각을 올린다는 점에서, 2020년대 장애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어 분석대상작품으로 선정하였다.

##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선정 대상 작품의 장애여성인물을 <표 1>과 같이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장애여성 인물의 소설 내 기여도, 소설에 나타나는 빈도, 장애 여성 인물의 수, 기타 장애인물의 수, 후속 작품에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작품 내 장애인물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물의 장애유형과 장애원인, 후천/선천성을 분석하였다. 2023년 4월 19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sup>7)</sup>을 근거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2023.04.19.

본 연구에서는 선정 대상 작품을 2명의 연구자가 각각 교차하여 정독하고 토론하면서 분석도구에 따라 분석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줄거리와 장애인물의 수, 장애여성인물의 작품 내 기여도 등을 비율로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수치화하여 시대별 장애여성인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대중콘텐츠

#### 1. 연구절차

대중콘텐츠에서의 장애인 노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럿 다루어졌다. 미디어 속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 소수집단의 정의 및 주류 사회의 영향, 장애의 기준 모델 등을 분석한 연구는 1990년대 대두되기 시작한 장애 담론을 기점으로 진보해 왔다. 기존의 연구에 뒤따른 후속 연구들은 장애 담론의 적극성을 거듭 요청하였고, 현재와 인접한 2020년에 마련된 연구 데이터는 마침내 장애여성의 담론화를 이끌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중콘텐츠 분과에서는 세 가지 스텝을 통해 총체적 대중콘텐츠 리터러시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a) 현황분석: 현재까지의 대중미디어콘텐츠에서 다루어진 장애여성 캐릭터 분석을 통해 그동안 변모해 온 창작자의 장애여성 인식 유형과 창작법을 그래프화하여 대중콘텐츠 창작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b) 사회적 리터러시 대입: 이렇게 창작되어 온 콘텐츠에 대해 전문가와 창작자를 포함한 대중의 리터러시 방향을 각종 기사 및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앞서 마련된 대중콘텐츠 속 장애여성 창작 행로의 구조적 모델에 대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사회적 리터러시를 가시적으로 구현한다.

c) 종합: 제안된 장애여성 대중콘텐츠 창작 모델과 사회적 리터러시 모델을 융합하여 2000년대 이후 창작물과 그에 대한 리터러시의 동향을 정리한 대중콘텐츠 리터러시 모델을 마련한다.

이렇게 최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여성을 활용한 창작에서의 오류 지적·해소와 앞으로 창작자와 대중이 유용하게 활용할 인권·가치 지향적 리터러시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대중콘텐츠 분과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장르에서 장애여성이 중심인물로 등장한 작품 위주로 선정하였다. 영화 <오아시스>, <오직 그대만>, <도가니>,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들의 블루스>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목적인 창작물 속 장애여성 노출에 관한 담론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리터러시를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가능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작품별로 정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 발표 연도순에 따른 분석 대상 작품 및 선정 기준·목적

연번	작품	감독 및 극본	발표연도	선정 기준·목적
1	(영화)오아시스	이창동	2002	2000년대 초 장애여성에 관한 담론 파악(성육구, 로맨스의 대상 및 주체이자 피해자로서 장애여성의 고립과 노출에 관하여)
2	(영화)오직 그대만	송일곤	2011	2010년대 초 로맨스 클리셰를 위한 도구로서 장애여성 캐릭터의 활용과 억압, 노출에 관하여
3	(영화)도가니	황동혁	2011	2010년대 초 팩션 서사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생존자로서 장애여성(아동)의 창작 양상과 현실고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장애여성의 노출에 관하여
4	(드라마)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2022	2020년대 장애여성 담론의 정보 최신화, 장애의 정의와 노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장애여성 캐릭터의 변모에 관하여

별도의 작품으로 선정한 드라마 <무빙>의 경우, 인권·가치 지향적 리더십을 제안하기 위한 최종 레퍼런스로 활용할 예정이며, 초능력물을 통한 장애 담론의 확장 가능성을 연구할 가치가 있기에 선정하였다.

## IV. 본문 - 한국문학

### 1. 존재하지 않는 인물, 장애여성 -

#### 「당신의 수상한 근황」을 통해 바라본 ‘불행의 상징’으로서의 장애여성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고 2009년 국내에 발표되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각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핵심으로 장애인인권의 교육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2001년 1월 오이도역 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 출범하였고, 현재의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물결을 따라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작가들은 본격적으로 창작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1년 방귀회를 중심으로 지체장애인의 문인들은 한국장애인문인협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숲대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계간지를 발간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순수 문예 창작 공모인 ‘곰두리문학상(1991년, 현재의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이 시작되며 장애인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비장애인 작가에게. 1990~2000년대 한국문학 속에서 남성 장애인의 생활은 중요한 주제였다. 대표적으로 김원일의 소설집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2003)은 아내와 사별한 미화원과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의 이야기, 지체장애인과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 등을 서술하며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지적하고 소외의 문제를 사회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다만 일반인들이 장애를 보는 관점에서 일부는 장애인의 능력을 과소 혹은 과대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인 장애 명칭보다는 병어리, 병신 등의 속어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오세철, 2007). 하지만 같은 시기, 장애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장애인관에서 여성 장애인은 무성(無性)의 존재로, 보이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1990~2000년대 여성 장애인은 작품에 등장하더라도 자신의 장애를 숨기거나 모르는 척하기 바쁘며, 결말에는 장애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옥의 「당신의 수상한 근황」(2005)은 이러한 2000년대의 장애인관을 보여준다. ‘강’씨 성을 가진 30대 남성(이하 ‘강’) 화자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는 소설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강’의 딸 ‘민아’는 인물로 기능하지 못한다. 소설 속 ‘민아’의 역할은 한 명의 인물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6년 전 교통 사고를 당한 뒤 지금까지 느끼는 억울함을 대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미간을 모으며 입을 달싹일 때 나는 딸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아내는 아이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눈빛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나는 항변했다. 뭇가를 말하기 위해 버둥거리는 딸아이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64쪽)*

이렇게 물화(物化)된 ‘민아’의 언어장애는 결말에서 ‘강’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화를 받는 장면에서도 반복된다.

*그것은 숨소리였다. 어느 먼 곳으로부터 아득히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뭇가를 애써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것은 딸아이의 숨소리였을 것이다. 딸이 되지 못하고 소리에 불과한 웅얼거림이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웅얼웅얼 소리를 냈다. 의미를 구하지 못한 그 소리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갓난아이의 웅얼이처럼 들렸다. 전화기에 대고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오는 것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소리뿐이었다. 오래지 않아 전화는 끊어졌고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72쪽)*

소설 속에서 ‘강’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신은 ‘계획적인 범죄’에 당했다고 믿고, 보험 사기꾼을 강박적으로 단속하는 보험사 직원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강’에게 이성적인 논리나 증거가 아닌 ‘뭇가를 애써 호소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민아’의 목소리는 가닿지 못한다.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강’에게 있어 그저 불행의 상징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목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질화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한 인물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에게 기대어 발화되

며, 소설의 상징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2000년대 한국현대소설 작가들이 장애인을 주제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동시에, '장애'와 '여성'의 교차 차별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문제다. 2000년대 후반, 방귀희 등의 장애여성 작가는 바로 이 한계점을 지적하며 2010년대 장애여성을 발화 주체의 한가운데로 데려온다.

## 2. 욕망하는 장애여성 -

### 『버스 드라이버』(2013)를 통해 바라본 장애여성의 성적 욕구와 성적자기결정권의 발화

한국에서 장애여성인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가시화된 건 2010년대부터였다. 2000년대에는 장애여성자조모임이나 장애여성연극팀 '춤추는허리'를 창립하는 등 개인적인 활동을 이어갔다면, 장애여성공감은 2010년 '숨'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그전까지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차별에 묶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2010년대 한국문학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장애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보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과 결혼에서 자주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현대소설에서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사랑은 묘사와 결말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혜린의 『예감』(2007) 속 '연우'처럼 장애남성은 주로 비장애여성과의 사랑을 나누고 비장애여성의 이해와 배려를 하나의 '보상'으로 받으면서 한국사회의 정상 가족 규범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장애여성은 방귀희의 『삼사랑』 속 '수아'처럼 비장애인남성과의 사랑을 꿈꾸지만 지체장애라는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는 결말을 맞는다. 또는 조수경의 『젤리피시』(2013) 속 '나'처럼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성적 욕구를 갖는다 해도 결국 비장애인남성의 배신으로 다시금 타자화되는 비극적 결말을 다룬다. 장애를 하나의 시련으로 극복한 뒤 비장애인여성과의 사랑이라는 '보상'을 얻는 장애남성과 달리 장애여성은 장애라는 '한계'에 갇혀 성폭력에 노출되고 성적대상화되는 것이다.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는 이러한 2010년대 한국현대소설에서 장애여성의 성적 욕구를 주체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소성른 소아마비장애여성 '봉애'가 쇼핑센터의 셔틀버스 운전 기사인 '그'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리며, 그동안 장애여성을 성적으로 무지한 존재로 대우했던 사회 현실을 꼬집는다.

예시로, "안아서 내려줘"는 소설에서 '봉애'가 '그(버스 운전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대사다. 이는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버스에서 나를 내려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성적 관계를 맺자"는 성애적 의미이다. 전자가 계속 '봉애'를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는 '그(버스운전사)'에게 봉애의 장애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말이라면, 후자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 봉애를 동생처럼 생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어(117쪽)"라며 '봉애'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에게 자신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어필하며 적극적으로 '그'와 관계맺고 싶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봉애'의 구애는 철저히 외면당한다. '그'에게 사랑을 거절 당한 순간, '봉애'는 자신이 "늘 데이트의 외곽에,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의 바깥에 서 있었다(79쪽)"라고 표현한다. 또한 자신은 언제나

딸이나 누이처럼 남성에게 의해 보호 받고 배려 받으며, 측은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봉애는 왜 자신은 에로스적 사랑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는데, 이는 “내가 봉애를 안으면 그때부터 죄짓게 되는 거야(174쪽)”라는 ‘그’의 대사로 차단당한다. ‘봉애’의 성적 욕구가 비장애인 남성에게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다.

봉애의 성적 욕구의 차단은 곧 ‘정상여성’ 편입으로의 차단으로 이어진다. 이때 ‘봉애’가 원하는 ‘여성’이란 매우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것지만 ‘봉애’가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가부장적인 시선을 내면화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 묘사를 살펴보면 그의 여성관을 납득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장애여성은 한국 사회의 고정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자기 검열의 기제로 삼는 규율적이고, 부정적인 성적인식을 드러내며, 한국 사회 전반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성이라고 여기는 ‘정상성’과 ‘남만성’에 기반한 성을 지향하고 있다(임해영, 2019). 이렇게 여성적인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 장애여성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여성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체적 손상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공미혜, 2007).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는 여성을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길 바라는 장애여성, ‘봉애’를 전면에 내세워 이야기를 이끌어 갔다는 점, 장애여성의 일상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장애를 타자화했던 한국현대소설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개별적 모델로 바라보며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진 점, 소설 속 ‘어머니’와 같은 비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을 낳았다는 이유로 비난 받고 ‘사랑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3. 교차하는 퀴어와 장애여성 — 「나뭇잎이 마르고」

2020년 초는 코로나19로 한국 사회가 무너지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난 시기였다. 2020년 12월 집단감염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격리는 탈시설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시기, 한국의 여성들은 텔레그램 미성년여성 성착취 범죄,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많은 여성이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차별을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김멜라의 「나뭇잎이 마르고」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바로 장애-여성-퀴어의 교차 담론을 소설로 담아낸 것이다.

김멜라의 「나뭇잎이 마르고」(2021)는 ‘예수’로 추정되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마가복음 11장 12-22절의 내용을 암시하는 도입부는, 지체장애가 있는 ‘체’를 ‘예수’, ‘저주받은 나무’라는 상징으로 설명하면서 그간의 한국문학이 장애여성을 각각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애인을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장애인관이다. 장애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의학은 비정상을 ‘고치는’ 기술로서 기적으로 대우받으며, 장애를 ‘치료받길’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된다. 반면 「나뭇잎이 마르고」는 ‘체’와 ‘대니’가 산을 타는 장면을 묘사하며 장애여성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도 신체 일부로 받아들인다. 도입부의 예수를 결말의 ‘할머니’로 바꾸며 새롭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점이 그

렇다.

동시에 도입부에 나타나는 ‘저주받은 나무’는 마가복음 11장 12-22절의 무화과나무를 은유한다.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증성 또는 무성적인 대상의 은유로 자주 사용되는 식물이다.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에게 저주받는 성경의 구절을 도입부에 가져온 것은 불행의 상징, 의학적 치료의 대상 또는 미신의 대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장애여성’의 특수성인 ‘무성(無性)적 존재’를 더한다.

흔히 장애인은 생물학적으로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의학적으로 ‘비정상’인 몸을 가지고 있기에 성적 욕구와 권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가정 또한 대중에게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순결을 강조하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표현 능력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해,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범주 모두에서 억압받는다(공미혜, 2007). 특히 재생산이 불가능한 신체라는 점은 장애여성을 묘사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나뭇잎이 마르고」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통해 이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독자의 시선을 임신할 수 없는 장애여성의 몸에서 신체 자체로서의 장애여성의 몸으로 돌리는 시도를 보여준다.

「나뭇잎이 마르고」의 담론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간다. 바로 장애여성과 퀴어의 교차다. 소설 속 ‘체’는 지체장애인인 동시에 레즈비언이다. ‘체’는 ‘양헬’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애정을 표하며 그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하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 이때 「나뭇잎이 마르고」는 한국소설에서 그러하지 않았던 장애의 두 가지 면모를 드러낸다. 하나는 장애여성이 퀴어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돌출되는 순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향한 동정과 친절의 껍질을 벗고 정상성 규범으로 편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장애와 퀴어는 오랫동안 의학의 관점에서 병리적인 문제로 해석되었다. 주류 장애 운동은 ‘장애가 있는 것만 빼면 정상’이라는 태도를 취해왔고, 퀴어 학계와 운동판도 성소수자의 특성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다양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장애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전혜은, 2018). 정상성을 인정받기 위해 장애와 퀴어는 각각 사회가 낙인찍은 ‘비정상’을 피하려고 애썼다. 장애와 퀴어 담론이 교차하며 사유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무지하거나 성적 욕구가 없다고 여겨졌던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장애여성이 퀴어일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은 「나뭇잎이 마르고」가 거의 처음이다.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가 장애여성의 성적 욕망과 성적자기결정권을 화두로 삼으며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수면 위로 올렸지만, 장애여성이 비장애남성을 선망하고 이성애적으로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그와의 사랑도, 섹스도 모두 비극적으로 실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김멜라의 소설에서 지체장애인 ‘체’는 장애를 둘러싼 이성애 규범을 돌파하면서 장애인의 몸을 둘러싼 새로운 성적 실천과 사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체가 원하는 건 예술과 신, 그 두 가지에 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자였다.  
차, 혹은 술을 마시며. 섹스는 상관없다고 했다. 섹스는 작은 것이라 했다.*

*—아니, 난 그것도 중요해요.*

양헬이 말했다. 청혼에 대한 거절치고는 지나치게 차가운 말이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뻐 생각에 앞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섹스는 작은 것이라는 체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아니, 섹스가 작은지 큰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양헬은 그렇게 말했다. 만약 체가 남자였다면 다르게 말했을까. 혹은 체가 좀더 평범한 여자였다면. 체가 아닌 대니였다면.

‘양헬’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를 따지기 전에 장애여성인 ‘체’와의 섹스를 상상하고 즉시 거부했다는 것은 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성애와 이성애적 삽입 성교가 규범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레즈비언의 사랑은 병리적으로 여겨지고, 섹스하지 않는 사랑은 더욱 이상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소설에서 ‘양헬’은 ‘체’의 청혼을 거절하는 순간, 장애인을 존중하는 비장애인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그가 속해 있는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로 돌아오는 이유다.

그러나 양헬은 체를 좋아했고 온전히 그녀를 믿었다. 만약 체가 남자였다면 혹은 다른 여자였다면 양헬은 그녀 앞에서 취하거나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체의 어떤 면은 양헬보다 크고 높았으나 신체적 힘은 양헬이 더 션다. 그 점이 양헬을 안심하게 했다. (...중략...) 그런 힘의 우위가 양헬에게 중요했다.

‘체’의 청혼을 거절한 순간, ‘양헬’은 자신을 둘러싼 정상성 규범과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 장애와 비장애의 권력 관계를 확인한다. ‘양헬’이 ‘체’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가 자신보다 약자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철저히 무성적이고 무해한 존재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서 있다는 묘사 뒤에는 장애-비장애의 권력 관계에서도 ‘양헬’이 ‘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소설은 이러한 ‘체’와 ‘양헬’의 관계성을 통해 장애와 귀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장애중심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독자에게 보여준다.

#### 4. 한국현대소설 속 장애여성 재현의 의미와 한계

2000년대, 한국에서 장애인권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문학 또한 한국문단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장애인 작가의 창작 활동은 계간지 ‘솟대문학’이 창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 비장애인 작가 또한 장애인의 생활을 상세히 그려내며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김경옥의 「당신의 수상한 근황」처럼 장애인을 여전히 사회적으로 지워진 존재, 발화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했다. 특히 당시의 한국현대소설에는 장애인의 비장애인 가족의 심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작품이 많았기에, 장애인은 비장애인 가족의 불행과 슬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고 말았다. 성적으로 무지하고 성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장애여성은 교차된 차별의 시각에서 더욱 ‘인물’로서 취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장애인문학은 사회적으로 희화화된 존재에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사할만 하다.

2010년대는 2000년대 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권운동이 사회에 가시화되면서 장애인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이 연구와 문학으로 이야기되던 시기였다. 이때 장애여성 담론이 함께 제기되었는데, 장애여성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섹슈얼리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문화적으로 부각되었다.

그중에서도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의 장애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성적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 여성성의 재현에 있어 다소 가부장적인 시선이 엿보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소설 속 장애여성은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구애하고 자신의 욕구를 말할 줄 알며, 그것을 실현시키려 온 힘을 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애인문학과 차이를 보인다.

2020년대 초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으로 한국의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날낱이 드러난 시기였다. 같은 시기 동성애 혐오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퀴어의 존재 역시 부각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김멜라의 「나뭇잎이 마르고」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장애여성과 퀴어의 교차 담론을 이끌어내며 한국의 비장애중심주의를 지적한 작품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불화했던 장애와 퀴어를 교차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당 작품은 장애인 문학 내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장애여성도 퀴어일 수 있다'는 것에서 교차 담론이 멈춘 점,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가려져 장애로 발생하는 장애인 개인의 고통은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V. 본문 - 대중콘텐츠

### 1. 현황분석: 2000~2020년대 대중 미디어 콘텐츠 작품을 중심으로

#### 1) 영화 〈오아시스〉: 성욕구, 로맨스의 대상 및 주체이자 피해자로서 장애여성의 고립과 노출에 관하여

2002년, 〈오아시스〉 첫 개봉 이후로 장애여성의 대중콘텐츠 등장, 그것도 주요한 인물이자 로맨스 서사의 여자주인공으로서 등장한 사례는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장좌혜경은 복지동향에 기고한 글에서 실제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전례없이 충격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선망, 그리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작품이었음을 드러낸다.<sup>8)</sup>

이창동 감독은 서울경제에 실린 인터뷰에서 “사랑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사랑만들기를 얘기하고 싶었다”<sup>9)</sup>고 영화 제작 비화를 밝혔으나, 장좌혜경이 진행한 질적조사의 참여자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에서도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던 공주의 모습을 이해하는 한편

8) 장좌혜경. (2004). 영화 '오아시스'와 장애여성 논쟁. 복지동향, 매체 비평(2004, 04), pp. 90-93.

9) [인터뷰]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HUXW69Y07?mobile> . (20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HUXW69Y07?mobile>.

으로 결국 공주의 상황이 장애여성을 끝까지 바보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한 감독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오아시스>는 장애여성 캐릭터를 통해 현실적 장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시도를 눈여겨볼 수 있으나, 결국 감독의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이 작품 내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기존의 틀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지적할 여지가 있다.

장애여성에 관한 담론에서 언제나 배제되지 않는 주제는 단연코 ‘성’이다. 남성 장애인을 다룬 영화 중 국내 사례인 <말아톤>이나, <7번방의 선물>, <괜찮아, 사랑이야> 등 해외 사례인 <포레스트 검프>, <레인맨> 등을 참고하면, 장애남성 주인공은 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취를 얻는 영웅 서사를 따르거나, 설령 로맨스의 대상으로 등장하더라도 이 <오아시스> 작품과 달리, 사랑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하여 장애를 얻는 서사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오아시스>에서 보여지는 장애여성 ‘공주’는 ‘중두’의 성폭행 미수 이후에도 중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에게 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 욕구를 가지고 있되 이를 의존적으로밖에 해소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공주’는 영웅성이나 주체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2002년도는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비보로 인해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권리신장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비슷한 시기 유입된 페미니즘 정서와 융합되어 장애여성에 대한 관심사 또한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때 <오아시스>의 개봉은 센세이션한 파급을 불러들였을 것이다. 2024년 최근까지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를 제외하여, ‘공주’의 캐릭터 이상으로 외적인 이질성을 보여주는 장애인 캐릭터는 쉽사리 등장하지 않았다. 그만큼 감독은 비록 의도는 진정한 로맨스의 성취라는 클리셰적인 서사에 목적을 두었더라도, 장애여성의 표출에 집중하는 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선례를 남겼다. 추후 장애인을 소재로 한 창작물의 지평을 확장한 작품으로서 이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a) 장애여성의 표현법: 성욕구나 본능적 감각에 관해 감추지 않고 솔직한 면모의 인물로 적극성을 가지고 표현

b) 비장애 판타지: 당시에 팽배했던 의료적 모델로서의 장애 관점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한계점 지적 가능

c) 장애의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다는 클리셰적 스토리: 시혜적 시선 유발할 우려

## 2) 영화 <오직 그대만>과 <도가니>: 2010년대 초 로맨스 클리셰를 위한 도구로서 장애여성 캐릭터의 활용과 억압, 그리고 2010년대 초 팩션 서사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생존자로서 장애여성(아동)의 창작 양상과 현실고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장애여성의 노출에 관하여

2002년의 <오아시스> 이후, 2010년대의 작품은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퇴보하거나 고착되어 있는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영화 <오직 그대만>과 <도가니>를 각각 선정하였다.

<오직 그대만>은 시각장애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로맨스 장르의 영화다. 이 작품은 장애인을 소재로 삼으면 으레 등장하는 창작물 속 스테레오타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넬슨(Nelson)이 제시한 7가지 장애 스테레오타입 중, ‘동정심을 유발하는 가련한 존재’와, ‘의존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획득하지 못

하는<sup>10)</sup>의 타입이 특히 두드러지는 인물인 여자주인공 ‘정화’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정화는 사고로 인해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중도장애인이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없던 장애를 갑작스럽게 얻게 되었다는 상실감과 절망, 두려움 등의 혼란을 겪는 과정이 으레 발생한다. 그러나 ‘정화’에게는 그러한 갈등하는 모습이나 현실적인 우울감, 체념의 정서보다는 ‘순수함’과 ‘가련함’이 노골적으로 묘사된다. 로맨스 클리셰에서 주어지는 카타르시스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화’를 통해 나타나는 <오직 그대만>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a) 장애로 인한 손상의 정도를 세간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게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정화’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안경 등의 보조기구나 안구의 혼탁조차 없이, 눈을 뜬 채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다. 이는 로맨스의 대상으로서 적절한 연민과 함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인위적 개입이다.

b) 남성의 관점에서, 남성의 판타지를 충족하는 대상이다. 극중 ‘철민’이 정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만큼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청초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구현한 듯한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다. ‘철민’의 구원 없이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성폭력의 위기에 처하는 등, 독자에게 일종의 답답함을 환기하는 민폐 여자주인공 클리셰를 부여하되 ‘장애’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c) 에이블리즘에 잔류하였다. 현재까지 제안된 장애의 모델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관계적 모델’. 이들은 각각 장애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나은 모델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다양성의 담론이 발전할수록 장애의 개선과 치유, 극복에 대한 인식은 희미해져 간다. 그 이유는 ‘장애’를 그 자체로 합리성과 독립성을 지닌, 다양성의 일부로 바라보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그대만>의 경우, 정화의 눈을 치유함으로써 철민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장치로 활용하였기에, 장애인을 소재로 삼은 만큼, 장애 당사자의 현실적 삶에 깊이 접근할 여지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감성적 자극에 집중한 전형적 로맨스 서사를 답습하였다. 이를 위해 에이블리즘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아쉬움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도가니>의 경우, 팩션 서사로서 실제 사건을 본 바탕으로 삼아 제작된 작품이니만큼 장애가 있는 삶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토대가 비교적 튼튼했을 것이다. 공분을 살 만한 사회의 비리 실태와 악행을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사건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나, 역시 우리 연구에서 앞으로 창작자와 시청자로 하여금 추구되어야 할 리터러시를 위해 지적해야만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황동혁 감독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노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11)</sup>고 작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는 생각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거나, 가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지나치

10) (재인용) J. A. Nelson, “Broken images : Portrayals of those with disabilities in American media”, In J. A. Nelson (Ed.), The disabled, the media, and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T : Greenwood Press. pp.1~24.

11) '도가니' 후폭풍/ 영화 '도가니' 황동혁 감독 인터뷰 . (20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109291151826054>.



게 치중하기보다도 사회의 억압과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연출하였다. 장애를 정말로 한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장애에 대해 리스크를 야기하는 사회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모델로서 장애를 바라보는 것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 구조가 보완하지 못하는 영역이 곧 장애라면, 그 안에서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담론은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가?

도가니가 바로 그러한 예시이다. 피해자라는 속성 안에서 장애아동, 특히 성욕의 대상이 된 아동들을 한 범주로 묶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로서 괴로워하고 항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 정확한 폭력 피해자의 프레임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된 장애 담론 및 창작의 영역에서 갖출 리터러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생각할 수 있다.

a) 폭력이나 차별, 억압과 같이 사회 구조적 결함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b) 부조리한 사회현실 고발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억압적 상황의 노출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 3) <우리들의 블루스>: 장애여성의 대중미디어 노출 방식과 2020년대 장애여성 담론의 정보 최신화를 통한 장애의 정의와 노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장애여성 캐릭터의 변모에 관하여

2020년대의 작품에서는 장애의 노출이 이전보다 적극성과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우리들의 블루스>가 그 예시로,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실제 장애 당사자가 배역을 맡아 연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흔히 '크리핑 업'이라고 하는, 비장애 연기자의 장애인 연기에 관해 제기되었던 불만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시도였다. <오아시스> 이후로 미와 보호본능, 비장애 판타지에서 벗어난 현실적 장애여성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않고, 곁들이 서사로 진행되었던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서사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회자될 만하다. 장애인의 진정한 다양성이란 일상성에서 드러나기 쉽다. 지금까지 주목받아왔던 장애인의 모습은 앞서 열거된 작품에서 보기와 같이, 장애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겪고, 반드시 치유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보상, 또는 성취를 얻는 서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장애여성 '영희' 인물은 장애를 이겨내지도, 무언가 성공을 거두지도 않는다. 다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한다.

드라마는 생동감 있는 영상적·감각적 묘사를 통해 극중의 서사가 제아무리 SF 장르일지라도 시청자로 하여금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TV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장애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실제로 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감소하며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을 장애인에게 적용하게 하였음을 허숙민 등의 연구에서 검증하였다.<sup>12)</sup>

12) 김미경. (2020).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본 조현병에 대한 인식과 회복의 내러티브 탐구 (pp. 151).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 VI. 결론: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 제안

마침내 다양성의 담론으로 접어들었다. 이 의견이 쌓이고 불어난다면, 장애가 가진 다양성 또한 확장될 것이다. 다양성은 곧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보편성에서 다양성을 찾아내는 것을 과제로 두고, 더불어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최종 창작 리터러시를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비교분석표를 만들었다.

### 1. 한국문학작품의 미래 콘텐츠 동향 추론 및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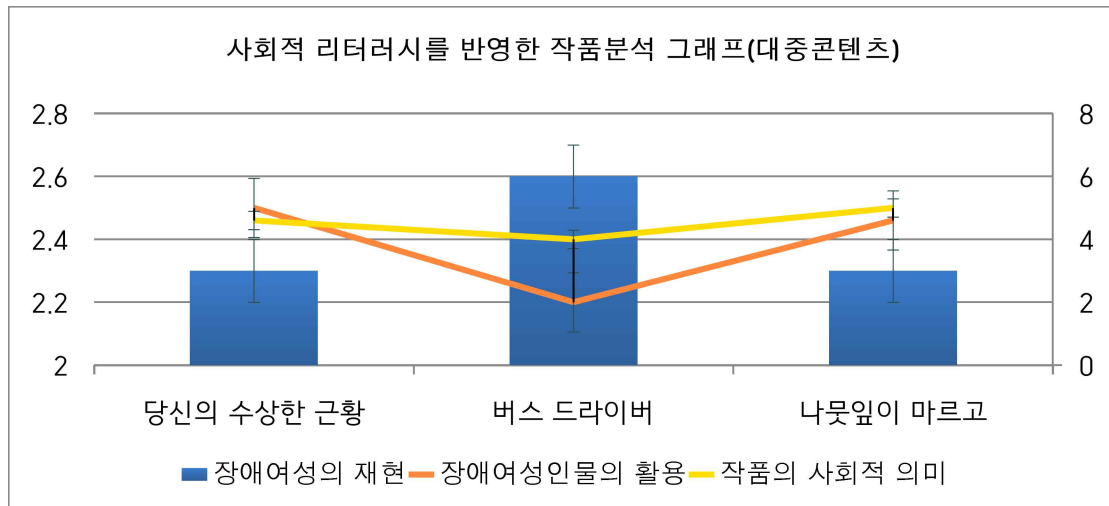
2020년대에 기대되는 미래 한국의 문학작품 창작의 방향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SF와 장애의 결합을 통해 에이블리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양한 몸의 체험과 정체성 탐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초엽의 「마리의 춤」(2022)은 이러한 한국문학작품의 미래 동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 단편에서는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병리적인 체험으로 구분했던 비장애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장애 여성이 몸의 체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마리의 춤」에서 시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여성 '마리'에게 '춤'이라는 요소를 결합하면서 비장애인이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 SF는 대중에게 장애여성이 몸으로 체험하는 기술과 고통을 상상하게 하면서 장애여성이 직접 자신의 몸을 설명하게 한다. 이는 기존의 '비발화' 인물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2020년에 들어 한국의 문학 장르 중에서도 SF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나뭇잎이 마르고」에서 보았던 장애-퀴어 교차성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기술-섹슈얼리티가 결합하여 한 사람을 구성하는 방식의 다양성 관점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표3] 사회적 리터러시를 반영한 장애여성 키워드 한국문학작품 레퍼런스 평가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
장애여성 의 재현	장애여성의 장애로 인한 한계상황 및 고난 재현 정도	〈버스 드라이버〉 〈나뭇잎이 마르고〉			〈당신의 수상한 근황〉	
	장애여성이 성차로 인해 겪는 차별의 재현 정도	〈버스 드라이버〉	〈나뭇잎이 마르고〉	〈당신의 수상한 근황〉		
	장애여성이 장애이자 여성으로 교차차별 받는 현실의 재현 정도	〈버스 드라이버〉 〈나뭇잎이 마르고〉		〈당신의 수상한 근황〉		
장애여성 인물의 활용	장애인물의 배역 배정 현황 1=주인공 2=조연 3=엑스트라					〈당신의 수상한 근황〉 〈버스 드라이버〉 〈나뭇잎이 마르고〉

	작중 장애여성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가?(진취성, 적극성 등)	〈버스 드라이버〉 〈나뭇잎이 마르고〉			〈당신의 수상한 근황〉	
	작중 장애여성의 배경서사는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가?	〈나뭇잎이 마르고〉	〈버스 드라이버〉			〈당신의 수상한 근황〉
작품의 사회적 의미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작품 속 차별적인 이야기, 발화		〈나뭇잎이 마르고〉		〈버스 드라이버〉	〈당신의 수상한 근황〉
	작품의 주제가 성차별/ 장애인 차별을 함의하진 않는가?	〈나뭇잎이 마르고〉	〈당신의 수상한 근황〉		〈버스 드라이버〉	

한국현대문학의 경우, 2000년대에는 장애여성을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로 바라보며 비장애인 가족의 불행을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대에는 장애여성을 성적 욕망의 주체로 바라보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요 화두로 작품을 창작했으며, 2020년대에는 퀴어와 장애여성의 교차성 담론을 기존의 페미니즘 담론과 연결지며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에 SF가 유행하고 몸과 기술의 관계성에 관한 탐구가 이어지면서, 장애-기술-몸-섹슈얼리티 등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를 결합하는 시도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기술-섹슈얼리티 등 세 가지 이상의 정체성을 함께 바라보며 장애인을 다각화하는 리터러시를 제안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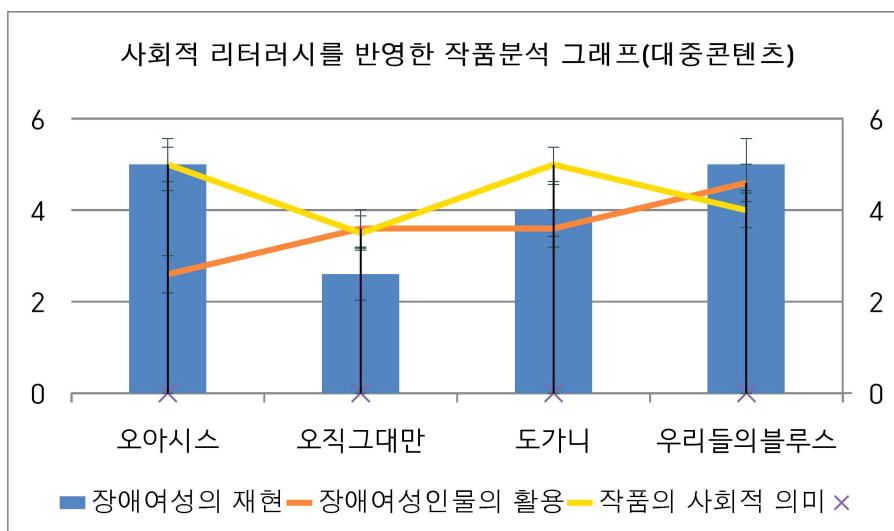
## 2. 한국 대중문화콘텐츠의 미래 콘텐츠 동향 추론 및 모델 제시

[표4] 사회적 리터러시를 반영한 장애여성 키워드 한국대중문화콘텐츠 레퍼런스 평가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
장애여성의 재현	장애여성의 장애로 인한 한계상황 및 고난 재현 정도	〈오아시스〉 〈도가니〉 〈우리들의 블루스〉		〈오직 그대만〉		
	장애여성이 성차로 인해 겪는 차별의 재현 정도	〈오아시스〉 〈우리들의 블루스〉		〈도가니〉	〈오직 그대만〉	
	장애여성이 장애이자 여성으로 교차차별 받는 현실의 재현 정도	〈오아시스〉 〈우리들의 블루스〉	〈도가니〉	〈오직 그대만〉		
장애여성인물 의 활용	장애인물의 배역 배정 현황 1=주인공 2=조연 3=엑스트라				〈도가니〉 〈우리들의 블루스〉	〈오아시스〉 〈오직 그대만〉
	작중 장애여성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가?(진취 성, 적극성 등)	〈우리들의 블루스〉	〈도가니〉		〈오직 그대만〉	〈오아시스〉
	작중 장애여성의 배경서사는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가?	〈우리들의 블루스〉	〈오직 그대만〉	〈도가니〉	〈오아시스〉	
작품의 사회적 의미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작품 속 차별적인 이야기, 발화	〈오아시스〉 〈도가니〉 〈우리들의 블루스〉		〈오직 그대만〉		
	작품의 주제가 성차별/ 장애인 차별을 함의하진 않는가?	〈오아시스〉 〈도가니〉	〈오직 그대만〉	〈우리들의 블루스〉		

작품 동향에 대해 사회적 리터러시를 반영한 평가표 각종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sns 플랫폼 등의

대중 반응과 평론가, 전문가 반응을 참고하였다.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오아시스> <도가니> <오직 그대만> <우리들의 블루스>의 작품들은 각 시대에 따라 작품성과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하여 변모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사회적 리터러시’란, 크게는 대중의 관점을 아우르는 개념이자 세부적으로는 평론가, 전문가, 지식인, 장애 당사자, 콘텐츠 소비자 등 계층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각 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개봉·방영 연도로 제한하여 포집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오아시스>: 장애여성의 재현을 상당히 잘해낸 작품이다. 다만 장애여성인물의 활용은 매우 미흡하였는데, 이는 여성장애인 권리의식 발달 초기의 시대성을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작품의 사회적 의미는 고평가된 지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대적 관점·리터러시에 안주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나 그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

2) 2010년대 <오직 그대만>: 장애여성의 실질적·현실적 재현이 아쉬운 작품이다. 장애여성인물의 활용이나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함의 표현 모두 부진한 작품으로, 이는 역시 앞서 분석한대로 클리셰로서 장애를 도구적으로 활용했다는, 소재 선정 및 활용의 책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서사에 비해 컸던 것으로 유추된다.

3) 2010년대 <도가니>: 장애여성의 재현 부분에 있어 강렬한 사건을 소재로 삼았기에 다소 편협해질 수 있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장애여성인물의 활용도 또한 피해자의 프레임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작품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폭력과 그 피해자의 대응 및 투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호소로 드러난다.

4) 2020년대 <우리들의 블루스>: 장애여성의 재현에 있어 2000년대 큰 파급으로 다가왔던 <오아시스> 만큼이나 유의미한 시도를 하였다. <오아시스>의 선례에서 보다 발전한 부분은 역시 장애여성인물의 활용으로, 그 일상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변인들과의 이야기까지 포괄적으로 풀어내는 서사 구성이 인상적이다. 다만 작품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에서, 작품의 주제가 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위

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인생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추후 창작될 작품들에게 전하는 함의는 곧 장애 당사자 중심의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것에 있다.

### 3. 총체적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 제안

#### 1) 현재 부족한 리터러시 유형인 다양성 포집 필요성

현재까지 돌아본 작품들은 장애여성의 창작에 있어 다양한 담론을 환기하였다. 한국문학작품의 경우 퀴어와 여성의 성적 정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담론에서 발전되어 다양성으로의 지향을 보이는 최근 작품의 함의까지 연구하였다. 대중문화콘텐츠는 대중에게 현실의 인식과 재고에 영향을 주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장애여성의 노출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중점적으로 두며 장애여성 담론화의 주제 중 장애여성 캐릭터의 활용, 서사 패턴, 사회적 함의를 위주로 돌아보았다.

다만 이러한 작품들을 창작하는 동향과 이를 읽어내는 대중과 사회의 반응, 즉 사회적 리터러시를 표의 예시로 설명하였듯, 장애여성 창작물이 현재까지도 고수하는 한계점은 분명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a) '장애여성' 개념의 해체 및 재해석 불충분: 현재까지의 창작물은 장애와 여성의 두 가지 특질을 모두 내재한 장애여성 캐릭터에 관하여, 각각의 특성을 적절하게 융합하기보다 노출과 강조를 통한 사회적 호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와 여성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창작물에 구현하기보다 '장애여성'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총체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해체와 재구성의 창작 동향 및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b)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대항하는 방식의 한계: 장애여성은 줄곧 장애와 여성 담론에서도 특성적인 것으로 구별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주목받거나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례나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결국, 사회에서 대중과 창작자들의 시야에 소외되어 온 사례로서 그 차별과 편견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곧 현재까지의 창작물 동향 및 대중의 리터러시에서조차 프레임 안에 갇히기 쉬웠다. 창작물 속 장애여성 캐릭터가 지닌 한계에서 발전한 사유를 앞으로 다양성 담론에서의 리터러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2) 총체적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의 기능과 함의

이를 통해 발굴하게 된 총체적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a. 장애의 의학적 모델 탈피와 사회적 모델의 보완

총체적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은 장애인을 생물학적 인식에 가둬놓고 개인의 한계에 국한하는 의학적 모델을 탈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사회적 모델과도 이어지는 동시에, 장애인 개인이 겪는 몸의 고통과 체험을 통한 정체성의 구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모델이 갖는 개인성의 문제를 한계를 보완한다.

##### b. 장애인 정체성 탐구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총체적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은 장애인이 장애-기술-몸-섹슈얼리티-고통 등 자신이 체험하는 다양한 몸의 경험을 정체성으로 연결 짓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장애인 개인이 삶을 체험할 때 겪게 되는 다양한 정체성의 변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더 나아가 인권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 다양성과 인권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장애인관

하나의 몸과 정신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몸을 상상하게 하는 총체적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은 콘텐츠 소비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장애인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는 사회 전반에 인권 가치를 지향하는 장애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3) 새로운 리터러시 모델의 후속연구 제안 및 시사점

결론지어, 우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의 새로운 리터러시 모델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a) 한국 SF 문학작품과 대중콘텐츠에서 드러나는 에이블리즘의 양상과 사이보그의 만능성에 관한 지적과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의 필요성: 의학적 모델의 한계를 중심으로 다양성 모델을 인정했을 때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낙인은 어떻게 지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

b) 장애의 소수자성 담론과 교차성 담론의 한계와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의 사회적 효과: 사회적 모델의 개인성 문제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다양성 리터러시 모델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후속 연구

c) 장애여성 캐릭터의 프레임 깨기 작업: 장애와 여성, 어느 쪽에도 국한되지 않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온전한 서사를 향유하는 중심인물로서 장애여성 캐릭터를 심도 있게 다룰 방법에 관한 연구. 앞으로의 장애여성 창작 동향과 이를 수용하는 대중의 리터러시를 본 연구에 이어 발전시키고, 구체적 계획을 짤 수 있는 후속 연구

d) 다양성 담론의 확장: 드라마 <무빙>의 초능력을 장애의 담론화 작업 등의 연구를 통해 인물들이 가진 다양성을 수용하는 개인적, 사회적, 총체적 방식을 고민하는 연구. 이를 통해 다양성의 의미로서 장애를 재해석하여 현재 고착된 장애의 정의를 자유케 하는 후속연구.

## 참고문헌

- 김기빈. (2013). 프로덕션디자인의 사회적 함의: 영화 <도가니>의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홍익대학교.
- 김미경. (2020).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본 조현병에 대한 인식과 회복의 내러티브 탐구. 사회과학연구, 36(2), 145-168. <https://doi.org/10.18859/ssrr.2020.5.36.2.145>.
- 김세령. (2015).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현대소설연구, (59), 217-255.
- 김은주. (2019). 제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1-32.
- '도가니' 후폭풍/ 영화 '도가니' 황동혁 감독 인터뷰 . (2011).
- 류정진. (2010).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옥란. (2023). 장애 재현의 주체 담론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장애학회지, 8(2), 42-65.
- 박흥근. (2017). 영화에서 재현되는 시각장애인의 이미지와 성차-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4(0), 423-451.
- 배화옥, 김성희. (200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 61-83.
- 신효진, 손신. (2011). 장애인, 진정한 자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장신논단, 41, 417-438.
- 오혜경. (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1(0), 27-74.
- 이은량. (2022). 한국 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2000년부터 2021년까지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대학교. [https://dcollection.pusan.ac.kr/public\\_resource/pdf/000000155412\\_20240810213206.pdf](https://dcollection.pusan.ac.kr/public_resource/pdf/000000155412_20240810213206.pdf)
- 장좌혜경. (2004). 영화 '오아시스'와 장애여성 논쟁. 월간 복지동향, (66), 90-93.
- 전혜은. (2023). 장애로부터 교차성의 방법론과 연대를 구체화하기. 한국여성학, (0), 189-194. (원저: Kafer, A. (2013). Feminist, Queer, Crip.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차희정. (2016). 장애인 창작 소설의 주제 변모 양상. 현대소설연구, (62), 405-431. <https://doi.org/10.20483/JKFR.2016.06.62.405>
- 황서아. (2024). 한국 영상 콘텐츠의 장애인 캐릭터와 스토리텔링 연구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우리들의 블루스>를 중심으로 -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중앙대학교. [http://dcollection.cau.ac.kr/public\\_resource/pdf/000000241578\\_20240810214319.pdf](http://dcollection.cau.ac.kr/public_resource/pdf/000000241578_20240810214319.pdf).
- J. A. Nelson, "Broken images : Portrayals of those with disabilities in American media", In J.A. Nelson (Ed.), The disabled, the media, and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T : GreenwoodPress. pp.1~24.
- [인터뷰]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HUXW69Y07?mobile> . (20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HUXW69Y07?mobile>.



Abstract

# Voic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roposing Literacy

## : Focusing on the Appearance Patterns and Disability Discours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n Literary

Kim Naeun\* Kim Sunjin\*\*

This study examines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content from 2000 to 2024,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these works, the study highlights their limitations and proposes a human rights-oriented literacy for creators and audiences. In literature, the portrayal of disabled women evolved from symbols of family misfortune in the 2000s to subjects with sexual rights in the 2010s, and further to complex identities intersecting with queer discourse in the 2020s. In popular culture, significant milestones include *Oasis*, *Always*, and *Our Blues*, which showcase a growing depth in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women.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past errors and propose value-centered literacy for more accurate and respectful portrayals. In the end, we intend to provide creators, readers, and viewers with a literacy system that can be expanded to the diversity discourse of future disabilities

**Keywords** : Women with Disabilities, Popular Culture Content, Modern Korean Literature, Sexual Awareness, Intersectionality Discourse, Diversity, Literacy

---

\*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Chung-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Chung-Ang University



---

---

---

---

---

대피시설에 대한 재해석  
:신체적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연구 7팀]

윤서연(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조영진(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권주현(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

## 대피시설에 대한 재해석 : 신체적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윤서연\* 조영진\*\* 권주현\*\*\*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인의 대피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훈련 및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대피시설 현황과 장애인의 대피시설 경험, 어려움 등을 증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와 심층인터뷰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불감증, 대피의 어려움, 재난 대응 개선제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 및 실질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대피시설 건축 시 편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셋째, 1인 가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 대피시설, 재난대응, 재난 훈련, 재난 정보

---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I. 서론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살포로 인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오물 풍선 내용물에는 기폭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생화학 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에 대응하여 대북확성기까지 활성화 해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 되고 있다. 시민들은 전쟁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숙지하고 있지 않던 대피시설 위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5월 30일 기준 많이 본 검색어, 지식백과에서 ‘민방공 경보 시 행동 요령’, ‘테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과 같은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의 제외하고도 2024년 3월 한 기사에 따르면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재로 인한 독거 장애인 사망 사례가 연달아면서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현행법에 규정된 피난설비의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재활에 따르면 작년 화재사고 사망자 중 비장애인 12.1%, 장애인 57.2%로 화재 위험도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 정도 더 높다. 이를 바탕으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입장의 대피시설 접근성과 피난설비 실용성이 낮고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피시설은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 여러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이다. 대피시설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제정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취약계층은 대피시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시도, 시·군·구 별로 대피시설과 이동 약자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를 기준으로 상위권 수원(120만), 용인(109만), 고양(108만), 화성(98만), 성남(93만)을 살펴보면 이동 약자가 접근할 수 없는 대피시설은 97.53%에 달한다. 즉, 대피시설 1,293곳 중 1,261곳은 이동 약자가 접근할 수 없으며 이동 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2.47%은 5개의 시도 중 용인시만 해당한다. 나머지 4곳의 시는 이동 약자가 100% 접근할 수 없는 대피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이다. 안산 단원구 0곳, 의정부시 0곳, 포천시 0곳으로 나타났다. \*\*

화성시청 사이트 내에는 대피시설의 정보만 나와 있을 뿐, 이동 약자 접근성 항목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다른 시도의 예시로는 창원이 있다.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의 조사에 따르면 창원 내 315곳 중 모든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된 대피시설은 0곳이었다. 경사로가 아예 없거나, 문제가 있는 곳은 50%였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의 대피시설 접근성이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아예 점자블록이 없는 대피시설은 96%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경보기가 설치된 대피시설은 3%에 불과했다.\*\*\*

이전 연구들을 찾아보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재난 시설에 이동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인의 대피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 경험,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김지은 (2024. 4. 11). 휠체어 타고 계단을? “불나도 집에 있어야”...장애인, 대피 꿈도 못 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1114380983054>. 2024.08.09

\*\*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피시설”. <https://www.safekorea.go.kr/>. 2024.08.11.

\*\*\* 화성시. “지진옥외대피시설 현황”. <https://www.hscity.go.kr/>. 2024.05.29.

## II. 문헌고찰

### 1. 장애인

#### 1) 장애인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인해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2항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총 15가지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란 신체의 외부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뜻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혹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뜻한다. 장애인은 1항에 따른 장애인 정의 중 한 영역이라도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장애의 세부 종류

장애인복지법 2항에 따른 세부 장애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1] 장애인 분류 및 기준

대분류	소분류	기준
신체적 장애인	지체장애인	팔, 다리 또는 몸통 기능을 잃거나 변형 또는 기형된 자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손상 등으로 동작 등에 상당히 제약된 자
	시각장애인	시력, 시점, 시야를 잃거나 기준보다 낮은 자
	청각장애인	청력 손실, 명료도, 평형 기능이 낮은 자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언어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신장장애인	신장기능으로 투석을 받거나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심장장애인	심장 기능부전으로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호흡기장애인	호흡기관의 기능부전으로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간장장애인	간의 기능부전으로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 변형·기형으로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를 시술해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뇌전증장애인	뇌신경세포 장애로 생활이 상당히 제약된 자
정신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능력이 불안전해 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자
	자폐성장애	자폐증에 따라 생활에 상당히 제약된 자
	정신장애	장애·질환에 따라 생활에 상당히 제약된 자

### 2. 장애인 이동권

#### 1)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1) 이동권

이동권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하지만 관련된 법과 선행연구를 미루어 보아, 이동권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 개념으로, 교통시설 등에서 이용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된다(김명수, 정재황, 2007).

(2) 장애인 이동권

①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권리이다(권진보, 1998).

②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해 이동하는 권리를 말한다(윤수정, 2023).

③ 장애인 이동권이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이동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는 감금된 상태이다(김정환, 2022).

④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장성수, 2024).

2) 법적 근거

(1) 장애인 이동권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의 권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의 유무, 성별, 종교 등에 따라 어떠한 영역에서도 배제 당하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동권 또한 동일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름없이 이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동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의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 제11조 평등, 제14조 자유의 내용으로 법적 뒷받침 한다.

[표-2]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적 근거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편의증진법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2) 관련 법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의해,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피시설 접근권은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이 아니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재난안전법 제3조 9의 3) 이들에게 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이 아닌, 생존 앞 무덤이 된다.

## 3. 대피시설

### 1) 대피시설 개념

대피 시설은 전시 또는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대피 시설은 정부지원으로 설치 되거나 공공용으로 지정된다. 즉 모든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설이다.

### 2) 대피시설 현황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대피시설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와 주요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피시설의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시의 단위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이동약자 접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의 이동약자 접근성이 보장된 대피시설(이하 ‘대피시설’)은 총 16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1.95%이다. 부산광역시의 대피시설은 1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0.196%이다. 대구광역시의 대피시설은 5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0.79%이다. 인천광역시의 대피시설은 6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1.16%이다. 광주광역시의 대피시설은 25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4.24%이다. 대전광역시의 대피시설은 3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0.404%이다. 울산광역시는 대피시설은 14곳으로, 전체 대피시설의 약 2.87%이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피시설”. <https://www.safekorea.go.kr/>. 2024.08.11.

[표-3] 전체 대피시설 대비 이동약자 접근성이 보장된 대피시설 비율

광역시	자치구(인구)	비율 (이동약자 접근성이 보장된 대피시설 수 / 전체 대피시설 수 )
서울특별시 (약 1.95%)	송파구(63.0만명)	약 1.65% (2/121)
	강서구(54.9만명)	약 2.37% (4/169)
	강남구(51.1만명)	약 3.14% (5/159)
	관악구(49.3만명)	약 2.51% (4/159)
	노원구(49.2만명)	약 0.58% (1/174)
부산광역시 (약 0.20%)	해운대구(37.0만명)	0% (0/115)
	부산진구(35.5만명)	0% (0/89)
	사하구(29.8만명)	0% (0/80)
	북구(27.0만명)	약 1.01% (1/99)
	동래구(26.5만명)	0% (0/125)
대구광역시 (약 0.79%)	달서구(53.9만명)	0% (0/199)
	북구(43.0만명)	0% (0/144)
	수성구(39.6만명)	약 5.32% (5/94)
	동구(33.5만명)	0% (0/103)
	달서군(26.7만)	0% (0/93)
인천광역시 (약 1.16%)	서구(62.1만명)	약 3.74% (4/107)
	남동구(50.0만명)	약 0.79% (1/127)
	부평구(49.8만명)	0% (0/102)
	미추홀구(41.4만명)	0% (0/108)
	연수구(40.8만명)	약 1.39% (1/72)
광주광역시 (약 4.24%)	북구(43.2만명)	약 1.36% (2/147)
	광산구(41.7만명)	약 25.37% (23/134)
	서구(28.4만명)	0% (0/100)
	남구(21.1만명)	0% (0/122)
	동구(11.2만명)	0% (0/86)
대전광역시 (약 0.40%)	서구(46.9만명)	약 0.71% (2/280)
	유성구(37.9만명)	약 0.86% (1/117)
	동구(23.0만명)	0% (0/109)
	중구(22.0만명)	0% (0/88)
	대덕구(17.1만명)	0% (0/149)
울산광역시 (약 2.87%)	남구(30.8만명)	약 1.72% (2/116)
	울주군(22.3만명)	0% (0/56)
	북구(21.4만명)	약 11.32% (6/53)
	중구(20.3만명)	0% (0/152)
	동구(15.7만명)	약 5.36%(6/112)

### Ⅲ. 연구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풍부한 맥락과 과정 등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심층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등을 개별 단위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 방법을 통해 복잡한 인간 행동·심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김영중, 2023). \*

대인 면접조사는 조사자와 응답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응답자의 답변은 자료 수집의 중점이 된다. 면접조사는 조사 진행이 유연해 명확하고 깊은 응답을 얻어내며,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 변경또한 가능하다. 또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에게는 면접조사가 적합하다. 더불어 다른 조사방법보다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본 연구는 대인 면접조사의 세부 연구 방법 중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심층면접법을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FGI는 면접 진행자가 다수의 응답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면접조사 방법이다. 면접 진행자는 응답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고 진행하며, 심층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응답자의 생각, 심리 등을 심도 있게 알 수 있어, 탐색조사까지에도 이용된다. 심층면접법은 일대일 면접으로 심리, 생각, 태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방법이다. 일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김영중, 2021)\*\*

신체적 장애인의 대피시설 인식과, 재난 시의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해당 연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신체적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내의 지체장애인협회, 종합사회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연락하여,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았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기준에 속한 신체적 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신체적 장애인은 총 9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인터뷰의 내용과 녹음본은 익명성 보장 및 비밀 보장되며 연구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인터뷰 진행 도중 민감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김영중 (2023). 사회복지조사론. 제2판. 학지사.

\*\* 김영중 (2021). 사회복지조사론. 학지사.

[표-4]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이동 보조기구
A-1	남	30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인	시각	중증	후천적	지팡이
A-2	여	50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1인	지체, 뇌병변	중증	후천적	전동 휠체어
A-3	여	50대	경기도 화성시	4인	지체	경증	후천적	X
A-4	남	20대	경기도 화성시	5인	지체	경증	후천적	X

[표-5] FGI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이동 보조기구
B-1	남	50대	경기도 화성시	1인	지체	중증	후천적	X
B-2	여	50대	경기도 화성시	4인	시각	경증	후천적	X
B-3	남	50대	경기도 화성시	1인	지체	중증	후천적	전동 휠체어
B-4	여	50대	경기도 화성시	4인	뇌병변	중증	후천적	전동 휠체어
B-5	남	50대	경기도 화성시	1인	지체	중증	후천적	전동 휠체어

본 연구는 2024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FGI는 1회, 심층면접법은 4회 실시되었다. FGI 경우 1시간 내외로 소요되었고 심층면접법은 개인별로 40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하여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접근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 2명에서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질문 내용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인식”, “재난 상황에 대한 경험”, “앞으로의 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필요 요소”로 구분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인터뷰 참여 동의서 및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고 시작하였으며, 해당 녹음본은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분석방법

인터뷰를 마친 후 녹음된 파일을 반복 청취하여 텍스트로 전사하였고, 전사된 텍스트 역시 수차례 회독함으로써 인터뷰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주제와 의미 있는 내용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주제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를 분류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전사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서로 의견을 나눠 협의하였고, 전사된 내용 중 모호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녹음 파일을 재청취하여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기 위해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의 자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6] 주제분석

주제	하위주제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하다고 느낌. 긴급재난문자 알람에 무관심함. 대피시설과 관련된 지식이 전무함.
대피의 어려움	중증 장애인일수록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 접근조차 어렵다고 느낌. 대피 시 활동지원사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음.
재난 대응을 위한 제안	재난 안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재난 발생 시 신체적 장애인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함. 재난 대응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함.

## IV. 연구결과

### 1.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 1)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하다고 느낌.

본 연구에 참여한 신체적 장애인 9명 중 4명은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나머지 5명은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바 있으나, 제공된 교육 및 훈련이 화재 대피훈련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특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긴급하고 심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훈련 과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소방 대피 훈련같은 경우에는 바쁘게 이동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B-4)*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벽을 짚고 몸을 낮춰서 한쪽으로 돌아라 그런 거는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훈련이 굉장히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인가? 실제 웃어가면서... 이런 느낌은 받아요. 병원은 심각성을 띠고 훈련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참여하시는 일반분들은 뭔가를 하지만, 훈련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머리에 남기만 하면 다행인 것 같아. (연구참여자 A-3)*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의다 형식적입니다. 사이렌만 울려놓고 나가세요라는 방송을 해요.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운행 할까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실내로 올라오셔서 대피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3층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화재 났을 때 거의 못가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 진짜 실제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근데 장애인들 중 어떤 분들은 비상벨이 울리든 말든 안 나가세요. (연구참여자 B-3)

## 2) 긴급재난문자 알람에 무관심함.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평상시 긴급재난문자의 알람을 비활성화하거나, 문자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들은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재난을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문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꺼냈거든요. 우물 풍선이 날아온다는 거는 뉴스로만 들었고요. 재난 문자로는 못 들었어요. 이게 웬지 남의 얘기 같고 나한테 설마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A-1)

재난 문자를 따로 받지 않고 꺼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난 문자에서 오물풍선과 같은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문자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침공이 있다든가 미사일 폭격이라든지 뉴스 속보나 이런 걸로 알려지는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3)

내가 사는 곳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사는 곳이면 뉴스를 찾아보긴 해요. (연구참여자 B-2)

심각한 재난 문자는 받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확인만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생각만해요. (연구참여자 B-3)

## 3) 장애인의 생활권 내 재난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대피시설을 생각할 때 지하 주차장, 학교 운동장, 식탁 밑, 방공호 등 다양한 장소를 떠올렸다. 그러나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하자, 대다수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지하 시설만을 떠올렸다. 또한, 이동약자가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에 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지금 정보를 처음 알아가지고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한데 일단은 제가 독거 장애인이다 보니까 위치를 모르잖아요. 집에서 출발해서 어떤 식으로 거기까지 간다... 어디쯤에 있고 가면 도착해서도 거기 이제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한 번씩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A-1)

대피시설이 어디있는지 잘 몰라요. (연구참여자 A-2)

지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하가 반쯤은 바깥으로 통해있으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대피할 수 있겠네요. (연구참여자 A-3)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고, 복지관에서도 야외에서 대피하라는 것 밖에는 알고 있는 건 없어요. (연구참여자 B-3)

## 2. 재난 발생 시 대피의 어려움

### 1) 중증 장애인일수록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 접근조차 어렵다고 느낌.

경증 장애인이고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다 대답하였다. 반면, 중증 장애인 참여자들은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며 점자블록, 완만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없으면 대피가 불가능하였다.

여기 하계동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이 어떻게 갈라져 있을지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디가 어떻게 금이 가고 파손이 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 혼자일 때는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 진짜 대피소의 위치를 알고 있어도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을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딛던 땅을 내가 조심조심 가야 되잖아요. (연구참여자 A-1)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못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또한 완강기가 아파트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B-1)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경증이신 분들은 걸을 수가 있어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2층 이상에서 계실 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됩니다. 그럴 때는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경사로가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솔직히 장애인들은 완강기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는 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난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연구참여자 B-3)

## 2) 대피 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음.

연구 참여자 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체적 장애인은 단일 활동 지원사의 도움만으로는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서로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활동 지원사가 본인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기 메이트니까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챙겨서 뭔가를 하긴 할텐데, 과연 재난 발생 시 휠체어를 버리고 몸으로 장애인을 챙겨서 장소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활동보조사가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케어하고 있는 장애인은 190cm의 건장한 남성이고, 나는 155cm의 50kg 여자야. 그러면은 휠체어를 밀 수는 있지만, 계단에 막혔다든가 휠체어를 굴릴 수 없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밖으로 연결되는 미끄럼틀이 설치가 돼 있어도 거기까지 들어서 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분들도 내 파트너 케어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3)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장애인은 일반인 혼자서 장애인 한 명을 못 데리고 가요. 최소한 두세 분 이상이 도와줘야 장애인이 이동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한테 의자가 가능해서, 이동이 가능하면 상관없는데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부축받고 걸을 수는 있지만 휠체어 자체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린이와 같은 경우는 안고 내려갈 수 있지만 성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참여자 B-3)

## 3. 앞으로의 재난 대응을 위한 제안

### 1)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대응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피 훈련을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피 훈련도 많고, 훈련하면 뿌듯했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훈련이) 없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비상벨 오작동이 많아서 비상벨이 울려도 “아 또 오작동이구나” 인식이 변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A-2)

매번 비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 정기적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어요. 7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는 소방 훈련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한번씩만 경험을 해도 충분히 인식이 되고 좋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1)



전체 다 움직일때, 12명이 다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건이 안돼있죠. 장애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B-5)

## 2) 재난 발생 시 신체적 장애인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함.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이나 자택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부로 대피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되며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대피가 불가능하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사로, 완강기, 대피용 미끄럼틀 등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 대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혼자 사는 경우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가족이나 누가 같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멘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긴해요. 주민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거주 장애인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냥 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안내자를 보내준다는가 아니면은 연계해서 근처 소방시설이나 경찰이어나 이런 데 같이 해서 한다든가...(연구참여자 A-1)

저는 일방적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화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장애인은 계단으로 대피를 못해요. 그리고 베란다로 옮겨가서 리프트로 옮기는 것도 힘든 얘기라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원형이나 튜브 형태의 미끄럼틀이 차라리 있으면 그대로 밀어 넣으면 일단 내려가긴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건물에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또 바깥쪽으로 따로 만든다는가 이거는 말이 안되고, 그다음에 일반 경사로만 만들어준다? 그러다가 뿔겨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원형의 그런 튜브 터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끔 해봤어.(연구참여자 A-3)

장애인이 리프트 차량에 탑승할 때 한 명 탈 때마다 한 5분에서 10분 거리 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대피할 때 조금 뭔가 편리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4)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지가 검증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쉽게 말해서 “대피 어디로 하실거예요?”라고 그러면 전부 다 지하로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갈 때 승강기가 안되면 못 내려가는 거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설치하면 좋겠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B-3)

제일 시급한게 경사로죠. (연구참여자 B-5)

### 3) 재난 대응에 관련된 홍보가 필요함.

연구 참여자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동 약자가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재난 대응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며,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잘 돼 있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확히 어디로 뭘 검색해야 될지... 대부분 영어로 써져 있다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연구참여자 A-2)*

*이제 설문으로만 끝나지 말고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솔직히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대피소로 갈 수 있게끔,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실천을 해 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B-1)*

*일단 대피소의 위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B-3)*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앞서 다룬 표적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법 분석결과, 현재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피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해 있으며, 정부 및 개인들이 재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대응 방안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피 정보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전 취약계층 보호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대피에 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다.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가파른 경사, 계단, 높은 난간 등으로 인해, 위협에 처하거나 대피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서로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며 대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대응의 홍보 확대, 이동권을 편의시설,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재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재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제안된 해결책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소방기본법 제17조]는 시설 내 장애인 및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만 재난안전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재난 대응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난 상황별,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 및 반복 훈련을 통해, 재난 대피를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비상벨이 울려 맹목적으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피시설 건축 시 편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재난 상황은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며,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욱 중요시된다. 그러나 현재 이동약자가 이용가능한 대피시설을 찾기가 어려우며 매우 극소수이다. 심지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접근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피시설 이동을 막는 문턱, 계단, 높은 난간 등 물리적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모든 장애인이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장애인 로고 대피시설 안내판과 휠체어 리프트, 완강기, 대피용 미끄럼틀 등 비상용 기구와, 점자블록, 청·시각 안내 장치,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용 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1인 가구 장애인을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장애인은 다세대 가구에 비해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적절한 재난 대비와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11.0%에서 2020년 2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 위급 상황 시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매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들이 재난 대응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 대피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생활권 내 대피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피시설을 잘 알지 못하며, 정보를 검색할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홍보 부족은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는 장애인의 대피 정보 접근성 향상과 홍보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2.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재난 인식 및 이동권을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재난 인식과 이동권을 중점으로 재난 대피시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신체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의 재난 인식과 이동권을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장애인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후속연구에선 더욱 다양한 장애 유형의 연구 대상자를 포괄해야 한다. 장애 유형별 재난 인식과 이동권을 파악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난 대응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 정량조사가 필요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https://www.mohw.go.kr/>. 2024.08.10.

하다. 일반성을 확보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신뢰있는 재난 대응 접근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추후 연구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며, 정량적 연구를 통해 데이터의 일반화 가능성 높일 것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피시설”. <https://www.safekorea.go.kr/>. 2024.08.11.
-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행동요령”. <https://www.safekorea.go.kr/>. 2024.05.29.
- 권건보 (1998).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명수, 정재황 (2007).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 105-130.
- 김영중 (2021). 사회복지조사론. 학지사.
- 김영중 (2023). 사회복지조사론. 제2판. 학지사.
- 김정환 (2022). 장애인이동권 그 당연함의 조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통권 제 40호, 221-230.
- 김지은 (2024. 4. 11). 휠체어 타고 계단을? “불나도 집에 있어야”...장애인, 대피 꿈도 못 꾀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1114380983054>. 2024.08.09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https://www.mohw.go.kr/>. 2024.08.10.
- 윤수정 (2023).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 24권 제2호 27-56.
- 통계청 (2024) 경기도 시군별/연령별 주민등록인구.<https://kosis.kr/index/index.do>. 2024.08.11.
- 화성시. “지진옥외대피시설 현황”. <https://www.hscity.go.kr/>. 2024.05.29.
- 화성시. “화성시사회조사 보고서(2023)”. <https://www.hscity.go.kr/>. 2024.05.29.

# Reinterpretation of Evacuation Facilities : Focusing on the right to move physically disabled people

Yoon Seoyeon\* Jo Youngjin\*\* Kwon Joohyun\*\*\*

This study aims to increase the right to move and improve training in evacu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current status of evacuation facilities in major cities, experiences and difficulties of the disabled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physically disabled people, and 9 people were conducted using a mixture of FGI an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safety insensitivity and difficulty in evacu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improvements propos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practical repetitive training tailored to disabilities are needed. Second, it is mandatory to install convenience facilities in evacuation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in the community for the disabled in single-person households.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it easy to access information on disaster response.

**Keywords:** disabled persons, mo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vacuation facilities, disaster response, disaster training, disaster information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

---

---

---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반한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재해석에 관한 연구

[연구 8팀]

장윤아(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4학년)

소원희(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4학년)

신채은(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4학년)

---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반한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재해석에 관한 연구

장윤아\* 소원희\*\* 신채은\*\*\*

이 연구는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상징의 재해석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장애 상징의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대학교 사회복지계열과 특수교육계열에 재학 중인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D대학교 입학 전·후로 장애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이들이 생활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장애 인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사례연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D대학교에 입학한 후 장애친화문화와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장애 상징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D대학교 재학생의 장애 상징 재해석을 다른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애'의 자기개념과 장애정도, 장애 기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과의 직접적 사회적 상호작용은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장애, 상징 대상,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D대학교, 지역사회 이동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 I. 서론

2007년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024년 현재 약 1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시위 사건(KBS 뉴스, 2023.05.16.), OO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JTBC, 2020.12.01.), 고등학교 3학년이 자폐성 장애를 성추행한 사건(경기일보, 2024.05.27.) 등은 여전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공존하기 위한 역량이 낮음을 의미한다(이태현·김정석·정하영, 2020).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에 주목한 것은 비장애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내에 장애친화문화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안명숙, 2016).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 접근방법을 통하여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을 시도하였다. 교육대상자의 특성(성별, 연령대)을 고려한 교육 방법의 차별성을 강조하거나(고용규·박보람, 2013) 교육전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김미옥 외, 2021). 또한 미술치료나 그림동화를 활용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이수경·박경빈, 2020; 황민주·오종은, 2023). 다음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는 미디어를 통한 제한된 정보전달이므로(김성용, 2022) 장애인과 직접 상호작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는 것이다(김예성·하용용, 2021; 안명숙, 2016). 교육 접근방법과 상호작용 접근방법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두 접근방법 모두 지역사회 내 형성된 장애 상징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은 예비 사회인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이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대학생이 사회통합모델에 가까운 장애 상징을 갖게 될 경우 미래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Kim, 2001),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장애친화대학이라고 평가받는 D대학교 재학생이 지역사회 이동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해석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이론을 활용하여 D대학교 재학생이 지역사회 이동에 따라 사회집단과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장애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하는지, 장애 상징을 어떻게 자기개념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상징 변화과정에 대해 재해석하여 지역사회에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라 장애 상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D대학교에서 장애 대상과의 직접적 상호작용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에서 장애의 상징과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인간을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해석하고 정의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정의한다(Mead, 1934). 인간은 능동적이지도 사회적 존재이기에도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학습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하는 자기는 'I'와 'Me'로 구성되어 있으며 'I'는 내가 바라보는 나, 'Me'는 사회적 행위 안에서 들어오는 나를 의미한다. 'I'와 'Me'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구성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 상징은 특정한 대상<sup>1)</sup>을 대표하는 의미나 생각, 신념 등을 전달하는 상호작용의 수단이다(Mead, 1934). 의미있는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가 공유되고, 서로 적응적 행동을 교환하여 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징'의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개인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인간의 능동성, 사회성을 강조하므로 상징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개인이 자기개념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Charon, 2007; McCall, 2013). 즉 개인과 사회집단의 반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I'와 'Me'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자기개념에 따라 상징이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상호작용의 주체인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장애라는 상징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개인이 상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므로 개인이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장애 상징화를 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에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회구성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연대감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사회를 의미한다(Netting et al., 2008).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통요소에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구성원, 공동의 연대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다양한 대상들과 사회적 상호작용하며 특정 상징에 대해 공유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 상징은 다양한 대상과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지역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장애에 대한 자기개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이 자기개념화한 장애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약 76.2%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며(한국교육개발원, 2023), 이는 대학교의 위치에 따라 기존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지역사회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만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학문화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되

---

1)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 대상(object)은 인간의 행동이 지향하는 사물, 사람, 추상적 관념이나 상징 등을 의미하며, 대상의 의미는 사람들이 대상을 향하여 취하려는 행동방식을 뜻한다(김문근, 2016).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 대상은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과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로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상징을 확인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다. D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친화' 대학교로서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학생이 D대학교에 재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박경옥·이동석, 2021). D 대학교에 많은 장애학생이 재학한다는 것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과의 사회적 상호작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애와 관련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의실, 기숙사, 축제 등 대학교 내 다양한 장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장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D대학교의 특성은 기존에 개인이 생활하던 지역사회 내에서 가진 장애의 상징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이 대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상징이 변화될 수도 있다. 또한 D대학교에 재학하는 과정 중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방학이나 졸업 이후에 생활할 지역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담론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생활하던 지역사회에서의 장애 상징화 과정과 D대학교에서의 장애 상징화 과정, 다시 개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로 돌아갈 때 장애 상징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상징화 및 해석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장애'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은 장애 현상의 실질적인 반쪽이기 때문이다(안명숙, 2016). 또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갖게 되면 장애인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지므로(Thorncroft et al., 2016), 비장애인이 사회통합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송승연, 2024). 따라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다.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교육접근과 상호작용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접근에는 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있는데, 성별에 따라 체험교육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므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용규·박보람, 2013). 교육대상자 연령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고용규·박보람(2013)은 중고등학생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보다 사회진입 시기가 빠르므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황선혜·조운경(2014)은 영유아기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까지 이어지므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육접근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한다. 김미옥 외(2021)는 교육전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장애 당사자가 교육하는 것이 비장애인 교사가 교육하는 것보다 장애인식개선 효과가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김하늘 외(2019)는 교사 중심 교육보다는 거꾸로교실을 활용한 학생 주도형 교육방식이 장애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미디어교육 방식은 장애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림책이나 미술치료를 통하여 비장애인의 장애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이수경·박경빈, 2020; 황민주·오종은, 2023). 교육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교육도구를 활용할 때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의 날과 같이 특별한 날에 실시하는 의무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 효과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장애인의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증가해야 하며, 비장애인 간의 관계에서 장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예성·하용용(2021)은 의왕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발달장애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명숙(2016)은 장애학생도우미는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위계적 인식에서 공동체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밝혔으며, 김성용(2022)은 정신장애인과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들 연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장애수용을 높이거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D대학교의 커뮤니티에서는 안명숙(2016)의 연구와 다르게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거나 의료적·개별적 모델을 적용하고 있어(김주옥·염태산, 2022; 이태현·김정석·정하영, 2020)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없거나 이들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따르면 '장애' 상징은 개인과 사회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개인이 교육이나 미디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대상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된 '장애' 상징이 사회통합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장애 상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D대학교 재학생은 고등학생까지는 장애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장애문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중등 교육과정까지는 정기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님과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별로 '장애' 상징을 형성하였다. 장애친화대학교로 평가하는 D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다양한 장애인 문화를 경험하며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4년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이 실제 개인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유지 혹은 확장이 된다면 지역사회는 사회통합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상징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라 장애 상징 변화 과정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 장애 인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교육이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 상징 변화를 시도하나 지속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여 D대학교 재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사회복지계열학과에 재학 중이므로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많으며, 사회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은 D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장애친화적인 요소

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열이나 특수교육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적연구의 표본 선정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장애인 상호작용 경험 유무 등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의도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Creswell, 2018).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개인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D대학교 인근에서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는 연구실에서, 본가에 있는 경우에는 ZOOM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평소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 대상과 상호작용 경험, D대학교에서 장애와 관련한 경험 등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대상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전사 후 연구자들이 공유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뷰에서 나온 장애와 관련한 중요한 키워드와 사건을 우선 분류하고 D대학교 입학 전후로 지역사회 이동을 시간 순서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년, 전공, 성별, 지역,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경험 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명단과 일반적 특징**

번호	이름	학년	전공	성별	지역	D대학교 진학 전 장애인 상호작용 경험
1	주OO	2	사회복지계열	남자	대구광역시	X
2	박OO	2	사회복지계열	남자	경북 구미시	고등학생 때 장애학우
3	김OO	2	사회복지계열	여자	대구광역시	X
4	이OO	2	특수교육계열	여자	경북 김천시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음
5	노OO	4	사회복지계열	여자	경남 창원시	가족 내 장애 형제 있음
6	소OO	4	사회복지계열	여자	제주특별시	X

## IV. 연구내용

### 1. 개인의 생활지역에서 나타나는 불명확한 장애 상징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 창의성을 인정하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는 개인이 태어났을 때 지역사회 내 실재하는 다양한 대상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징'에 대한 자기개념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장애 상징에 대한 자기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어떠한 대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자기개념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를 피했던 요소나 상황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중략) 부모님과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은 없어요. 티비나 다른 곳에서 장애를 접하고 나서, 제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기면 그냥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주OO).*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아빠는 같은 사람이니 알아서 한다. 엄마랑 누나는 간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지켜봐라. 너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세요(박OO).*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종종 장애가 있다보니 혼자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을 보고 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좀 존중의 의미를 가져요(노OO).*

주OO의 경우 장애에 대해 가족과 대화를 나눈 경험은 없지만 티비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장애 상징을 가지는 반면, 박OO과 노OO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가족이나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자기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장애 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면 장애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유치원에서 배웠던 게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고, 중학교 때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어요. (중략) 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초등학교 때도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박OO).*

*‘참 교과서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통해 그렇구나.라고 넘기지만, 사실 장애인과*

의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이 손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노OO).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적용하면, 그 장애인분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중략)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소OO).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가 교육받았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전달자가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상적인 모형을 지향하거나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 없이 이론적인 교육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인지기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대상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반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에 대한 상징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라는 상징은 존중이 아닌 배려, 공존보다는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장애’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질지라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불편한,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장애’에 대한 상징은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 2. 장애 유토피아와 상징의 균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 주체인 다수의 사회집단과의 적응과정에서 상징은 생성, 유지, 변화한다. 기존의 장애 상징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이동할 경우 새로운 사회집단과 개인은 상호작용하게 되며 개인이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화와 관습, 사회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 상징은 변화할 수 있다. D대학교라는 지역사회는 개인에게 기존과 다른 장애 상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D대학교에서는 기존 지역사회에서보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이는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착화된 장애 상징에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D대학교는 장애친화 시설, 장애친화 축제 등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과의 팀활동 등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D대학교의 장애 상징에 따른 사회적 기대를 지각하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자신이 느낀 의미와 심리



내면에 자기개념으로 축적한다(김문근, 2015).

*시설이나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사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여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나가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중략)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많이 본 경험이 없어요. 봉사활동 간 곳이 아닌 이상. 근데 학교는 오르막길도 없고, 수업도 일반 학생으로 출석 다 부르고, 도우미도 있으니 아무래도 활동하기 좋을 거 같아요. 여기서 는 우리가 마음껏 공부를 하든 틈플을 하든 밥을 먹든 괜찮으니까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유명한 학교이다 보니 더 몰린 거 같아요. 지역사회는 진짜 본 경험이 없어요(김OO).*

*D대학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시설 같은 것도 점자라던지 비탈길이라던지 경사면이 학교에 다 있다거나, 학교 문에 문턱이 없다거나 이런 게 다 학교의 배려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 같기도 해요. 학교의 상황에서 더 쉽게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중략)(노OO).*

D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한 환경이 지역사회보다 D대학교가 낫다고 평가한다. 연구참여자는 D대학교가 장애인을 위한 환경적 조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역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즉 기존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D대학교를 재학하면서 기존보다 장애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역량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D대학교 장애인을 위한 환경은 장애학생의 입학율과 재학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비장애인학생과 장애학생이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장애 상징에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른 학생들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서 수업을 아예 안 듣거나 수업에 방해된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주OO).*

*제가 들은 수업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중간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자기를 때린다거나 이런 수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함께 수업을 듣는지도 몰랐던 거 같아요. (중략) 그냥 이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랑 같은 사람으로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고 크게 문제도 되지 않아서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노OO).*

*원래 같으면 뭔가 특수하게 애(장애학우)는 해야 할 일을 조금만 준다거나, 발표를 안 하*

게 한다거나 그랬을 텐데 오히려 조사도 같은 분량으로 하고, 발표도 도와달라 하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비장애학생과 했을 때와 차이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장애학우와 함께 수업을 들었을 때 더 좋았거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참여하려고 해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김OO).

비장애학생이 수업시간을 통하여 관찰하게 되는 장애학생의 수업태도, 팀프로젝트, 학과 생활에서 장애학생과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기존의 장애 상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D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나 '신경 써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업, 팀프로젝트, 동아리활동 등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팀프로젝트 내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시선으로 변화하게 된다.

D대학교라는 지역사회는 장애학생을 위한 제도나 환경이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한다. 강의실이나 기숙사, 팀프로젝트 등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은 장애학생의 자립성과 주도성 등을 재평가하게 되며, 이는 비장애학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장애 상징에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기존 지역사회에서 형성되고 고착화된 장애상징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장애와 관련한 대상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대상을 향하여 기존의 의미와 불일치하는 새로운 행동으로 전개되면 장애 상징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되고 정립될 수 있다(김문근, 2015).

### 3. 장애관의 확장과 타협 시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는 개인은 사회집단과 사회적 상호작용하면서 다수의 합의를 통해 생성된 상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징에 대한 개인의 자기개념화가 일어나게 된다. D대학교의 연구참여자는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장애인의 고착화된 상징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징을 바탕으로 자기개념을 변화시킨다. 즉 D대학교에서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연구참여자가 '장애' 상징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앞으로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경증, 중증 이렇게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장애인 이렇게만 많이 보는 거 같아요(박OO).

비장애인들도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장애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에서는 그것을 좀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 같아요. 장애인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있는 거 같아요(소OO).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된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아 혼자서

생활하기가 가능한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은 장애가 심해 혼자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한다. 박OO과 소OO은 장애인을 통합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장애의 기능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한다. 소OO의 경우에는 장애 기능을 비장애인의 기능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박OO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으로만 인식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거부하려는 시도를 한다.

*중증장애학우와 같은 조를 한번 해 보았는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도 경증장애학우는 자발적인 참여는 조금 힘들더라도 팀원이 하자고 하면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거 같아요(주OO).*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래서 경증 장애학우는 그냥 혼자 잘 한다면 중증 장애학우는 조금 더 통행이나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와주어야 하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 같아요. (중략) 학교에서는 경증 장애인은 진짜 일반 학생처럼 다닐 수 있으며, 수업도 같이 듣고 발표도 심지어 같이 했으니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은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김OO).*

D대학교 내에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은 이들이 정착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긴다. 기존보다는 장애인의 수용성, 감수성은 높아졌으나, 지역사회 내 공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장애' 상징과 결합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있다. 주OO와 김OO은 장애인을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은 자립능력에 차이가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능력에 따라 타자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연구참여자도 경증 장애인은 공존이 가능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여전히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 공존이 어려운 존재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중증의 경우는 의존 행동이 심하거나 아니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공존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닌 거 같아요(노OO).*

*중증장애와 공존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분들도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자기 자신과 비장애인을 좀 비교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억지로 적응하려고 하는 것은 공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소OO).*

노OO와 소OO은 D대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에서 중증 장애인과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한다.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높아졌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하지만 장애 기능 수준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세분화하는 시도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자립능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장애 상징과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 4. 공존으로 향하기 위한 장애 재해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유하는 상징이 사회집단에서 공유가 되어야 하며, 장애 상징과 관련한 적응적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해석된 장애 상징이 사회집단에서 공유되지 않거나 사회집단이 기존에 형성된 장애 상징을 거부할 경우 사회집단은 개인을 일탈자로 인식시킬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는 개인이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상징과 관련하여 적응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일탈이나 낙인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D대학교에서 형성된 '장애' 상징이 다른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장애 상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다른 길에 갔으면 진짜 썩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이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사회복지 전공쪽으로 간다면 같이 살아가는 삶 딱 이걸 것 같아요(박OO)*

*팀플을 할 때에는 장애 학우보다 한 시간 더 보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였는데, 회사 일은 내가 이걸 한 시간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회사와 회사간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더 큰 문제이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배제하면 이것도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노OO).*

예비 사회인인 D대학교의 재학생은 졸업하면 지역사회로 나가게 된다. 박OO과 노OO은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다시 기존의 '장애' 상징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박OO은 현재 사회복지계열이어서 학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의 중심인 회사일 경우 기존의 '장애' 상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노OO은 회사는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조직이므로 장애인이 업무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과 공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OO은 가족 내 중증장애인이 있지만, 지역사회가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존의 장애 관점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퍼져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퍼져있으면 도와야 하는구나, 나도 도와야겠다 정도로 약간 휩쓸리게 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저 혼자 이제 저분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 제가 오히려 돕지 않으면 장애인을 돕지 않는 사람으로 찍힐 거 같아서 돕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김OO).

이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막상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없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신체적인 장애인들보다는 지적장애인 분을 좀 많이 보았던 거 같아요. 동네 내에서 보면 대학생보다는 나이대가 있는 장애인이 있어서 제가 그 지역사회에 가서 뭔가 존중하는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제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소OO).

그분이 시키는 데도 그렇고 그때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에 있어서는 동네 한 분이 좀 지적장애가 있는데 대화는 또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 분위기 자체가 엄청 자기 동네 사람들은 또 엄청 챙기는 분위기였어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부모님도 좀 뵈었거든요. 근데 그분 부모님도 좀 약간 사고가 되게 긍정적인 분이셔서 그래서 이 동네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소OO).

김OO은 D대학교에서 경험한 '장애' 상징을 생활하는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하는 '장애' 상징을 김OO이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탈이나 낙인이 될 것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OO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경우 다른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회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개인이 조화로운 방식의 행동 노선을 취하지 않게 될 때 '일탈'이나 '낙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아보다는 사회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OO의 후속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주민이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공유하게 될 경우 D대학교에서 장애문화나 장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장애'의 자기개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사회 내에 장애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장애인에 대해 새로운 상징을 시도함으로써 직간접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학교 학기 중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팀플을 같이 한 것을 이야기해도 〇〇이, ㄷㄷ오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굳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대화에서 등장하지 않는 거 같아요.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상적

인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 같아요. 접하지도 않고 제가 얼마 직장에 갔을 때도 장애인도 없었고 엄마랑 함께 무언가를 할 때도 장애인분들을 볼 기회가 없었기에, 그렇다보니 약간 무거운 이야기라고 느끼실 거 같아요(김OO).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사람으로 갈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면 소신껏 그렇게 할 것 같아요(소OO).

직접적으로 장애학우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커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도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들의 편에 서서 더 목소리를 내려고 약간 그렇게 변화가 된 거 같아요(이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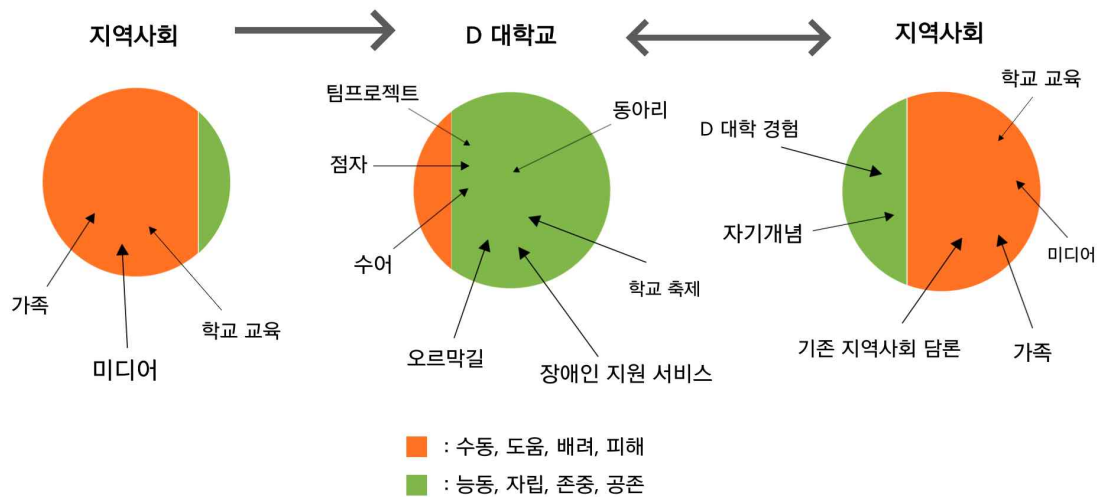
김OO은 D대학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한 장애인을 ‘○○이, ㄷㄷ오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가족 내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소개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녹취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의식하여 다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평범한’ 일상 속으로 장애인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한다. 소OO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하여 일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를 한다. 이OO은 D대학교에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려는 행동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신념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D대학교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이 자기신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제가 지금 진학하고 있는 과랑 이런 것들이 저를 좀 억누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 그냥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취직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편견을 가져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더 이제 알게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 이러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좀 많았던 거 같아요(이OO).

도움이 필요하신 것은 맞으니까 그렇게 돕는 것이 일상화 된다면 공존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비장애인들도 생활 방법이 다 다르고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 사람도 나랑 생활방식이 다르구나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공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김OO).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기존의 상징에 대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념을 사회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OO는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갖게 된 경험과 전공지식, 직업신념으로 연결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치를 두려고 한다. 김OO은 지역사회에서 선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들 모두 이러한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D대학교에서 장애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이 생활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 상징 재해석 과정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른 장애의 재해석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 상징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는 개인과 사회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장애 상징에 대한 자기개념으로 인하여 장애 상징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와 관련한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나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로 인하여 장애 관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장애인과의 직접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장애인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장애인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전달자가 장애인을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 ‘불쌍한 존재’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위계적 관계에 기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보다는 교과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비장애인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와 관련한 대상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은 D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장애’를 열등한 존재,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 등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실제로 이들과 직접적 상호작용을 할 때 도움이나 배려하는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와 관련한 상호작용 경험은 장애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상징되게 하는 것이다.

D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와 행정은 비장애인의 기준에 갖고 있는 장애 상징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환경은 장애인 대학생이 재학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상호작용 횟수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즉 비장애인은 강의실, 기숙사, 아르바이트,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상징이 변화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애’ 상징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식하였으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하기도 하며 장애 기능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장애인은 D대학교를 교육기관이라고 인식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용도가 넓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지역사회 이동에 따라 장애 상징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D대학교의 경험이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상징에 대한 자기개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대학교에서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 수용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장애 정도나 기능 수준에 따른 장애 상징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가 ‘장애’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도움이나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상징화가 되어 있어 기존의 장애 담론을 해체하기에는 일탈이나 부적응자로 인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D대학교는 장애학생도 대학생할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다양한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과의 직접적 상호작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D대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지역사회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D대학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한 장애 상징을 지역사회에서 적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장애인이라는 고유명사 대신 장애학생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족 대화 주제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거나 타인을 설득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왔을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려는 행동양식을 보이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또한 D대학교에서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D대학교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상호작용 경험이 ‘장애’상징과 자기개념화가 되었을 때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장애인식개선이 필요하지만(이태현 외,



2020), 김주옥·염태산(2022)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김예성·하용용, 2021) 현실적인 사회통합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학교, 가정, 이웃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에 대해 이해하지만,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를 통해 갖게 된 장애인식이 다른 대상에 비하여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용(2022)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경험이 낙인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통하여 장애를 접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현재 TV, 유튜브, 릴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에 대한 정보는 학교교육이나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를 미디어로 제공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D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이동에 따라 장애 상징에 대한 재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교육이나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지역사회 내 장애 상징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학과를 인터뷰를 하여 다른 학과 학생의 경험을 살펴볼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상경계열, 예체능계열 등이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장애 상징의 해석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웅규, 박보람 (201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장애인복지연구, 4(1), 117-140.
- 김문근(2015).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7, 7-42.
- 김문근 (2016).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 EM커뮤니티.
- 김주옥, 염태산 (2022).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의 탈시설 발달장애인 자립이념 실천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5(55), 7-41.
- 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21). 발달장애인 참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 초중고학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53, 27-53.
- 김하늘, 신현기 (2019).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수용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3), 113-132.
- 김성용 (2022). 비정신장애인의 정신장애인과외의 접촉·교육·항의경험과 낙인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13(1), 1413-1428.
- 김예성, 하용용 (2021). 지역사회 주민들의 발달장애인 접촉경험과 인식 연구. 발달장애연구, 25(2), 137-159.
- 박경옥·이동석 (2021). 2020 대구대학교 장애인 인권·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대구대학교.
- 송승연 (2024). 병식 개념에 대한 정신장애인 인식 및 경험의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64(64), 185-228.
- 안명숙 (2016). 비장애 기독교대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 275-300.
- 이수경, 박경빈 (2020). 그림책 활용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동이 유아의 장애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5(6), 81-98.
- 이태현, 김정석, 정하영 (2020). 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8), 433-441.
- 유혜은 (2020. 12. 1). "안내견 어디든 갈 수 있다"...롯데마트, 논란 후 매장에 '안내문'. JTBC.
- 이병기 (2024. 5. 27). 장애학생, 동급생에게 성추행 당했는데...학교측 "가해자 선처해달라". 경기일보.
- 정연옥 (2023.5.16.). '지하철 시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두 시선. KBS 뉴스.
-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황민주, 오종은 (2023). 콜라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통합어린이집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및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3(3), 197-217.
- 황선혜, 조윤경 (2014). 통합학급 비장애유아 부모의 장애인식과 자녀의 장애수용도 관계 및 배경 변인 분석. 발달장애연구, 18(3), 63-86.

- Charon, Joel M. (2007). *Symbolic interactionism: An introduction, an interpretation, an integration*.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Kim, I. H. (2001). A study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disabl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 McCall, G., J. (2013) Interactionis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In J. DeLamater & A. Ward, A. (eds. ),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Saint Louis: Springer.
- Mead (1934). GEORGE HERBERT MEAD A Unifying Theory for Sociology *Ann. Statist.*, 29(2), 295-327.
- Netting, E., P.M. Kettner, and S.L. McMurtry. (2008). *Social Work Macro Practice*. Pearson Education Inc.
- Thornicroft, G., Mehta, N., Clement, S., Evans-Lacko, S., Doherty, M., Rose, D., Koschorke, M., Shidhaye, R., O'Reilly, C., Henderson, C. (2016). "Evidence for effective interventions to reduce mental-health-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The Lancet*, 387(10023), 1123-1132.

## Abstract

# A study on the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among students at D university based on Symbolic interaction theory

Jang Yuna\* So Wonhui\*\* Shin Cha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hange in disability symbols within the community by analyzing the process of reinterpretation of these symbols according to the community's evolution. To achieve th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Special Education At D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changes in disability awareness before and after entering D University and analyzed how this awareness was applied when students moved into the living area using in-depth case studies. It was found that, after entering D University, the symbol of disability in the existing community changed through direct social interaction between a disability-friendly cultur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Regarding whether the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symbols by D University students can be applied to other communities, the findings suggest the this depends on factors such as self-concept, degree of disability, and level of disability function. While direct social interaction between community resident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positively impacts the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create environments within communities that facilitate such interaction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Disability, Symbolic Objects, Symbolic Interaction Theory, D University, Moving Communities

---

\*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 Welfare, Daegu University

\*\*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 Welfare, Daegu University

\*\*\*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 Welfare, Daegu University

---

---

---

---

---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연구 9팀]

정희재(경북대학교 컴퓨터학과 4학년)

조민지(경북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

##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정희재\* 조민지\*\*

이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여가 제약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접근하는 데 겪는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장벽을 형성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여가활동 참가 횟수와 시간, 내재적 및 구조적 제약, 타협 전략 점수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 사용 후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횟수와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체 및 뇌병변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에서 여가활동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심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타협 전략 점수는 모든 그룹에서 향상되었으며,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여가활동 참여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우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접근성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장애인 여가활동,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회적 장벽,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타협 전략, 삶의 질 향상, 정보접근성

\*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학과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간에게 여가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은 개인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몰입 상태에 도달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eligman, 2020: 249). 장애인은 일상 생활에서 비장애인보다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장애인 여가활동은 자아 효능감과 사회적 통합 경험의 입장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Dattilo & Williams, 2011).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참여한 여가에 대해 89.4%의 장애인이 “TV 시청”에 답변했다. 또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에서 51.1%의 장애인이 불만족하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여가활동의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적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 Crawford와 Godbby(1987)는 개인이 여가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여가제약이라고 하며 3가지 요인으로 구조화 하였다. 1991년 Crawford, Jackson와 Godbey는 각 제약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타협을 통해 여가 참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여가제약을 분석하는 연구도 발생하였다. 1987년 Smith는 장애인의 여가제약을 장애인 당사자의 자신감 부족이나 피해의식 등의 내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극복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세계로 확장되며 장애인 여가의 제약요인은 휠체어의 접근 여부 등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중심이 되었다(Ray & Ryder, 2003; 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Shaw & Coles, 2004:).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다시 장애 당사자의 장애 수용이나, 자존감 등 내재적 제약에 집중한다(최성훈, 2013; 송화성, 강영애, 2021:). 장애 수용 및 자기효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효과가 증명되었지만, 장애 당사자가 사회로 접근해야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수동적이고 고립된 형태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회귀의 원인은 장애인의 여가가 장애유형에 따라 다변적이고 맥락적인 특성을 가지는 요인을 가지는데(신진호, 2022), 본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제약과 내재적 제약의 콤플렉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여가에 접근할 때, “그 공간에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면 어찌지?”, “콘텐츠 운영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찌지?” 등 불안감(내재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내재적 요인은 접근성 정보의 부족과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인 여가접근 개선을 위해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제약을 장애인 개인의 극복 등이 아닌, 장애의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제약들의 콤플렉스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사회장벽(Barrier)으로 정의하고 내부 제약 요소를 재구성한다. 또한 LLM 등 AI 기술을 통해 중요한 제약 요소인 “정보접근”, “상호작용”을 혁신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제약 요소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들을 장애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이해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사회장벽(Barrier)으로 정의하고, 특히 정보전달과 상호작용의 문제를 새로운 여가 제약의 주요 구성 요소로 규정한다. 정보전달과 상호작용은 여가활동 참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여가활동 과정에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이다. 이 두 요소는 주로 언어(Language)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러한 언어 기반 정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로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가 있다. 최근 들어, 특히 LLM(Large Language Model)과 같은 최신 기술이 정보 상호작용의 효율성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Bender & Koller, 2020; Vasvani, Shazeer & Parmar et al., 2017; Shazeer & Roberts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LLM을 기반으로 한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여가활동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콘텐츠를 지원하는 앱 플랫폼 “다운”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보, 상호작용을 제공했을 때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 제약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다운 앱을 이용하는 장애인 여가활동 이용자 166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장애영역별 지원 요소 명시, 인공지능 기반 큐레이션, 자신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보를 통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장애인 심리 등의 내재적 요인 혹은 사회 시스템 접근의 어려움 등의 구조적 요인에서 벗어나, 정보 접근성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공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LLM 기술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언어 기반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넓게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적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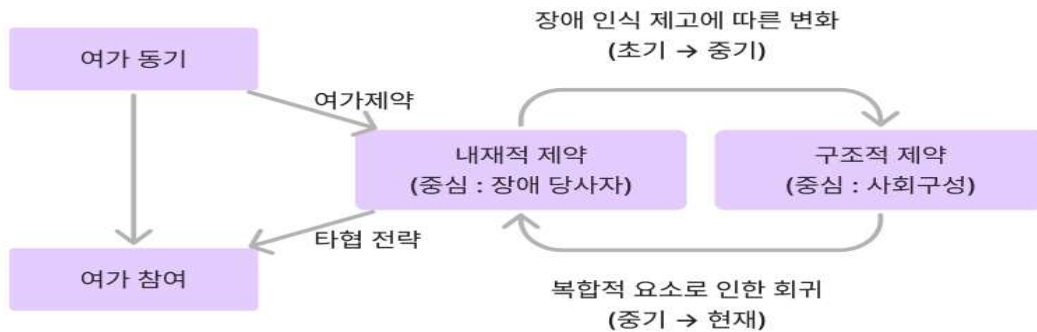
### 1. 장애인 여가제약의 한계

여가 제약은 한 개인이 여가 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의미한다. Crawford와 Godbey(1987)는 여가 제약을 내재적 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그리고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제약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타협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여가 참여로 이어지는 "여가 타협과 균형 모델"을 제안하였다(Crawford 외, 1991; Jackson 외, 1993).

장애인 여가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반적인 여가 제약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주로 제약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타협을 통해 여가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접근 방식을 넘어, 장애인 여가 활동의 경우 제약 요소들이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킨 복합체(킴플렉스)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약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변적이고 맥락적인 특성을 가지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상호작용하여 다시금 부각되거나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제약 요소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한 곳에 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단순히 한 가지 제약을 극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요소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약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들은 여가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 1] 시간 순서에 따른 여가제약 강조의 특징



[그림 1]은 이러한 장애 인식의 제고에 따라 여가 제약 요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장애인 여가 제약의 복합성과 그로 인한 참여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초기에는 장애인 개인의 자신감 부족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 내재적 제약이 주요한 여가 제약으로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휠체어 접근성이나 공공시설의 이용 가능성 등 구조적 제약이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가 제약이 복합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중심을 한 곳에 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의 여가 참여를 저해하는 제약들이 복합체(킴플렉스)로 얽혀 있어, 단순히 구조적 제약을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제약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내재적 제약이 남아있는 경우, 장애인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다시 내재적 제약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전히 사회가 장애인에게 여가 참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여가 동기를 스스로 찾아내어 여가 참여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가 참여가 장애인 개인이 극복해야 한다는 장애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여가 활동을 통해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하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고립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여가 활동에 있어 사회적 장애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장애인식에서 사회적 배경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여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제약 요소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히 내재적 제약 또는 구조적 제약 중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장애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제약요인 재구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들을 재구성하게 만들었다. 초기에는 장애인 개인의 내재적 요인이 여가활동의 주요한 제약으로 인식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로 진화했다.

과거 장애인 여가활동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제약 요인은 내재적 제약이었다. 이는 주로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집중하는 접근으로,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자아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들이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장애인 개인에게 여가활동 참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Smith(1987)의 연구는 이러한 내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장애인 여가활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여가활동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적 제약 중심의 접근은 장애인 당사자를 고립시키고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내적 동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이 점차 부각되었으며, 사회적 환경과 구조적 제약 요인이 장애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활동 제약을 구조적 요인, 즉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제도, 접근성 문제 등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늘어났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면서, 휠체어 접근성의 부족이나 공공시설의 이용 어려움 등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Ray & Ryder(2003), Mckercher et al.(2003), Shaw & Coles(2004)의 연구들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와 물리적 환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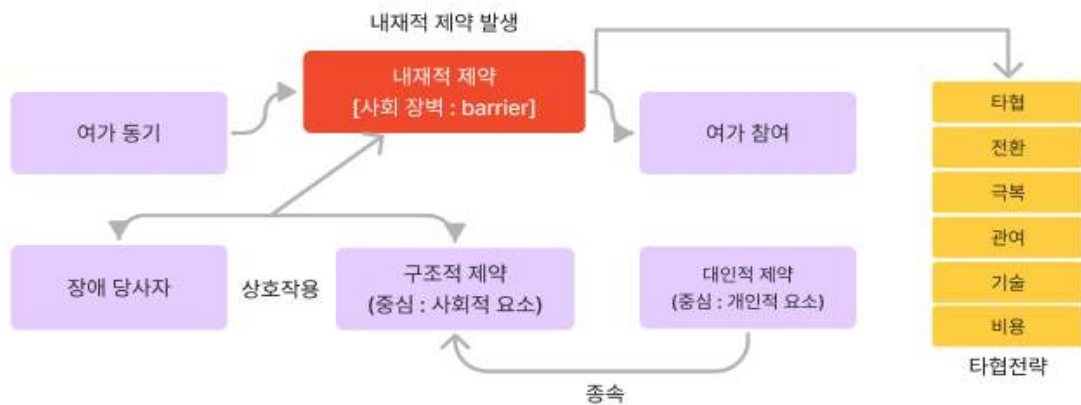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활동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는 접근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이 겪는 제약이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시 장애인 개인의 내재적 제약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애 수용, 자아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등이 여가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증시하는 접근으로 이어졌다.

최성훈(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제약은 대인적, 구조적 제약보다도 ‘자신감의 부족’과 같은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크게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송화성, 강영애(2021)의 연구는 신체적 불편함 그 자체보다는 ‘심리적 두려움’이나 ‘타인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심리적 위축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제약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소들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제약은 단순히 구조적 요인이나 내재적 요인 중 하나로 국한할 수 없는 복합체(킴플렉스)로 작용한다. 이는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제약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림 2] 사회장벽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여가 참여 모델 재구성



[그림2]는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과 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타협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모델의 주요 흐름은 장애인이 여가에 대한 동기를 가지면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고, 이를 타협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원래 이 과정은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추상화하여 핵심적인 흐름만을 남겼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이 다면적이고 상호작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이 각각 독립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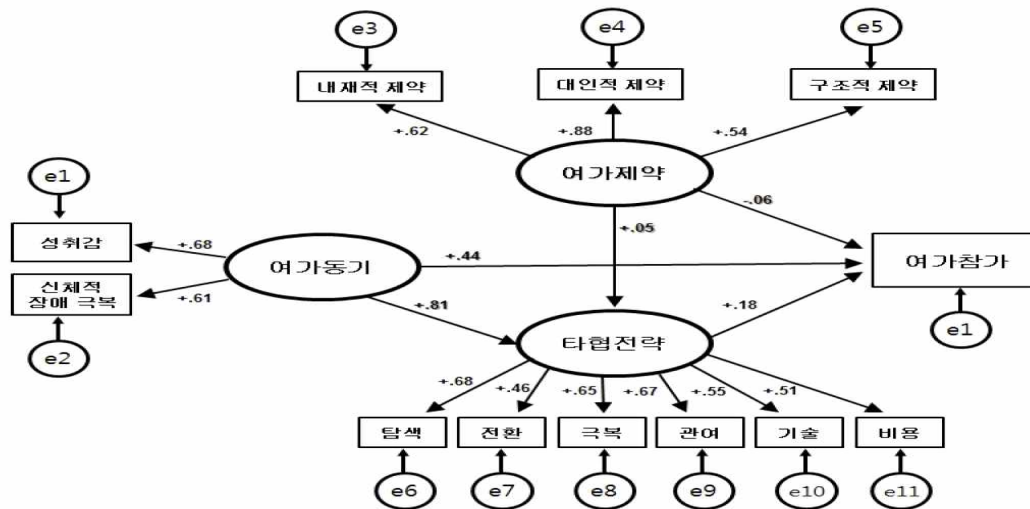
라, 이들이 서로 얽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들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추상화하였다. 이는 제약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추상화를 통해 본 연구는 모델의 이해를 돕고, 실증적인 연구에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 추상화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복잡한 제약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 핵심 제약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내재적 제약이며, 두 번째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제약이다. 이 두 가지 제약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체(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사회장벽(Barrier)\*\***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인적 제약도 기존 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맥락에서 대인적 제약은 구조적 제약에 포함될 수 있다. 대인적 제약은 장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지원 인력의 필요 등과 같은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제약은 구조적 제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조적 제약에 포함하여 다룬다.

[그림 3] 이재성(2013), 여가제약타협 이론을 적용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가모형 개발 및 검증(그림 4)



기존 연구에서 이재성(2013)의 여가 타협과 극복 기반 여가 참여의 모형을 중심으로, 여가제약요인은 사회장벽으로, 본 타협 전략에서 “탐색”, “전환”, “극복”, “관여”, “기술” 등 비용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언어 기반의 정보와, 상호작용을 통해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추상화를 위해 합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매우 구체적인 타협전략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한다.

### 3. 장애인 여가활동의 촉진 방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을 핵심적으로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정보 제공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1) 정보 접근성의 개선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여가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 정보를 개인화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각 활동의 세부적인 접근 방법, 참여 조건,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등과 같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여가활동을 쉽게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상호작용의 개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장애인이 여가활동 중에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과 활동 제공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활동 제공자가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번역 및 해석 기능을 제공하거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자동 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장애인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타협 전략의 구체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기존의 타협 전략을 구체화하여, 보다 실천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킨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타협 전략—탐색, 전환, 극복, 관여, 기술 활용 등—은 본 시스템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실제로 장애인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탐색 전략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 옵션을 쉽게 탐색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 전략은 장애인이 특정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체 가능한 활동을 추천하여, 여가활동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은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과정을 세 단계로 추상화한 것이다. 기존 각 제약 요소들을 추상화하고, 타협 요소들을 정보 상호작용 기반으로 추상화하여 여가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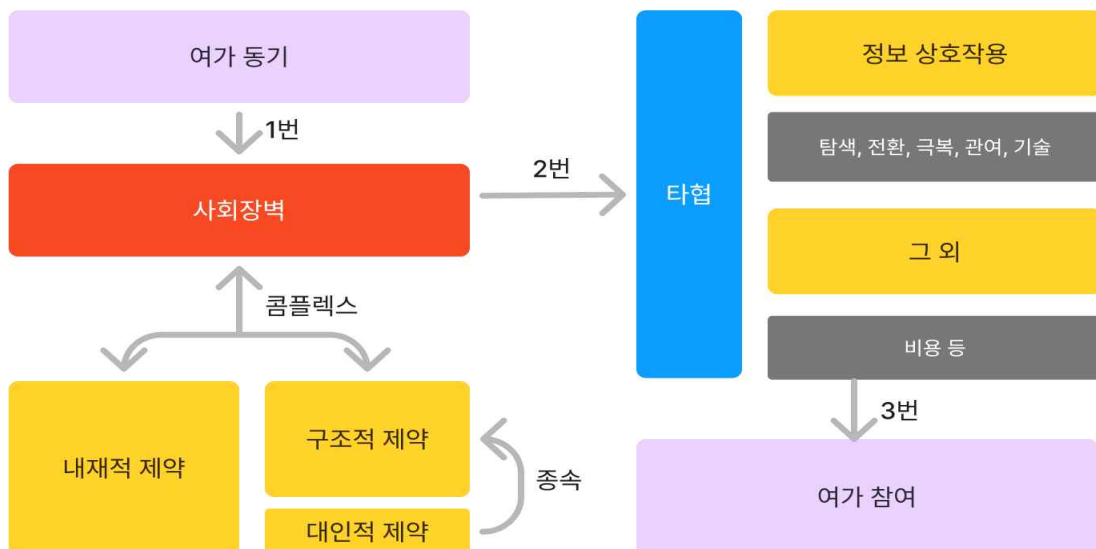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는 장애인이 여가 동기를 느끼면, 이 동기가 사회적 장벽과 맞닥뜨리는 과정이다(1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장벽이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내재적, 구조적, 대인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콤플렉스라는 것이다. 이 장벽은 여가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타협 전략이다(2번).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타협 전략이 제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했다. 많은 전략이 실제로는 정보 접근과 상호작용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요소로 통합했다. 이 요소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타협 전략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극복한 후,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3번). 이 연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애인의 여가 참여를 얼마나 쉽게 만들어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모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제약이 어떻게 사회적 장벽으로 추상화되어 작용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그 장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동일집단에 대해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 플랫폼 “다운”에서 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 사용 이전 여가에 관한 설문조사, 사용 이후 여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교 및 해석한다.

[그림 4]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의 모형



## 2. 연구방법

연구의 핵심은 사전-사후 검사법(Pre-test Post-test Design)을 적용하여 동일 집단에서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전후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 만족도, 제약 인식 등을 측정한다. 먼저, 사전 설문조사(Pre-test)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이전의 여가활동 참여와 제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이후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후 동일 항목에 대해 다시 측정하는 사후 설문조사(Post-test)를 실시한다.

통계적 분석으로는 사전과 사후의 결과 차이를 검증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차이검증을 실시하며, 타협 전략에서 정보 상호작용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 상호작용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얼마나 촉진하는지 해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3. 연구내용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은 유의표집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북에 있는 대구대학교 장애동아리,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황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유재활원, 사람과사람, 정보재활원,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등 166명이었고, <표1>은 참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구분	n	%
성별	남성	98	62.0
	여성	62	48.0
연령	20세 이상~ 30세 미만	49	0.3
	30세 이상~ 40세 미만	37	0.23
	50세 이상~ 60세 미만	45	0.28
	60세 이상~ 70세 미만	29	0.18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장애	58	0.36
	정신적 장애	41	0.25
	시각 장애	29	0.18
	청각 장애	24	0.15
장애 정도	경증	93	0.58
	중증	67	0.32



## 2) 연구내용

본 집단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를 이용 한 후, 동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설문조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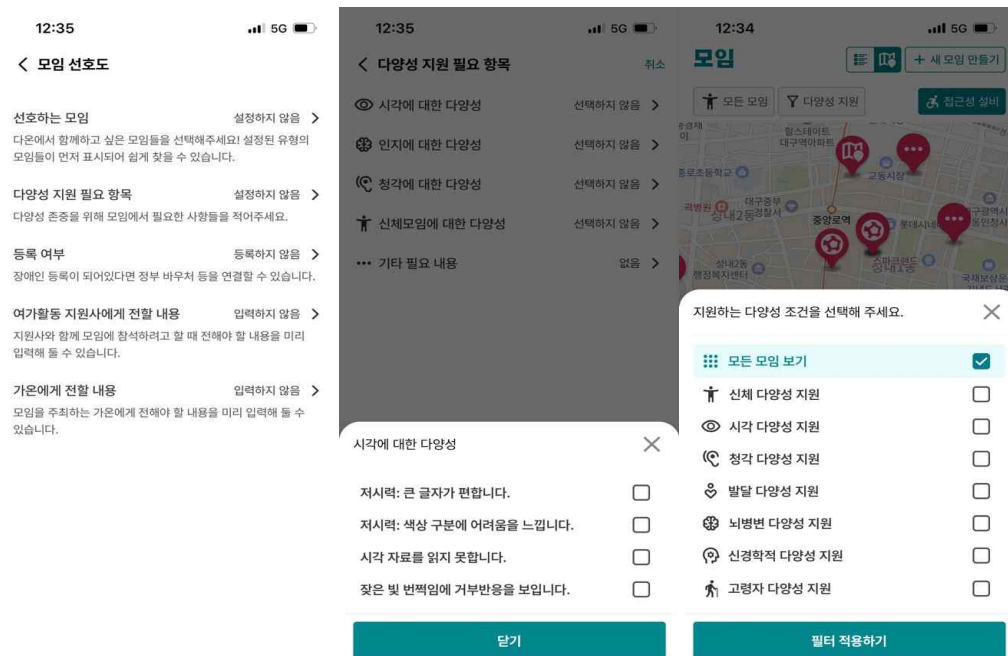
1. 여가활동 현황 조사 :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현황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체육백서(문화관광부,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2) 등을 참고하여 여가활동 분류, 여가활동 참가 횟수, 여가활동 시간을 조사했다.

2. 여가제약 측정 : 상기와 동일하게 여러 제약 요소들을 정성적으로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장애인이 여가에 접근할 때 겪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조사했다.

3. 타협전략 측정 : 여가타협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 & Rucks(1995)가 처음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Loucks-Atkinson & Mannell(2007)의 연구에서 재사용된 문항을 활용했다. 이 문항들은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했다. 여가타협 전략은 탐색, 전환, 극복, 관여, 기술, 비용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어. 여가타협 전략의 문항 내적 신뢰도는 0.756으로 나타났다.

### (2)인공지능 큐레이션 에이전트

인공지능과 장애인 사용자 테스트환경(인터페이스)를 위해 다양성 여가 콘텐츠 플랫폼 앱인 “다운”과 협업하였다. 다운에서는, 콘텐츠를 구경하고 메시지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제공한다. 다운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테스트이용자에게만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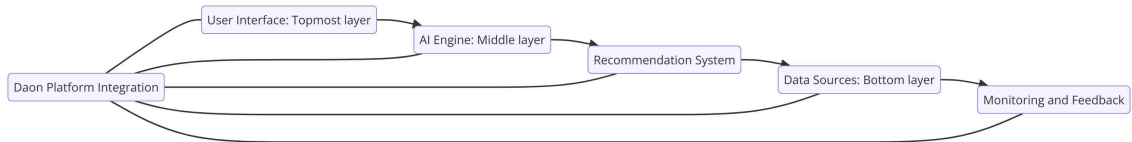
<어플리케이션 1> 다양성 정보 입력

다운 앱에, 자신의 장애 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AI에이전트는 이를 학습한다. 사전 학습된 데이터는 2023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 데이터로, 인풋레이어: 인구사회학적 변수, 임베딩 레이어: 장애 유형 등 고차원 범주 변수, 은닉 레이어: dense, ReL, 출력 레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선호 확률을 이용한 여가활동 추천을 제공한다.



### <어플리케이션 2> LLM기반 인공지능 큐레이션

또한 AI기반으로 오픈소스 언어모델(LM) 인공지능을 오케스트레이션하여 사용자가 여가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장소의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상호작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는 활동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여,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다. 학습되지 않은 내용이나 기능들은 RAG(Retrieval-Augmented Genration)과 API 호출 기반의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 이용한다.



### <어플리케이션 3>인공지능 큐레이션 아키텍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인공지능 기반 여가활동 추천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시스템의 최상단에 위치한 **UI**는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입력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사용자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추천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 레이어에 위치한 AI Engine은 두 가지 주요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Fine-Tuned AI Models이고, 다른 하나는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시스템이다. 이 AI 엔진은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맞춰 최적의 여가활동을 추천한다.

시스템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Data Sources는 두 가지 데이터 저장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User Data로, 사용자들의 과거 활동, 선호도, 피드백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하나는 Leisure Activity Database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예: 접근성, 필요한 준비물 등)를 포함한다. 이 두 데이터 소스는 AI 엔진과 추천 시스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화된 추천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Recommendation System은 중간 레이어에 위치하며, AI 엔진과 데이터 소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여가활동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Monitoring and Feedback기능은 UI와 Recommendation System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AI 엔진과 데이터 소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전체 시스템은 Daon Platform Integration이라는 계층에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컴포넌트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후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횟수와 시간, 그리고 타협전략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접근성과 참여 의지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표 2] 중증, 성별을 기준으로한 주요 지표 비교

Category	남성 (전)	여성 (전)	경증 (전)	중증 (전)	남성 (후)	여성 (후)	경증 (후)	중증 (후)
여가활동 참가 횟수 (주당 평균)	1.8	1.5	2.0	1.2	2.5	2.2	2.8	2.0
여가활동 시간 (주당 평균 시간)	4.5	3.8	5.0	3.0	6.5	5.8	7.0	4.8
내재적 제약 (4점 리커트 척도, 평균)	3.2	3.5	3.0	3.8	2.5	2.8	2.3	3.0
구조적 제약 (4점 리커트 척도, 평균)	3.6	3.7	3.4	3.9	2.9	3.0	2.7	3.2
타협전략 점수 (4점 리커트 척도, 평균)	2.8	2.6	3.0	2.4	3.4	3.2	3.6	3.0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여가활동 참가 횟수와 시간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를 가진 남성의 여가활동 참가 횟수는 주당 평균 1.2회에서 2.0회로, 여가활동 시간은 주당 3.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도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면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후 내재적 제약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과 중증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내재적 제약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시스템이 여가활동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과 같은 내재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중증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의 내재적 제약 점수는 평균 3.8점에서 3.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심리적 장벽이 낮아져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 제약 또한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 장애를 가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구조적 제약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여전히 높은 구조적 제약이 유지되었다. 이는 시스템이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음을 시사하지만, 전반적인 제약 완화에는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경증 장애를 가진 여성의 구조적 제약 점수는 3.4점에서 2.7점으로 감소하였지만,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의 구조적 제약 점수는 여전히 3.2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타협전략 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후 모든 그룹에서 향상되었으며, 특히 남성과 경증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여가활동 참여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경증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의 타협전략 점수는 평균 3.0점에서 3.6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이들이 여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3] 장애유형을 기준으로한 주요 지표 비교

	지체, 뇌 병변 장 애 (전)	정 신 적 장애 (전)	시각 장 애 (전)	청각 장 애 (전)	지체, 뇌 병변 장 애 (후)	정 신 적 장애 (후)	시각 장 애 (후)	청각 장 애 (후)
여가활동 참가 횟수 (주당 평균)	1.8	1.6	1.4	1.7	2.6	2.3	2.1	2.5
여가활동 시간 (주당 평균 시간)	4.2	3.5	3.3	4.0	6.0	5.2	4.8	5.5
내재적 제약 (4점 리커트 척도, 평균)	3.3	3.5	3.6	3.2	2.5	2.8	3.0	2.6
구조적 제약 (4점 리커트 척도, 평균)	3.7	3.8	3.9	3.6	2.9	3.0	3.2	2.9
타협전략 점수 (4점 리커트 척도, 평균)	2.9	2.7	2.6	2.8	3.5	3.2	3.0	3.4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 전후의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결과, 모든 장애유형에서 여가활동 참가 횟수와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체, 뇌병변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증가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여가활동 참가 횟수는 주당 평균 1.8회에서 2.6회로 증가하였고, 여가활동 시간은 4.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났다.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의 경우도 참가 횟수가 1.7회에서 2.5회로, 시간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내재적 제약의 경우, 모든 장애유형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내재적 제약 점수는 평균 3.5점에서 2.8점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내재적 제약 점수는 3.6점에서 3.0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나타낸다.

구조적 제약 역시 모든 장애유형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히 청각 장애와 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에서 그 감소폭이 더 컸다.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구조적 제약 점수는 평균 3.6점에서 2.9점으로, 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구조적 제약 점수는 3.7점에서 2.9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물리적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타협전략 점수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향상되었으며, 특히 지체, 뇌병변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타협전략 점수는 평균 2.9점에서 3.5점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타협전략 점수는 2.8점에서 3.4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여가활동 참여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의 감소, 그리고 타협전략의 향상을 통해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문화예술 관람 (전)	문화예술 관람 (후)	문화예술 활동 (전)	문화예술 활동 (후)	사회적 활동 (전)	사회적 활동 (후)	취미활동 (전)	취미활동 (후)	여가활동 참가 횟수 (전)	여가활동 참가 횟수 (후)
지체, 뇌병변 장애	2.0	2.8	4.5	6.5	3.2	2.5	3.8	3.0	2.9	3.5
정신적 장애	1.7	2.5	3.8	5.5	3.5	2.8	3.7	2.9	2.6	3.3
시각 장애	1.6	2.3	3.2	4.8	3.4	3.0	3.5	3.2	2.7	3.2
청각 장애	1.8	2.6	4.0	5.2	3.3	2.6	3.6	3.0	2.8	3.4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 전후로 장애 유형별로 여가활동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각 장애 유형별로 특정 활동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나타났다.

먼저,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관람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큰 향상을 보였다.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주당 2.0회에서 2.8회로 증가했고, 문화예술 활동 시간은 4.5시간에서 6.5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들이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가활동 참가 횟수도 2.9회에서 3.5회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 역시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문화예술 활동 시간은 3.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사회적 활동 시간은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여가활동 참가 횟수도 2.6회에서 3.3회로 증가하여,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과 취미활동에서 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문화예술 활동 시간은 3.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취미활동 시간은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증가했다. 이는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예술 및 취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도 문화예술 관람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주당 1.8회에서 2.6회로, 문화예술 활동 시간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신의 여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결과 함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내재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가생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 등 내재적 제약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내재적 제약은 기존의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장벽으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재구성하였다.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요소를 타협 전략을 통해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와 참여 의지를 보다 쉽게 유지하고,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정보 접근과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가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주는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장애인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 1. 전체 내용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Barrier)으로서의 제약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재조명하였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제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복합체(컴플렉스)를 형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요소들을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시간이 흐르며 진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여가활동 제약 요소들의 중요성도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장애인 개인의 내재적 제약이 주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나, 점차 사회적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약 요소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문제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제약 요소들이 여가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 결합된 사회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언어 기반의 정보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기존에 존재하던 내재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원과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기존의 제약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이들 제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인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2. 결과에 대한 시사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소들이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인 사회적 장벽(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약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하나의 사회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장벽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정부나 사회가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증법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접근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학문에 적용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정보 접근성과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재적 제약을 완화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장애인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학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3.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장애를 사회적 장벽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가 있었다.

1) 표본의 대표성 및 일반화 가능성 부족 : 본 연구는 특정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모든 장애인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르게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2)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의 한계 :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모든 장애 유형에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증 장애나 다중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의 유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었다.

3) 사회적 장벽의 복합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 : 연구는 사회적 장벽을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적 장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했으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장벽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일부 중요한 요인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시간적, 공간적 제약 : 본 연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시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와 제약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타협전략의 다양성 부족 : 연구에서 사용된 타협전략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다. 다양한 타협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타협전략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범주로 묶어서 분석한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6)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부족 : 내재적 제약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여가활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장벽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7) 장기적 효과 분석 부족 :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단기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가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실제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여가활동

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더 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 분석, 다양한 타협전략의 포괄적인 분석을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미경, 이동진,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137-155.
- 강소영 (2014). 발달장애인의 여가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2000~ 2014 년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2), 285-310.
- 고동우 (2007). 여가학의 이해. 세림출판.
- 권충훈, 최희철 (201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 -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149-172.
- 김미혜, 박상현, 김권일. (2020). 장애수용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운동참여 및 여가만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9(4), 58-73.
- 김종일 (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84.
- 김한철 (200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059-1070.
- 박승현, 이영진 (2011).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제약의 차이 분석: 지체, 시각, 청각 장애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23(1), 193-212.
- 박지수, 김하영, 유진경, 한윤선 (2017).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또래 비행의 유형과 특성.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2), 165-176.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 송진영 (2021).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146-159.
- 송화성, 강영애 (2021). 관광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가제약 비교 연구: 열린 관광지 정책 관점에서. 관광연구, 36(1), 89-111.
- 오영교, 차성현 (2018).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석: 잠재계층분석방법 (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통계연구, 23(3), 39-64.
- 윤정현 (2018). 관광가치지각, 가족관광 참여,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만족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30(4), 79-96.
- 이상균, 이봉주, 김세원, 김현수, 장화정, 진미정, 박지명 (2017).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1-208.
- 이유리, 박미석 (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 이충환 (2008). 시각장애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스포츠문화 과학연구지, 14, 39-47.
- 이훈, 이영진 (2010). 후천적 장애인의 관광활동 단계 및 장애유형에 따른 제약과 만족분석. 지체. 중  
복. 건강장애연구, 53(1), 263-287.
- 임변장, 채관석, 우찬명, 김홍설 (1995). 한국인의 여가관에 관한 연구. 전국체육대회기념, 83-91.
- 임영명, 차태현 (2018).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8),  
293-299.
- 정연홍 (2010). 여가활동 참여 장애인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관계. 동북아관광연구, 9(1),  
215-233.
- 정재춘 (2013). 장애인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활동을  
참여하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8(2), 139-159.
- 최성훈, 이재성 (2013). 여가제약타협 이론을 적용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가모형 개발 및 검증. 한  
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3), 16-25.
- 황성혜, 임원균 (2012).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6,  
245-268.
- 황혜선, 이윤석 (2021). 노인1인가구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성별차이의 탐색. 보건사회연구, 41(4), 88-10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체육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Dattilo, J., & Williams, R. (2011). *Leisure education: A person-centered, system-directed  
approach*. Champaign, IL: Sagamore Publishing.
- Bender, E. M., & Koller, A. (2020). Climbing towards NLU: On meaning, form, and  
understanding in the age of data.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Vaswani, A., Shazeer, N., Parmar, N., et al. (2017).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Raffel, C., Shazeer, N., Roberts, A., et al. (2020). Exploring the limits of transfer learning  
with a unified text-to-text transformer.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 Dumazedier, J. (1960). Current problems of the sociology of leisur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4), 522-531.

- Hills, P., & Argyle, M. (1998). Positive moods derived from leis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happiness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3), 523-535.
- Iso-Ahola, S. 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1), 1-11.
- Jackson, S., & Scott, S. (1999). Risk anxiet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hildhood. *Risk and sociocultural theory: New directions and perspectives*, 86-107.
-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 McKercher, B., Packer, T., Yau, M. K., & Lam, P. (2003). Travel agents as facilitators or inhibitors of travel: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urism Management*, 24(4), 465-474.
- Neul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11, 295-306.
- Ray, N. M., & Ryder, M. E. (2003). "Eibilities" tourism: an exploratory discussion of the travel needs

# Research on Promoting Leisure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AI Curation Agents

Jeong Heejae\* Joo Minji\*\*

This study introduces an AI curation agent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eisure activities and empirically verifies its effectiveness. Based on existing theories of leisure constraints, the study analyzes how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structural constraint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combine to form social barriers. The study compare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frequency and duration, intrapersonal and structural constraints, and compromise strategy scores across different disability types.

The results indicate that after using the AI curation system,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leisure activ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notable improvements observed among participants with physical, brain, and auditory disabilities. Furthermore, psychological and structural constraints were reduced, with marked reductions observed among participants with mental and visual disabilities. The improvement in compromise strategy scores across all groups suggests that the AI curation system effectively aids in the formulation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strateg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I technology can effectively enhance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lay a crucial role in fostering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presents a new technological approach to promoting leisure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fer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driving changes in societal perceptions of disability.

**Keywords :** Leisure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I agent, social barriers, intrapersonal constraints, structural constraints, compromise strategies, quality of life improvement

---

\* Global SoftWare Convergenc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

---

---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  
돌봄 토대의 장애 정의론

[연구 10팀]

이주영(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4학년)

최수민(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2학년)

---



#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 돌봄 토대의 장애 정의론

이주영\* 최수민\*\*

이 논문은 우리 사회가 장애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돌봄(care)이 사회적·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구현하는 장애 정의론은 돌봄 윤리를 토대로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장애 정의론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 관련 정책 사이에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이며, 장애인과 장애의 분야에서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장애 정의론은 사회가 장애와의 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사회의 정의와, 인간 권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정의론은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탈시설 운동과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일부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제한을 초래한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의 사례에 해당한다.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견인하기 위한 장애의 정의론은 장애인의 미시적 삶과 그러한 삶에 내재된 돌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사회가 장애와 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과 제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려 한다.

**주제어:** 장애 정의, 돌봄 윤리, 에바 키테이, 계약론적 정의론, 이상론적 정의론

---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 I. 들어가는 글

## 1. 탈시설 담론

몇 년 전, 장애인 탈시설(脫施設·Deinstitutionalization)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적이 있다. 장애인 탈시설이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의 수용 상태를 벗어나 지역 사회에 포용되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탈시설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탈시설 정책이 모든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장애 유형에서는 오히려 탈시설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을 구분할 때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구분한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들은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언어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서 부족함을 겪는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sup>1)</sup> 필자들은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장애인이 돌봄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이유를 개별 장애인의 특수한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존의 정의론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획일화되고 보편화된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탈시설을 위한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일부 장애인이 돌봄의 사각 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뿐 아니라 장애인의 특수한 삶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려 또한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된다. 장애인의 삶은 적절한 의존이나 돌봄이 필요한 삶이고, 이때 돌봄에 대한 필요는 장애인마다 다를 수 있다.<sup>2)</sup> 하지만 돌봄 필요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무시하고 기존 정의론이 강조하는 권리에 집중하여 장애인의 홀로서기식 자립만을 추구한 정책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수한 삶을 고려할 수 있는 '장애 정의

1) <https://youtu.be/Y55AffGA0SM?si=ULwk0MWJUzmB8xi2> 이 보도자료는 JTBC에서 보도한 뉴스 자료로, 탈시설 논의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첫 번째 인터뷰 당사자로 나온 발달장애인 이 모씨를 아들로 둔 전 모씨는 필자들 중 한 명(이주영)의 어머니이다. 해당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탈시설 논의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나 성급한 논의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뷰 후반에 탈시설 이후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강씨의 경우 어느 정도의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타협, 의견 조정이 가능한 수준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가족인 이모씨의 경우,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언어치료 등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선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이 모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폭력, 기물 파손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에 들어갈 기회조차 박탈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에게 시설은 일말의 희망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복지서비스가 개선된다면 돌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부모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시설의 존속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장애인의 '독립하여 살 권리'만을 주장하는 탈시설 논의는 오히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주장이다. 독립의 권리와 더불어 '잘 의존할 수 있는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2) 이후 논의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나 의존은 장애인의 결함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삶에서 의존의 요구가 있다는 보편적 사실과 그 의존의 요구는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된다. 장애인만 돌봄과 의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론'을 새로이 구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돌봄을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탈시설 담론은 장애인 돌봄의 형태가 다양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탈시설 담론이 장애인의 삶에 기여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기존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다루는 동시에,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보다 '잘'의 존하기 위한 조건들과, 의존을 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돌봄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의 탈시설 논의는 돌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는 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시설 생활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하는 것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의 특수성, 특히 돌봄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의 윤리에서 강조하는 권리의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장애 관련 정책이 원래 목표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 정책에서 돌봄의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sup>3)</sup> 사회적 돌봄 서비스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장애인 활동 보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sup>4)</sup> 이 요구의 밑바탕에는 장애의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와,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왜 돌보아야 하는 정치권에서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활동 보조 서비스는 일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돌봄을 제공할 부모가 있어 이용 시간을 적게 할당받거나, 문제 행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곤 하는 것이다. 본 정책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 시간을 결정하는 인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데,<sup>5)</sup> 이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장애인 돌봄이 수행된다면 국가는 그러한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백, 전지혜(2024)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시간 할당에 있어 인정 점수를 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와는 다르게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도움이 필요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이 사실상 충분히 지원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다.<sup>6)</sup>

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해당 정책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다.

4)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7> 소셜포커스. 20200720. [어머니의 간곡한 請(청)... "활동보조 가족지원 허용해주세요"] (검색일: 2024년 7월 31일.) 이 보도에서는 노인 요양은 급여정책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는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언급과, 장애인 활동 보조 가족지원에 대한 청원 내용이 나와 있다.

5)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할당은 서비스 종합 조사표의 인정 점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6) 원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만, 활동지원 등급이 낮아서

### 3. 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돌봄

장애인의 삶에서 돌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현재의 일부 정책은 장애의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첫째, 일부 장애인이 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인 돌봄을 받지 못하기에 복지 정책이 목표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대상자에서 일부가 배제됨은 그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불평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지속해서 돌봄 노동을 개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돌봄 제공자가 자유롭게 행위할 권리와 개인적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장애 정책이 기반을 둔 정의론이 권리에만 집중하여 돌봄은 사적 영역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적 영역을 다루는 정의론에서 돌봄을 다시금 고찰할 필요가 있다.

## II. 기존 정의론의 검토 : 롤즈, 아마티아 센

### 1. 롤즈의 정의론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에게 마땅한 복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보장받게 해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장애 정의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장애 정의론은 장애인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롤즈의 정의론을 검토하고 해당 이론에서 장애를 다루기에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돌봄 윤리적 비판인 에바 키테이(Eva Kittay)의 주장<sup>7)</sup>에 주목하여 사회적 돌봄 복지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하지만, 정의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의론 그 자체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이 성립할 수 있는 배경이 돌봄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정의론이 개선된다면 장애가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이 장에서는 우선 현 장애론에 적용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검토하고 그 정의론의 토대로 돌봄이 들어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원초적 입장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이상론적인 작업을 시행한다. 이상론은 부정의한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론적으로 구상해 보는 작업이다. 이때 정의의 원칙은 자격이 있는<sup>8)</sup>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사람들은 합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시간이 적게 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매칭이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조우홍, 2020). 이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활동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가족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상황이 되었다. 더 쉬운 장애인을 선택하려는 활동지원사의 욕구와 타인이 가족보다 더 잘 케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일부 장애인과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가족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p36)

7) 키테이의 주장은 III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의 설정 속에 놓이며, 자신의 여건이나 운,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 이러한 롤즈의 논의는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지닌 당사자들 스스로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계약론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도론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무지의 베일은 계약의 당사자 누구에게도 더 유리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을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하는 가상의 장치이다. 계약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자신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원칙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도출된다. 하지만 무지의 베일에 모든 정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사고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건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롤즈, 2003)<sup>8)</sup> 일반적인 정보, 즉 법칙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이는 모든 정의관들이란 그것들이 규제할 사회적 협동 체제의 특성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롤즈, 2003)<sup>10)</sup>

## 2)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도덕적 주체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합의의 주체가 된다. 도덕적 능력은 첫째, 가치관과 정의감에 관련된 능력과 더불어 둘째,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이 도덕 능력은 시민이 평생에 걸쳐 사회에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유의 근거가 된다. 만약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계약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착취적인 사회 협력에 노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합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분하고 이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원칙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계약의 당사자들은 실제 사회에서 사회적 협력으로 착취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수립한다.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8) 합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원칙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말한다.

9) 196p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0) 위와 같음.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즉

-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2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넘어 이득의 분배가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이 두 원칙에 따라 자유, 기획,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등 5가지의 사회적 기본재의 분배를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재는 사회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도덕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그 도덕적 능력의 두 가지는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 수정, 추구하는 능력과 정의 원칙을 합의, 준수하는 능력을 포괄한다. 또한 사회적 기본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3) 계약 과정 중 장애인 배제 문제

장애 논의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론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원초적 입장에서 장애인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계약의 참여자들은 두 가지의 도덕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 도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 특히 지적 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은 인지 장애인은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합의 과정인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즉 롤즈의 계약론적 정의관을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은 자신이 합의하지 않은 정의의 원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적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은 합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계약론적 정의론은 합의를 위해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를 요구하고, 이는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보는 관점과 연관된다. 의료적 장애 모델은 그동안의 많은 장애 정책에서 채택해 온 모델로, 여기서 장애는 '개인 차원의 육체적·정신적 손상'으로 간주된다. 장애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는 WHO의 손상·장애·핸디캡 분류(ICIDF)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의료적 모델의 관점을 따른다. ICIDF에 따르면 장애인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만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김도현, 2019)<sup>11)</sup>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손상에 있기 때문에, 의료적 장애 모델은 정상성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단지 누군가에게 평생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정의가 촉발된다. 이는 장애인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호 협력적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 상황을 지닌,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결여된 비참한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도덕적 주체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의 대상, 의존적 존재인 객체로 간주된다.(목광수, 2012) 다시 말해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정상성 개념으로 해석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로 폄하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여 사회적 논의에서 내몰아 버린다.

11) 60p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 4) 롤즈 비판의 정당성 검토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의 문제를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롤즈의 장애 정의론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현실의 부정의 해결이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은 제도 차원에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사회 태도와 인식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논의가 보충되어야 실질적인 온전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존 롤즈, 2003, p. 52.) 현실의 부정의에 대한 온전한 해결은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 이론이나 제도, 인식 개선 등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장애인의 인식적 부정의에 관한 비판은 롤즈의 이상론적 정의론이 완성된 정의론이라고 착각한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의 문제를 배제한다는 비판은 재반박될 여지가 있다.

롤즈 정의론을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롤즈 정의론은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제가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합의 당사자인 가문의 대표(the head of family)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표가 자신의 가문 구성원일 수 있는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대해 특정 장애인, 예를 들어 합리적 사고가 어려운 중증 인지 장애인들이 롤즈 정의론에서 합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배제한다고 롤즈 정의론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형이상학이 지배적인 가치일 수 없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토대와 원칙을 정하기 위해 당장 현재는 합의의 방식 이외에 다른 것을 쓰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합의를 필수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면, 합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자들의 합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합의가 아닌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면 지적 능력의 한계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는 지금의 민주주의/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거의 유일한 의사 결정 방법이다. 만약 합의가 아니라 제비뽑기나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존재, 종교적 신념에 기대어 사회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다면 민주주의 사회 정서에 맞지 않고 부당한 것이라 지적될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합의에는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의 원칙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롤즈는 모든 장애인이 합의 과정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롤즈 정의론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는 롤즈가 비장애인은 모두 합의에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은 모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롤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장애인 집단 모두를 배제하지 않았다. 합의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은 충분히 합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장애인은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능력은 합의라는 정의 원칙을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도출하려는 과정에서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을 뿐이다. 따라서 롤즈 정의론은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고, 비록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제가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롤즈가 원초적 상황의 합의에서 도출하고자 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전

반적인 밑그림이자 이론적 토대였다. 즉 롤즈의 논의는 이상적 사회론이며, 비이상론적인 현실이 개선되는 데에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를 산출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은, 롤즈 정의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롤즈의 이상론적 논의를 넘어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이것을 정의론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충분하지 않고 비이상론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를 다루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롤즈는 이상론적 정의론만으로는 정의가 완성된다고 하지 않고, 비이상론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원초적 합의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는 지침서이고, 현실에서의 문제는 비이상론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론으로서 정의의 체계가 장애 정의론을 완벽히 완성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롤즈의 이상론만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오해하여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상론이 문제없이 적용되어 제도만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 2. 아마티아 센의 역량접근법

롤즈의 정의론에 대항하여 비이상론적 정의론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라는 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센은 이상적 사회인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공적 추론을 통한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부정의가 없는 이상적 사회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이상론적이고, 합의와 계약을 통해 정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계약론적이다. 비계약론적 정의론을 주장하는 누스바움과 아마티아 센은 공통적으로 롤즈의 계약론적 정의론을 비판한다. 두 사람은 모두 롤즈의 기초재 중심의 분배가 결과적 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배 과정의 공정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재의 분배 몫이 복지로 전환될 때 그 복지 전환율이 달라 불평등이 발생한다<sup>12)</sup>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롤즈의 대안으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은 원칙을 통한 위에서 아래로의 재화 배분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역량이 부족할 때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가령 신체적 건강이라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롤즈는 이를 보건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재화 분배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역량접근법은 개인이 필요한 역량의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이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역량접근법은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목광수는 역량 중심 접근법을 따르면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제거하여 인식론적 차별의 토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3)</sup>

역량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누스바움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10대 역량을 제시<sup>14)</sup>

12) 복지 전환율이란, 사회가 재분배한 재화를 통해 복지의 상태를 추구하고자 할 때, 내가 바라는 복지의 상태로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는지를 뜻한다.

13) 목광수는 「장애인(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2012)에서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더 발전시켜 수정된 역량접근법을 제시한다.

14) 누스바움은 모두가 인정하는 10대 역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롤즈의 계약론적 합의를 넘어서려 하는 동시에 원초적 합의와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고, 센은 역량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사회적 합의, 공적 추론으로 그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센에게 있어서 역량이란 가치 있는 상태들과 행위들인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한다. 누스바움과 달리 센은 역량 수혜자의 기능 충족을 위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수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 1) 역량접근법과 장애인 배제 문제

공적 추론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센에게 심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공적 추론이 현실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합의자로서 포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일부에서는 공적 추론을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소통하는 넓은 의미의 공적 합의라고 이해했을 때 장애인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또는 소수의 사람은 공적 추론의 영역에서 힘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토론장에서는 다수의 권력, 발언권의 제약 등 정치적인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이, 또 자기 의사를 언어로 전달하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발언이 힘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토론장에서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토론의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의 구조적 부정의가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센은 이러한 부정의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sup>15)</sup> 이것은 오히려 장애인에게 기만적인 방식으로 배제의 문제를 호도하는 것으로, 배제의 문제 그 자체보다 더 큰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장애인 배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장애인이 정의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배제될 여지가 남는다. 롤즈에서 문제로 지적된 배제의 문제가, 비이상론인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2) 장애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의 문제

역량 접근법은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제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의 정의론을 구축하는 논의에서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일절 제거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핵심 주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은 텅 빈 논의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 장애인 운동에서 정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실제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견인할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sup>16)</sup> 여기서 우리는 어떤 딜레마를 발견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

15) 김병곤, 봉재현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2014)에서 센의 토론에 대한 강조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만을 한다는 점에서 토론을 통한 부정의 제거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16)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에서 장애인 정체성과 정치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문제에서 정체성이란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제에 벗어나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목표하는 장애의 인식적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라는 범주를 버려야 함과 동시에,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서는 장애의 정체성의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의 정체성을 버리기보단 절충안으로서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손상된 개인으로서의 장애'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특수한 의존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 의존의 보편적 사실 아래 장애라는 특수한 존재 양식을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I. 돌봄 윤리

기존 정의론들은 장애에 특화된 정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정의론에 개인의 삶, 미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필자들은 철학사에서 정의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돌봄 윤리가 수정을 통해 보완된다면 기존 정의론이 보지 못했던 측면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의 정의론에 토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론의 토대로 나아가기 전에 우선 에바 키테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돌봄 윤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려 한다.

#### 1. 돌봄과 의존의 편견 허물기

돌봄 윤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회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갓난아기, 질병의 시기, 노년기까지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다. 의존의 시기에 돌봄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돌봄 윤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의존성을 '인간 의존의 사실'이라고 하며, 이 의존의 사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존재론적 사실이기에 의존은 부정적인 상태도, 벗어나야만 하는 상태도 아니다. 흔히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독립적인 모습 이면에는 돌봄이 숨어있다. 의존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인간의 독립보다 앞서있는 근본적 관계이자, 인간 실존의 조건이다. 따라서 의존이라는 낙인으로 발생하는 차별, 배제, 혐오를 거부해야 한다. 돌봄 윤리에서는 정의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상황과 맥락, 그리고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한다. 돌봄이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응답하는 능력이자 의무이며, 응답과 연결을 통해 함께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응답과 연결이라는 특성 때문에 돌봄을 받는 존재는 더이상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게 된다.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돌봄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존재이다.

흔히 의존적인 삶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의 삶도 '인간 의존의 사실'하에서는 특별히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며, 잘 자립하는 데 필요한 특정 돌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삶이다. 모두가 잘 자립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사회가 돌봄에 필요한 역량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하며, 이때 그러한 역량은 당연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 다르므로 분배 과정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돌봄의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평등이 아니다. 돌봄 복지 사회가 추구할 방향은 돌봄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 대한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돌봄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이 돌봄을 받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에서 오는 인식적 부정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sup>17)</sup>는 장애와 비장애 간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장애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손상의 상태이며, 비장애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차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돌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인간 의존의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적 장애 모델'에 가깝다. 사회적 장애 모델<sup>18)</sup>은 최근의 장애인 운동에서 의료적 모델의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델인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손상 자체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억압적인 사회 환경과 제도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다리의 손상 그 자체는 불능의 상태로 주어지지 않으며 인식적 차별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 신체적·정신적 결손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회 환경에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날 때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 장애 모델의 핵심 주장이다. 이제 장애인은 단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으로 구체화되었다.(황수경, 2004) 이 관점에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결손이 아닌 인간의 기능적 제약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제약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돌봄의 제공으로 개선할 수 있다.

## 2. 에바 키테이의 돌봄 윤리

에바 키테이는 의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존자(돌봄 수혜자), 의존 노동자(돌봄 노동자), 의존 노동(돌봄노동), 의존관계(돌봄 관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의존자는 생애 주기적, 육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주어진 환경에서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 없이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속한다. 의존 노동자는 의존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관심이라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의존 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돌봄노동을 뜻하며 의존관계는 불가피한 의존에 기초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돌봄 수혜자와 돌봄 노동자(care giver)의 관계는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형성되지만 이를 단지 애정을 기반으로 한 헌신과 희생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감정적인 교류나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어려운 가족을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책임감은 의존 노동

17)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는 장애인이 정상인들보다 좋지 않은 삶을 살며, 오로지 의존적이고 그렇기에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적 부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논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의 삶을 이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어서 해결해야만 한다.

18) 김도현은 『장애학 함께 읽기』에서 사회적 장애 이론으로 UPIAS가 채택하고 있는 장애를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 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대의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의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키테이는 이런 의무를 ‘배태(胚胎)된 의무(nested obligations)’라고 명명했다. 배태(胚胎)란 사전적으로 ‘아이를 배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에서 파생된 의미로 어떤 현상의 원인은 그 속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배태된 의무에서는 의존 대상자의 절대적인 취약함이지만 절박함, 또는 돌봄노동의 부담을 나눌 조력자의 부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이유가 된다. 돌봄노동의 의무감은 의존 수혜자의 취약한 상황에 응답하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비강제적이지만 비자발적인 돌봄노동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의 효(孝)나 지적 장애인 자식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온종일 집에서 돌보는 경우와 같다. 이는 자발적인 이타심, 헌신, 희생정신보다는 관계가 부과하는 기대, 유대, 책임,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의무감 등을 촉발 원인으로 가지기도 한다. 개인적·자발적 선택을 넘어서는 것이다.

배태된 의무에서 나오는 돌봄은 즉각적인 대가를 기대한 행위가 아니다. 즉,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득이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롤즈의 정의론을 피상적으로만 해석하여 사회구속력을 가지는 의무는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고 호혜성(reciprocity)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sup>19)</sup> 그러나 정작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돌봄의 의무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돌봄은 이른바 ‘확장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런 기대는 우리 사회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롤즈의 호혜성을 상호성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돌봄의 기대는 돌봄이 롤즈 정의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롤즈는 상호성(reciprocity)이 서로에게 이익을 기대하는 태도(mutual benefit/advantage)를 넘어선다고 말한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just savings principle)을 통해 후손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세대를 거친 사회적 협력체계를 주장하며, 세대 사이의 유대를 전제하는 그러한 관계론적 존재론을 고려한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돌봄의 요구는 유사한 동기로 해석될 수 있다.<sup>21)</sup>

### 3. 의존과 자립의 이분법을 넘어서

장애 권리 운동에서 권리는 흔히 ‘자립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통하고, 장애인은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객체적 존재라는 차별적 인식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일부 장애 운동은 그러한

19)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 협력의 개념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생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동등한 시민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상호성이 아닌 호혜성(즉각적 대가)으로 이해하는 것은 롤즈를 피상적으로만 파악하여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롤즈의 상호성 개념은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deep psychological fact)로서(존 롤즈 (2003), p. 634) 사회 협력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개인적 좋음과 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과 달리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협력 조건이 공정하고 합당하다는 등의 도덕적 요소까지 덧붙여진 개념이다(Samuel Freeman (2018), Liber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7-208).

21) 정의로운 저축 원리는 IV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의존의 거부와 독립<sup>22)</sup>을 지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장애인 인식의 개선을 지향할 때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거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독립을 통해 장애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독립적인 삶만이 좋은 삶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차별받게 된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

장애인 독립의 요구는 기존에 있는 자립-의존의 이분법적인 프레임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돌봄은 그러한 이분법적인 프레임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이며, 돌봄과 의존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허물려는 노력이다.<sup>23)</sup> 필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권리 등 인권에 포함된 권리들을 돌봄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자 한다. 인간 의존의 사실을 고려하면 그 누구도 아무런 의존 없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자립은 '잘 의존하는 상태' 또는 '의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제도가 자립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의존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의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자립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자립에 필요한 역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존-자립의 이분법을 넘어서면 장애에 대한 인식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장애인은 의존적인 존재, 비장애인은 자립적인 존재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립이 잘 도움받는 상태로 이해된다면 도움받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독립의 허상을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돌봄 윤리에서 돌봄의 대상은 의존인뿐만 아니라, 의존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홀로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돌봄 노동자의 노력은 가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잘 도움받는 상태의 자립을 인정하면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돌봄 제공자의 노력에 주목할 수 있다. 즉 비로소 돌봄 관계의 참여자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듯 의존-독립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독립의 허상을 제거하면 돌봄의 끈으로 연결된 의존인-돌봄 제공자의 존재 양식을 인정하고 건전한 돌봄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

22) 이 논문에서 독립은, 의존의 상황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23)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2019)에서 자립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상성 개념과, 데카르트 이후부터 이어진 이성 중심주의와 개인주의로부터 이성-비이성, 정상-비정상, 자립-의존의 이분법적인 구분과 그에 따른 위계가 이어져 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대안으로 코뮌주의와 공생을 제시하는데, 코뮌주의-공생에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장애인이 의존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고 비장애인은 사회에서 의존을 이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에 자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비장애인의 자립은 완전히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장애인들도 자립-의존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잘 의존할 수 있도록, 의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 4. 돌봄의 공적 확대 가능성

### 1) 시민성 함양의 조건: 돌봄

돌봄은 인간이 사회적 협력에 요구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돌봄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또 시민성을 갖추어주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돌봄 윤리에 대한 공적 책임이 곧 돌봄의 공공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돌봄의 행위자와 당사자에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돌봄을 위해 요청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돌봄에서의 정의의 원칙임을 의미한다.

키테이가 말하는 사회는 의존의 사실에 놓여있는 개인들이 돌봄의 관계로 얽혀있는 사회 협력체이다. 사회는 돌봄을 토대로 협력한다. 우리는 돌봄이라는 사회적 협력망 속 일원으로서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가 돌봄을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장된 호혜성은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서로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돌봄으로 맺어진 협력체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이 사회적 협력의 조건으로서,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돌봄을 통해 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회를 도모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라면 돌봄은 개인에 대한 희생이나 애정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돌봄은 사적 윤리를 넘은 공공 윤리이며,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의 규범적 기초이고,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을 공적인 것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 2) 돌봄의 공적 요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돌봄을 장애인, 노약자 등의 취약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돌봄은 모든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담론이다. 특히 키테이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돌봄을 요청한다. 돌봄 수혜자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1차 돌봄 관계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면, 돌봄 노동자는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장애인의 돌봄 노동자는 가까운 가족이 되는데, 돌봄의 제공자인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의료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돌봄 수혜자를 돌봄으로써 취업 기회 상실 및 사회 활동 포기를 감수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성장하는 각 단계에서 충격, 분노, 슬픔, 우울 등의 정서적 긴장감을 겪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가족이라는 사정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돌봄 노동자는 돌봄인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직업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다가,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려<sup>24)</sup> 돌봄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장애인의 돌봄이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돌봄 제공자 그 개인의 삶 또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2차 돌봄 관계이다. 키테이는 2차

<sup>24)</sup><https://www.welvoter.co.kr/42008> 장애인 뉴스. 20230726. [장애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검색일: 2024년 7월 31일.)

의존관계를 돌봄 노동자가 조력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존의 상황은 개인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그들에게 사회적 재화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분야 이외에서도 돌봄의 공적 요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sup>25)</sup>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sup>25)</sup>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전체 사망률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복지 요양시설 현황도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정책도 발맞추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복지 정책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돌봄의 공적 확대는 복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맞는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 IV. 돌봄 토대의 정의론

### 1. 정의론 없이 돌봄 윤리 일원론으로 장애를 다룰 때의 문제점

정의론이 장애를 다루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돌봄 윤리 일원론으로 장애를 다루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지배의 문제이다. 아무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가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고,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는 것에서 권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권력의 차이는 장애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인 스스로가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돌봄에 있어 지배의 문제는 돌봄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에 해결책은 권리의 영역이나 정의의 영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롤즈는 '자존감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는 비록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롤즈, 2003)<sup>26)</sup>고 언급하며 자존감을 사회적 재화 중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재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에서 비롯하는 장애인의 자존감 훼손은 정의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해결될 것이라고 보인다.

두 번째, 돌봄 노동자의 개인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돌봄이 정의론의 안으로 들어와 정치적 확대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돌봄은 사적 영역에 자리 잡아 돌봄 노동자가 장애인을 계속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돌봄 윤리가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전제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장애인 돌봄의 문제가 돌봄 윤리 안에서만 논의된다면 정부의 돌봄 책임에 대한 공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sup>25)</sup>[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08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084) 보건복지부, 20221214.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sup>26)</sup> 568p에서 인용하였다.

## 2. 롤즈의 정의론의 토대: 돌봄 윤리

돌봄 윤리 일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장애인 논의가 돌봄 논의만으로 다뤄지는 것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돌봄을 롤즈 정의론의 토대로 삼아 장애 정의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돌봄 윤리는 롤즈의 정의 윤리를 통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이상론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정책이 정의에 합당한지 판단하는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롤즈 정의론은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것을 담보한다. 즉, 정의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돌봄윤리적 정책은 정치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기본적인 자유들과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정의의 원칙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며, 원칙의 충족이 체계의 잘못을 교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사회 이론과 인간 심리 및 다른 많은 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롤즈, 2016) 그래서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선 현실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일어나는 장애인 돌봄의 문제는 돌봄 당사자인 장애인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자유로운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상당 부분의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받아야만 자립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돌봄 노동인이 돌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의무가 법이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희생으로 보았다. 앞서 말했듯, 돌봄의 의무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도, 자발적인 것도 아니며 그러한 돌봄노동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제공자의 자유와 돌봄 이외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태는 롤즈 정의론의 틀 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이 정의론의 토대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비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현실을 개혁할 원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1) 계약을 위한 토대

키테이가 ‘인간 의존의 사실’을 들어 말했듯,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인간 삶을 통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불가피한 의존의 상황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전통적으로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취약성에서부터 협력의 원리를 찾았다. 그렇다면 의존의 상황에 처할 수 없는 인간의 취약함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원동력 될 것이다. 특히 의존의 취약성의 인간 삶의 전체에 녹아있고 사회 협력을 위한 시민들을 기르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면, 돌봄은 계약을 통한 사회 협력체가 앞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앞선 장의 ‘돌봄의 공적 확대 가능성’에서도 보았듯이 돌봄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낸다는 점, 계약을 통한 사회 협력에 돌봄이 포함된다는 점도 돌봄이 롤즈 정의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정의 원칙 합의 과정의 고려 사항: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 원리와 돌봄의 공통된 관심

롤즈는 계약의 참여자인 개인은 가문의 대표(the head of family)로 가까운 후손에 대한 이해 관심을 가지고, 합의 당사자들이 넓은 의미의 상호성으로 자신들이 선조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자신들도 후손들에게 주려는 동기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회의 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상호성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를 원초적 입장에 등장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시대인임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가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저축에도 합의할 이유가 없다. 앞선 세대들이 저축을 해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합당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말하자면 적어도 그들의 보다 근접한 후속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써 가족의 계통을 대표한다. 둘째, 채택된 원칙은 모든 선행 세대들에 대해 그들이 따랐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원칙이어야 한다. 무지의 베일과 함께 이러한 제약은 어느 세대든 모든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증해야만 한다.<sup>27)</sup>

롤즈가 추가한 이 두 가지 가정으로부터 돌봄의 합의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듯 보인다. 우선 합의 당사자인 가문의 대표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해 관심을 갖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해 관심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를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갖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8)</sup> 합의 당사자에게 돌봄의 상황은 정의의 원칙을 수립할 때 합리적으로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존 노동자가 되었을 때 대상자의 안녕을 위해 전적인 돌봄 수행을 선택하여 자신의 관심 전부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또 넓은 의미의 상호성<sup>29)</sup>을 주장하는데, 이 넓은 의미의 상호성으로 롤즈가 도달하고자 했던 정의로운 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의의 여건을 실현시킬 수 있다. 롤즈와 유사하게 키테이도 확장된 호혜성을 주장한다. 즉 정의와 돌봄의 관점 모두 돌봄이 잘 수행되는 사회가 정의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사회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은 정의의 합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것은 돌봄을 정의론이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테이는 정의의 제3원칙으로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의존이라는 불평등한 취약성,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 대해 응답하는 도덕적 힘, 그리고 행복과 안녕보다 우선하는 인간관계에 근거한다(에바 키테이, 2016).<sup>30)</sup> 이 원칙이 롤즈 정의론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의존관계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공적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키테이가 말했듯, 돌봄에 대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돌볼 수 있는 각자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돌봄을 제동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만들어주는 사회제도의 지원에서, 모두가 충분히 지속되는 관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에바 키테이, 2016).<sup>31)</sup>

27) 존 롤즈 (2003), p. 384.

28) 목광수는「기후변화와 롤즈의 세대 간 정의: 파퓰의 비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2016)에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후손에 대한 애정이 상호무관심성과도 양립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29) 앞서 언급하였듯이 롤즈의 상호성은 호혜성(mutual benefit)을 넘어서는 것이다. 상호성은 개인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통시적 관점에서 협력의 체계를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0) 208p에서 인용하였다.

31) 209p에서 인용하였다.

### 3) 비이상론에서의 보완과 롤즈 정의론의 용이성

롤즈 정의론의 토대에서 돌봄을 포함하는 정의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이유는, 롤즈 정의론이 이상론으로 제시되면서 비이상론으로 보완한 여지를 남겨 두어 돌봄 논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마티아 센은 이상론을 폐기하고 비이상론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도출하려 한 반면, 롤즈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정의관을 제시하고 비이상론적 정의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남겨놓았다. 아마티아 센을 따르게 된다면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평가할 기준이 없을뿐더러 일원론적인 논의를 따르므로 모든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롤즈는 이상론에서 부정의를 판단할 원칙을 제공하므로 비이상론에서 계속적인 수정이 용이하다. 또한 비이상론에서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 장기적으로 부정의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아마티아 센의 비이상론은 약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활동 보조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화를 지원한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장애인 돌봄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상론이 없다면 돌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되던 정책이 다시 검토되기 어렵고, 돌봄에 대한 재화 지원만으로 가족의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이상론이 없다면 정책의 개선이 어려워지며, 장애인의 돌봄을 개인의 의무나 희생으로 간주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직관적인 정의감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돌봄의 공적 정의에 대한 이상론적 논의 없이 진행된 재화의 지원은 장애의 정의론과 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거나 개인의 의무 또는 희생만으로 취약한 존재의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정의감, 또 장애인의 삶도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삶도 모두 타인에 의해 희생되면 안된다는 정의감을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의감의 실현은 비이상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상론적인 계획이 있을 때 수정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서는 정의감을 제쳐두고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사회가 자유론적 정치철학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기에 장애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기반으로 돌봄 윤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장애 정의론의 점진적 발전 과정의 초기에서 수용하기 용이하다. 본 논문이 돌봄을 논의하는 현대 사회는 자유주의 토대에서 복지국가 정책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에서 의무나 권리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이 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에서 장애에 대해 바라는 것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이다.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이러한 의무감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용이하다.

셋째, 롤즈의 정의론은 역량접근법에 비해 돌봄을 통한 장애 정의를 실천적으로 전개하기에 더 용이하다. 비계약론적 정의론인 역량 접근법, 특히 아마티아 센의 경우 낙관주의에 기대어 당장의 장애 관련 논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롤즈의 정의론을 따르면 돌봄 윤리를 적용하여 장애에 대한 더욱 발전된 정의를 도출하고 합의하기에 유용하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분배되는 사회의 기본재는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인간관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이 인간관이 점차 돌봄 관계의 당사자들도 포함되도록 수정되거나 보완된다면 돌봄 윤리의 사회적·정치적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돌봄 윤리의 사회적·정치적 확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돌봄 윤리가 기존 정의론의 보완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분배하는 사회적 기본재가 역량접근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를 겨냥하고 있어 실천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3.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의 조건

장애인 돌봄 제공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중증 장애인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부담이 온전히 한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돌봄이 지향하는 확장된 호혜성은 돌봄인에 대한 권리도 지켜져야 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는 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돌봄이 개인의 착취적인 희생을 통한 것이라면 그것은 장애의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돌봄은 단지 의존적인 삶을 사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던 롤즈의 요지, 즉 이상적인 사회에서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돌봄 윤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며,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지속하게 해주는 밑바탕이다. 돌봄과 자유의 균형을 위해 롤즈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과 더불어 장애인을 돌보는 자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된다면 돌봄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장애와 함께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삶이 아닌 상호발전하며 공존하는 삶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와 지속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를 함께 지원하거나 돌봄 제공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정책에 대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롤즈의 자유론적 논의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자유 또한 보장될 수 있는 논의가 앞으로 더욱더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돌봄이 어떻게 가능할지가 논의에서 핵심 질문이 될 것이다.

롤즈가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관을 선택하고 가치관에 맞는 삶을 꾸릴 자유가 있어야 한다. 돌봄을 받는 장애인도 당연히 자신의 삶의 형태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러한 가치관에 맞는 삶을 꾸려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키테이, 2023)<sup>32)</sup> 하지만 이때,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도 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의사전달에서의 어려움과 불가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정의에서 나오는 생각이며, 언어로 의사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장애인이 표현하는 요구에 돌봄 제공인은 응답할 능력이 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동물의 경우에도 부모나 사육사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대개 알아차리고 요구에 응답한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도 돌봄 제공인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능력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능력이 돌봄 제공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며 중증 장애인을 자유롭게 가치관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후퇴하게 만든다.

32) 246p에서 인용하였다.

## V.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은 돌봄을 토대로 한 장애의 정의론을 받아들인다면,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한 서비스는 돌봄의 필요에 따라 그 서비스의 내용과, 고려 대상이 더욱 세분될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롭게 구성된 돌봄 중심의 장애 정의론이 I장에서 권리 중심의 정의론의 한계로 거론되었던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 글에서 구성된 돌봄 중심의 장애 정의론이 실질적인 장애 정책 논의에 어떤 시사점이나 상상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다.

### 1. 탈시설

#### 1) 탈시설의 의미 확대와 시설의 개편

이 글에서 제시된 돌봄 중심의 장애 정의론은 의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의존의 이분법적 구분을 버리고 자립의 상태를 ‘잘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태’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탈시설의 배경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기존의 이해를 넘어 사회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존의 이해는 ‘탈시설’의 의미를 하드웨어적으로만 해석하여 시설이라는 공간으로만 접근하고, 제도나 기관, 조직적이고 관습적인 체계라 보는 소프트웨어적 해석을 등한시하였다.<sup>33)</sup> 따라서 새로 규정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탈시설의 의미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탈시설 운동은 ‘Deinstitutionalization’을 공간적 의미인 시설로만 한정해 해석하였고,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전면 폐쇄는 돌봄의 사회적 확장을 저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탈시설의 의미를 ‘공간적 시설에서 벗어남’에서 더 확장시켜 ‘돌봄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돌봄의 요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책마련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러한 돌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커뮤니티 케어와 시민 교육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잘 포용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가 탈시설을 견인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탈시설 이후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둘째, 지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발달 장애인은 자신이 필요한

<sup>33)</su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4021003> 서울신문. 20230803. [기고] ‘탈시설’ 용어 사용의 위험성. 김성우 천주교청주교구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 · 신부 (검색일: 2024년 7월 31일)

돌봄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의사소통 과정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돌봄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 3) 장애인 가족 맞춤 지원

탈시설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원치 않는 돌봄 노동의 부담이 사회로부터 전가된다면 돌봄 윤리가 목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돌봄 윤리에서 고려하는 돌봄 수혜자에게는 장애인 가족도 포함되며, 그들의 삶의 복지가 감소된다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심리 상담이나, 장애인 가족 자조 모임과 같은 비물질적 돌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심리 상담의 경우,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느라 외출이 어렵다면 비대면 원격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도 장애인 가족의 돌봄 요구에 맞추어 세분화된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 2.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는 돌봄의 접근성과 공공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정의론과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롤즈의 정의론이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돌봄 윤리가 통합되면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본 논의를 토대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수없이 언급했던 것처럼, 탈시설 논의와 동일하게 정책의 목표와 실제 지원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롤즈의 정의론과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제 도움 필요도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이상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활동 보조 서비스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불거졌던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의론을 기반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정성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이상론적 보완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인정 점수를 재조정하거나,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가상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실제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 VI. 나오는 글

필자들은 본 연구에서 장애의 정의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돌봄 윤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장애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롤즈의 정의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보완으로 돌봄 윤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돌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존-자립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오는 장애를 비롯한 의존적 삶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물론 롤즈의 합의를 통한 정의의 원칙 도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이 고려되어 모든 장애인이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겠으나, 이 연구에서 합의가 아닌 방식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관을 확립하는 것에 한계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형태의 장애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비이상론적인 노력이지만 의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정의로운 삶을 제시하려는 시도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가, 또 장애인을 비롯한 의존적인 삶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또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유주의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사점이 있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광백, 전지혜 (202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탈가족화 및 재가족화 현상과 대안 탐색」. 『장애의 재해석』Vol.5(1), 33-57.
- 김병곤, 봉재현 (2014).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Vol.24(3). 29-49.
- 김승욱, 남현주 (2022). 「의존을 포용하는 평등의 이상과 복지국가 - 롤즈의 정치이론에 대한 키테이의 의존비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74(4). 41-63.
- 김희강, 강문선, 이인재. 「보살핌의 공공윤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목광수 (2012).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사회와 철학』Vol.(23). 147-184.
- 목광수 (2016). 「기후변화와 롤즈의 세대 간 정의: 파핏의 비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철학』Vol.(22). 31-61.
- 황수경 (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Vol.4(2). 128-149.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서울: 그린비출판사.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파주: 도서출판 오월의 봄.
- 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돌봄선언』(정소영 옮김). 서울: 니케북스.
- 에바 페더 키테이 (2016). 『돌봄: 사랑의 노동』(김희강, 나상원 옮김). 서울: 박영사.
- 에바 페더 키테이 (2023). 『의존을 배우다』(김준혁 옮김). 서울: 반비.
- 존 롤즈 (2003). 『정의론』(황경식 옮김), 서울: 이학사.
- 존 롤즈 (2016).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김주휘 옮김). 서울: 이학사.
- Freeman, Samuel (2018). Liber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크로스체크] 발달장애인 부모들 “탈시설은 사형선고” JTBC 뉴스룸. 2021.08.01.  
<https://youtu.be/Y55AFfGAOSM?si=ULwk0MWJUzmB8xi2>
- 박지원. (2020. 07. 20). 어머니의 간곡한 請(청)... "활동보조 가족지원 허용해주세요". 소셜포커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7>
- 이병화. (2023. 07.26). 장애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장애인 뉴스.  
<https://www.welvoter.co.kr/42008>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08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084)
- 김성우. [기고] '탈시설' 용어 사용의 위험성, 서울신문, 2023.08.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4021003>

Abstract

# Conditions for Sustainable Coexistence with Disabilities

## : A Disability Justice Theory Based on Care Ethics

Lee Juyoung\* Choi Soomin\*\*

This paper argues that care must be extended to the social and public sphere in order for our society to coexist with disability, and to realize it. It proposes a 'disability justice theory' that modifies John Rawls' justice theory based on the ethics of care. The theory of disability justice is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suggests how society should view and respond to disability, and functions as a standard of justice in the field of disability and disability-related policies.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theoretical foundation that must be examined if society wants to move toward coexistence with disability. However, established theories of justice, which emphasize universal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do not lead to policies that reflect the specificities of disability. An example of this is how deinstitutionalization and assisted living services have limited access to care for som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guide disability policy, a justice theory of disability must consider the micro-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care relationships inherent in such lives.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established theories of justice and aims to revise them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and institutional direction for society to coexist well with disability.

**Keywords :** disability justice, care ethics, Eva Kittay, contractualist justice theory, idealist justice theory

---

\*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Seoul, Senior.

\*\*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Seoul, Sophomore.









KCI 등재후보지

# 장애의 재해석

## 제5권 2호 논문투고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발행하는 「장애의 재해석」 학술지가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제5권 제2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장애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활동가분들의 유익한 연구를 환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논문 투고 부탁드립니다.



논문 주제

장애 관련 주제 혹은 이종학문 간의 융복합 연구로 장애에 대한 자유 주제



접수 기간

~10월 15일(화)까지 투고 완료 분에 한함



발행 주기

연 2회(6. 30. / 12. 31.)



제출 방법

논문투고 신청서 및 논문 원고 1부 JAMS에 등록(<https://kfpd.jams.or.kr>)

※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논문 투고 관련하여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https://kfpd.org>)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 본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논문투고 JAMS 시스템(<https://kfpd.jams.or.kr>)

※ JAMS 시스템상 저자 정보 입력 시, 연구참여자의 현재 소속, 직위 사항 명확히 기재 필요

※ 논문작성법 및 작성 양식(2024년 개정) 참고

한국장애인재단

번역도서 12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와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듣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국장애인재단  
독점 공개!

도서 구매 문의 :  
연구기획팀  
02.6399.6235

번역출간사업  
기획총서 시리즈  
보러가기

■ 피터 블랭크, 일리오노어 플린 지음, 조영식 옮김 ■ 발행일 '24년 2월 29일  
■ 쪽수 527쪽 ■ 가격 17,000원 ■ ISBN 979-11-86957-27-1